



#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최종결과보고서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최종결과보고서**

2019년 12월

---

---

□ 연구 및 집필

---

책임연구원: 최인숙(원광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배은경(호남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최진숙(원광대학교 강사)

연구보조원: 이해인(원광대학교 석사)

연구보조원: 김도영(원광대학교 보육정보센터)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익산시청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  
내용을 기초로 한 연구진의 의견입니다.

##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최종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전라북도 익산시장 귀하



# 연구 요약

## 1부 아동친화도 조사

### I. 익산시 아동친화도 조사

####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아동친화도시란 UN 산하 민간 비영리기구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아동의 안전,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고 도시 운영 및 행정체계 예산이 아동중심이 되는 도시를 의미함
- 아동친화도조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변화모형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아동친화적인 인식수준을 파악하는 표본조사임
- 지역사회의 아동·아동의 보호자·아동을 교육, 보호 및 대변하는 아동 관계자 및 아동권리 옹호자로부터 해당 지자체의 아동 친화영역(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 환경, 가정 환경)의 수준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아동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 2. 조사 방법 및 절차

- 익산시 아동실태 조사대상자
  - 아동: 익산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27명, 중·고등학생 1,041명, 익산시에 거주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은 학교 밖 아동 40명을 포함하여 총 1,608명을 선정함
  - 아동보호자: 미취학아동 부모 110명, 초등학교 부모 145명, 청소년 부모 170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228명을 포함하여 총 653명을 선정함
- 조사도구 및 조사내용
  - 아동용과 보호자용,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용으로 문항이 달리 구성된 아동친화도 평가 설문지가 사용됨
  - 아동용: 초등학교 아동 대상 어린이용과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용 설문지
  - 보호자용: 미취학아동의 보호자용, 초등학교 보호자용, 중·고등학교 보호자용
  - 교사와 아동시설종사자,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용

○ 아동친화도 조사 영역별 문항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권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환경
- 가정생활환경
- 지역만족도
- 현재 삶의 만족도
- 행복감 수준

○ 조사절차 및 분석 방법

- 익산시 아동친화도 조사는 2019년 8월~ 9월까지 익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함
- 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1~2주 뒤 다시 방문하여 회수함
-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WIN 21.0을 사용함
-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청소년·보호자의 관련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적 통계를 통해서 산출하였음

## II. 조사 결과

### 1. 익산시 아동의 생활만족도

- 익산시 아동의 지역사회 만족도: 초등학생이 5.80으로 가장 높았고 중·고등학생 4.78, 학교 밖 아동 4.55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이상 수준의 지역사회 만족도로 평가하였음
- 익산시 아동의 삶의 만족도: 초등학생이 5.74로 가장 높았고 중·고등학생 4.93, 학교 밖 아동 4.86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이상 수준의 삶의 만족도로 평가하였음
- 익산시 아동의 행복감 수준: 초등학생이 5.72로 가장 높았고 학교 밖 아동 5.07, 중·고등학생 4.89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이상 수준의 행복감 수준으로 평가하였음



## 2. 익산시 부모의 생활만족도

- 익산시 부모의 지역사회 만족도: 중·고등학생 부모가 4.96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부모 4.79, 미취학아동 부모 4.47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이상 수준의 지역사회 만족도로 평가하였음
- 익산시 부모의 삶의 만족도: 중·고등학생 부모가 5.31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부모 5.03, 미취학아동 부모 4.86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이상 수준의 삶의 만족도로 평가하였음
- 익산시 부모의 행복감 수준: 중·고등학생 부모가 5.49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부모 5.14, 미취학아동 부모 5.02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이상 수준의 행복감 수준으로 평가하였음

## 3. 조사대상자의 아동친화도 평가

- 조사대상별 아동 친화도 영역별 평가
  - 익산시에 거주하는 아동과 부모,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들의 6개 영역별 아동친화도 평가결과, 가정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영역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참여와 시민권 영역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음
- 지역별 아동친화도 영역별 평가
  - 익산시 읍·면, 구도심, 신도심의 지역별 아동친화도 평가결과, 가정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영역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참여와 시민권 영역은 가장 낮게 평가하였음
- 성인 간 아동친화도 영역별 평가
  - 익산시 미취학아동 부모, 초등학생 부모, 중·고등학생 부모,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보호자의 아동친화도 평가결과, 가정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영역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참여와 시민권 영역은 가장 낮게 평가하였음
- 아동 간 아동친화도 영역별 평가
  - 익산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의 아동친화도 평가결과, 가정생활환경 영역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참여와 시민권 영역은 가장 낮게 평가하였음

## Ⅲ.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익산시 아동친화도 조사는 익산시의 아동친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익산시에 거

주하는 청소년 및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 1,014명과 부모 304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52명, 전체 1,994명을 대상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개발한 6개 영역(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생활환경)의 아동친화도 평가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음

#### ○ 조사 실시 결과

- 전반적으로 교육환경과 가정생활환경 영역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참여와 시민권 영역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가정생활환경에서는 아동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친화도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참여와 시민권, 보건과 사회서비스에서는 부모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부모들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아동친화도를 보통이나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하여 아동이 안전한 환경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참여와 시민권,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의 평가가 다른 대상에 비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동시에 다른 영역보다는 참여와 시민권이나 놀이와 여가 영역, 안전과 보호 영역을 상대적으로 친화도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아동을 위한 참여와 시민권, 놀이와 여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방안 도입이 요구됨
- 거주지역에 따른 영역 평가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구도심 지역의 아동친화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 지역에 따른 아동 관련 환경이나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1. 놀이와 여가

-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아동 관련 시설 및 환경이 잘 조성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영역
- 놀이와 여가 영역에 대한 아동친화도 평가
  - 평균 2.42점으로 아동과 성인 모두 보통 수준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다른 5개 영역과 비교했을 때에는 친화도 순위가 4순위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친화도가 낮은 편이었음
  -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장

소가 있다'[1-2]의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63.6%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 2. 참여와 시민권

○ 참여와 시민권 영역은 지역사회 의사결정과 서비스 이용, 아동권리 등에서 아동과 부모의 참여와 인식이 이루어지는 정도를 확인하는 영역

○ 참여와 시민권 영역에 대한 아동친화도 평가

- 평균 1.81점으로 아동과 성인 모두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다른 5개 영역과 비교했을 때에는 친화도 순위가 6순위로 가장 아동친화도가 낮은 영역으로 평가되었음

-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책이나 매체를 통한 아동권리 인식 경험[2-5], 인터넷을 이용한 지역 소식에 대한 접근성[22-6]은 80% 이상이 보통 이상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반면에 '지역의회나 시장은 아동의 생활이나 지역에 대한 아동 및 부모의 의견을 묻는다'[2-3]라는 문항에서는 66.7%가 '전혀 아니다'로 응답하였는데, 학교급과 상관없이 아동 모두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았고 부모 중에는 미취학아동과 청소년 부모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 지역의 의사결정 참여[2-2]와 아동대상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의견개진[2-4]에서도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음. [2-2]문항은 자녀연령과 상관없이 60% 이상의 부모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 거주 지역별 비교에서는 구도심과 신도심이 읍면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시사점

- 실제 아동과 부모에게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이나 아동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함. 초등학생 학부모보다 미취학아동이나 중·고등학생 부모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았고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것은 학교를 통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평가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자녀가 어리거나 학교급이 높은 경우에 참여 기회가 더 없는 것으로 평가했을 수 있음.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제도뿐 아니라 시행을 계획 중인 아동의회 등을 활성화하고 아동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대상으로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3. 안전과 보호

- 안전과 보호 영역은 지역 아동이 여러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고 안전을 위한 지원체계 접근성, 외부 활동이나 이동에 있어서의 안전이 잘 조성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영역
- 안전과 보호 영역에 대한 아동친화도 평가
  - 평균 2.44점으로 아동과 성인 모두 보통 수준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다른 5개 영역과 비교했을 때에는 친화도 순위가 3순위로 다른 영역과 비교해서는 중간 정도의 순위를 나타냈음
  -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아동은 위험을 느낄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3-1]라는 문항에서는 76.8%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폭력집단으로부터의 안전[3-2], 약물로부터의 안전[3-6]에서도 60%이상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을 보였음. 이와 달리 자전거 이용 안전[3-7]와 대중교통 수단 이용 안전[3-9]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다른 문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에서는 구도심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긍정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음. 유괴나 납치로부터의 안전[3-4], 따돌림과 괴롭힘으로부터의 안전[3-5]도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50%에 가까웠지만 다른 문항과 비교했을 때 부정적 응답 비율이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유괴나 납치로부터의 안전[3-4]에 대해서는 미취학아동 부모, 거주 지역으로는 신도심에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음. 이어서 따돌림과 괴롭힘으로부터의 안전[3-5]에 관한 문항에서는 초등학생 부모나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그리고 거주 지역으로는 구도심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 시사점
  - 전반적인 폭력이나 약물 등의 위험 요소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자녀의 연령이나 지역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의 유괴나 납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따라서 아동의 연령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시행되는 안전체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식개선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내의 따돌림과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수단 이용 안전에 대한 우려도 확인할 수 있어 도로와 교통수단 이용 안전에 관련된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함. 지역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이나 보행에 위협이 되는 공사나 장애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나 버스 운행 업체나 기사들을 대상으로 아

동친화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를 장려할만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4. 보건과 사회서비스

-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과 건강 관련 사회서비스의 접근성을 확인하는 영역
-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아동친화도 평가
  - 평균 2.38점으로 아동과 성인 모두 보통 수준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다른 5개 영역과 비교했을 때에는 친화도 순위가 4순위로 다른 영역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친화도가 낮은 편이었음
  -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4-9], '우리 동네에는 아동이 아플 때 진료받을 병원이 있다'[4-7] 등의 문항에서는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아동의 생존권 관련한 여건이 잘 갖추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다만 '우리 동네에는 매연이나 악취가 없고 깨끗하다'[4-6], '우리 동네에는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다'[4-3], 우리 동네에는 쓰레기가 방치돼 있지 않으며, 더러운 오염수가 흘러 다니지 않는다'[4-4]의 문항에서는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거주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4-6]은 신도심, [4-3]과 [4-4]에서는 구도심에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시사점
  - 기본적인 보건과 사회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매연이나 악취, 위생 상태나 보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것은 지역의 청결이나 환경 상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을 의미함. 이 외에도 아동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인식에서 청소년과 아동 및 청소년 부모의 부정적 평가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고, 아동을 돌봐줄 기관이나 사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초등학생 부모의 평가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부정적인 편이었는데, 이것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5. 교육환경

- 교육환경 영역은 지역의 학교교육 시설, 학교교육 과정 및 다양한 프로그램, 학

교환경 등이 잘 조성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영역

○ 교육환경 영역에 대한 아동친화도 평가

- 평균 2.69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다른 5개 영역과 비교했을 때에는 친화도 순위가 2순위로 다른 영역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친화도가 높은 편이었음
-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항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학교 시설이나 차별없는 교육, 교사와 아동의 관계, 교육내용,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 가운데서 부정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항은 '학교에서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해 배운 적이 있다'[5-21], '지역사회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에게 대안적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를 제공한다'[5-26]이었음. 현재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은 학교교육에서 의무화 되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 부모의 경우에 '전혀 아니다'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시사점

- 기존의 아동권리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권리교육을 지양하고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인식과 홍보를 강화할 다양한 방안이 요구됨.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생조례나 학생권리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아동권리교육과 분리된 교육이 아니라 함께 연계하는 교육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권리교육이나 홍보 방안도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임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 옹호자만을 대상으로 한 문항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질문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이나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함.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교육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6. 가정생활환경

○ 아동의 주거 공간, 식수, 공기 등 전반적인 생활 여건이 잘 조성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영역

○ 가정생활환경 영역에 대한 아동친화도 평가

- 평균 2.88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음. 다른 5개 영역과 비교했을 때에도 친화도 순위가 1순위로 가장 아동친화도가 높은 영역이었음.

- 식수나 전기, 안전한 공간 등에 관한 문항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80%가 넘게 나타나 가정생활 여건은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가장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은 문항은 '아동의 집 공기는 유해하지 않으며 매연과 공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6-4]라는 문항이었는데, 학교밖 아동,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미취학아동 부모 등이 '전혀 아니다'라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1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공기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 내의 환경오염과 공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임
- 소수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주거환경이나 공중화장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도 있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체계나 취약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부 시민참여조사: 아동이 행복한 익산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

### I. 시민참여조사의 개요

#### ○ 시민참여조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익산시의 아동친화도시 이행을 위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중점사업을 식별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하여 유니세프 아도친화도시 조성체계 가이드라인(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16)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사업을 분석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사업을 식별함
- 이에, 아동친화도 조사의 분석결과에 기초로 하여 의제를 선정,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행하였음. 아동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방향성 설정 및 구체적인 정책 과업 마련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관점이 지방정부의 행정에 부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시민참여조사의 범위

-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지역사회 아동, 보호자, 아동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설계, 2) 청취된 의견 및 아동의 요구수준에 대한 질적 분석이라는 과업범위를 설정함. 시민참여조사는 원탁토론 방식을 통하여 보다 질적인 조사 방법으로 직접적인 의

사개진을 청취함으로써 익산시 아동 행복 실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Ⅱ. 시민참여조사 원탁토론의 실행

### 1. 아동의견 수렴을 위한 원탁토론 준비

#### ○ 운영설계

- 시민참여조사의 원탁토론은 대부분의 참가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주의집중 및 체력적 특징을 고려하여 토론의제 선정 및 모집, 전체 일정, 원탁토론 운영진 구성 및 교육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설계를 수행함

#### ○ 참여자 모집

- 참여자 정의 및 모집: 원탁토론의 참가자는 아동친화도 조사의 표본단위와 동일하게,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호자 및 아동관계자(아동 관련 기관과 시설의 종사자)로 구성하고 참가자 모집 일련의 과정은 전담부서에서 실시함. 참여자 모집은 전담부서에서 구청의 홈페이지, 관내 기관 및 시설, 시청에서 활동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위원회의 구성원 등을 통하여 모집함

### 2. 아동의견 수렴을 위한 원탁토론의 운영

#### ○ 참여자 현황

- 참가의사를 밝힌 대상은 103명이었으며, 현장접수까지 포함한 실 참여인원은 100명이었음

- **(운영진 구성과 교육)** 시민참여조사의 원탁토론은 연구진 및 원탁토론 진행 전문가, 관련 전공자들에 의하여 진행됨. 우선 관련 전공자로 원탁별 촉진자로 섭외한 후 연구진 및 원탁토론 진행 전문가가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운영진에 대해서는 원탁토론이 수행될 내부 장소 및 접수에 대한 사전교육과 역할 분담을 실시함. 아울러, 원탁토론의 장소 구성과 대피동선에 대해서도 사전 파악하도록 함

- **(자유토론)** 시민참여조사의 원탁토론에서는 개인별로 관심있는 의제에 대해서 전문투표기를 활용하여 의제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우선적으로 알아봄. 총 10개



원탁에서 원탁별로 6개 의제를 가지고 자유토론을 진행하되, 원탁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시급도가 높은 의제에 대한 논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자유토론을 진행함.

### Ⅲ. 시민참여조사의 내용과 구성

- **(의제개발)** 익산시의 시민참여조사인 원탁토론 토론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의제 개발 절차를 진행함. 의제개발의 원자료는 아동친화도 조사의 결과에 기반하여 취약한 내용을 연구진이 1차적으로 선별하여 의제개발을 위한 사전검토자료 및 분석된 의제개발 검토자료에 기초하여 구성된 의제 초안을 마련함. 이후 자문위원회와 전담부서의 검토를 통해서 최종 의제로 선정함
- **(선정의제)** 시민참여조사인 원탁토론의 의제는 최종적으로 놀이와 여가 영역 "익산에는 어떤 놀이공간과 행사가 필요할까요?", 참여와 시민권 영역 "익산시에 내 생각을 어떻게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을까요?", 안전과 보호 영역 "아이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육환경 영역 "아동권리를 알고 이뤄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정생활환경 영역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로 확정됨

### Ⅳ. 의제별 의견수렴 현황 및 아동의견의 구조화

#### 1. 6대 영역에 대한 문제 인식 우선순위 투표결과

- 6대 영역 의제에 대한 문제인식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1영역 놀이와 여가에 대한 문제인식이 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1순위로 나타났으며, 3영역 안전과 보호에 대한 문제인식이 24%, 6영역 가정생활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이 16%로 나타남. 그 외, 2영역 참여와 시민권, 5영역 교육환경, 4영역 보건과 사회 서비스 순으로 문제 인식에 대한 우선순위가 나타남

#### 2. 아동 의견의 구조화

- **(내용 구조화)** 원탁토론에서 수렴된 아동의 의견은 구조화 절차를 통해 요약됨.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다양한 아동의 의견 중 유사한 것들은 범주화 및 유형화를 통해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정책과 사업에 적용할 수 있음. 특히, 사후에 아동 의견을 반영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의 요구를 54가지로 정리함

### 3. 의제별 의견수렴 현황

- **(의제별 의견수렴)** 원탁토론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가정생활환경, 참여와 시민권, 교육환경, 보건과 사회서비스 순으로 나타남. 의제별 해결방안 의견수렴은 보건과 사회서비스,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교육환경, 가정생활환경 순으로 나타남

### 4. 아동들이 인식하는 주요 해결방안

- **(중요하게 인식하는 주요 해결방안)** 총 10개 원탁토론 조에서 6개 영역 전체 중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해결방안을 3개씩 투표하여 선택하였음
- 그 결과 영역별 주요 해결방안은 놀이와 여가 영역에서는 가족 사랑의 날 만들기, 학교 간 친선운동경기, 낯은 놀이터 시설을 바꾸자,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자에 대한 의견, 참여와 시민권 영역에서는 학교 앞 육교 만들기, 시에서 우리 의견을 듣는 의견함 만들기, SNS, 웹사이트 활용한 토론장 운영, 아동생각표현 익산시 유튜브 개설에 관한 의견, 안전과 보호 영역에서는 청소년 택시, 하교길도 등갓길처럼 교통안전지도 확대 실시, 아동의 심리정서분야 프로그램을 양육자와 함께 거리감 없이 참여할 기회, 고장난 것들을 시청에 쉽게 알릴 수 있게 함, 아동관련 종사자의 역량과 직무적합성을 검증하는 기관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관련 종사자로 전환,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야간까지 어린이를 돌봐주는 시간(서비스)를 만들자는 의견, 교육환경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주세요라고 알린다라는 의견, 가정생활환경 영역에서는 공사장 청결관리나 악취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처벌수위 강화하기에 대한 선호가 우선적으로 나타남

### 3부 아동정책제안

#### □ 아동정책 개요

- ‘아동의 꿈과 함께 비상하는 아동행복도시 익산’을 비전으로 아동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호 및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이를 위하여 아동권리 부분 6개 주요 영역에서 정책 과제를 선정함
- 아동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전략적으로 정책과제를 실행하면서 동시에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확립하고 아동권리 및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는 아동친화도조사, 시민참여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요구도가 높은 부분을 중점과제로 선정함
- 중점과제에 따른 전략 사업은 아동 및 시민의견을 수렴한 이후 실현가능한 사업을 제안하였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나 내용을 제시함

#### I. 놀이와 여가

-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 동네 놀이터 장애아동 접근성 : 청소년 부모 및 미취학아동 부모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음
  - 아동이 참여 가능한 다양한 문화, 종교행사, 이벤트, 축제 : 학교 밖 청소년, 중·고등학생, 청소년 부모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음
- 시민참여 조사 결과
  - 아동의 요구가 반영된 이벤트, 축제 등의 요구
  - 놀이터 시설 개선 요구
  - 놀이공간 및 시설 확충 요구
- 시민참여 조사 결과
  - 아동의 요구가 반영된 이벤트, 축제 등의 요구
  - 놀이터 시설 개선 요구
  - 놀이공간 및 시설 확충 요구

## □ 중점 추진 사항

- 기존 놀이시설 및 공원 환경 개선 및 장애 아동 이용 편의성 제고
- 아동 요구에 부응하는 놀이 공간 조성
- 창의적, 복합적 놀이 프로그램 운영

## □ 중점과제

### 1. 아동 놀이 환경 개선

- 익산시 놀이 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익산시 놀이터의 안전 진단 및 장애 아동 접근성 평가
  - 낡은 시설 개보수 및 장애아동 이용 가능 시설 설치
  - 자연친화적 놀이터 조성
- 아동 체험 놀이 공간 조성
  - 실내 클라이밍, 수직낙하 등 실내 익스트림 스포츠, 풋살장 운영
  - 테마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이동식 놀이 공간 제공
  - '찾아가는 놀이터' 운영
  -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공원 내 여름철 바닥분수나 수영장은 계절에 따른 한계가 있음

### 2. 아동 놀이 프로그램 확대

- 익산 아동(가족) 사랑 축제
  - 주기적 아동사랑 이벤트 개최
  - 예시: 가족 걷기 대회, 가족 스포츠 경연 대회(줄넘기)
  - 기존 축제 내의 아동권리 홍보 이벤트 또는 아동가족 대상 프로그램 신설
- 청소년 복합문화놀이공간 '어울누리' 확대 운영
- 미취학아동(영유아) 대상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육아종합지원센터 앞 놀이공간 조성

## Ⅱ. 참여와 시민권 영역

### ○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 우리 지역사회의 계획이나 중요한 결정 등에 참여 :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부모 전체에서 '전혀 아니다'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남
- 지역의회나 시장의 아동·청소년 의견 요청 :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부모 전체에서 '전혀 아니다'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남

### ○ 시민참여 조사 결과

- 아동청소년의 자치위원회,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활성화하고, 정책 제언 반영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자치활동에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의 참여 정례화 제안함.

## □ 중점 추진 사항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및 적극적인 정책 반영
- 아동권리주간 축제
- 아동옹호 독립 대변기구(옴부즈만) 구성
- 전방위적 아동권리 교육
- 아동권리 홍보

## □ 중점 과제

### 1. 아동 자치기구 활성화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 아동옹호 독립 대변기구 구성
  - 옴부즈만 구성
  - 아동친화도시 아동청소년 활동가 양성

### 2. 아동 참여 환경 조성

- 전방위적 아동권리 교육
- 아동권리 홍보

- 아동권리 홍보 및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하여 아동 인권을 보장하는 분위기를 통하여 아동친화도시 익산 조성

### Ⅲ. 안전과 보호

#### ○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 지역사회 안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에 안전함 : 아동과 성인 모두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음

#### ○ 시민참여 조사 결과

- 청소년들의 방과 후 또는 학원 수강 후 늦은 귀가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택시)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등갓길뿐만 아니라 하갓길 교통안전지도도 이루어지길 바람

#### □ 중점 추진 사항

- 아동의 안전한 보행 보장 및 아동친화적 도로 정비
- 아동 보호 체계 강화

#### □ 중점 과제

#### 1. 아동 안전 환경 조성

-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운영
- 아동 안심벨: 길거리 비상벨 설치

#### 2. 아동 보행 안전 환경 강화

-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인력 배치 확대
- 범죄 및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거지역이 가까운 초등학생을 모아 교통안전지도 성인이 함께 등하교 지원
- 스쿨존 내 신호 및 속도 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 **IV. 보건과 사회 서비스**

##### **○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 아동정신건강서비스(예: 상담 등) : 전체 응답자 중 17.1%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고, 중고등학생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21.7%로 응답자 중 가장 높음

##### **○ 시민참여 조사 결과**

- 야간 아동돌봄시설, 돌봄교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확충 및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음. 특히, 야간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에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담 관련 온오프라인 서비스의 활성화, 학교폭력 피해자 심리지원 확대의 필요성 나타남

##### **□ 중점 추진 사항**

- 야간 긴급 돌봄, 공동체 육아 활성화로 빈 틈 없는 돌봄 지원
-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의 수요공급 조사에 기반한 지원 및 환경 개선
- 학교, 아동청소년, 가족 대상 상담복지시스템의 협력체계 구축
- 청소년 금연 교육 및 시민 금연 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 보건복지서비스 핫라인 개설

##### **□ 중점 과제**

#### **1. 아동 돌봄 서비스 다각화**

- 긴급 돌봄 및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 **2. 아동 상담 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

- 학교, 아동청소년, 가족 대상 상담복지시스템의 협력 체계 구축

#### **3. 아동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 아동청소년 보건복지서비스 핫라인 개설

- 아이돌봄콜센터 및 SNS(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익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건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홍보 체계 구축
- 청소년 금연 교육 및 시민 금연 환경 조성

## **V. 교육환경**

-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 학교내 아동권리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습 경험: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학부모  
등이 상대적으로 경험 유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함
- 시민참여 조사 결과
- 아동권리교육 강화 및 시민 홍보
-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강화
- 자유학기제 등 청소년 체험 학습을 위한 시설 운영

### **□ 중점 추진 사항**

- 아동권리 대중 홍보 강화
- 실효성 있는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확대 강화
- 진로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강화
- 노후화된 학교시설 보수 및 개선

### **□ 중점 과제**

#### **1. 아동권리교육 내실화**

-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2. 진로교육 프로그램 강화**

-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 **3. 학교환경 개선**

- 학교시설 개선 사업



## **VI. 가정생활환경**

### **○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 식수나 전기, 안전한 공간 등에 관한 문항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환경 오염과 공기질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임
- 환경오염과 공기질에 대한 인식 : 아동에 비해 성인들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음

### **○ 시민참여 조사 결과**

-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 청결관리 강화
- 미세먼지와 매연으로 인한 대기질 농도가 높아질 때 휴업, 휴무 권장
- 아동 학대 예방 및 학대받은 아동 관리 강화

### **□ 중점 추진 사항**

- 지역적 특성에 따른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
- 사각지대의 방임아동 보호 방안 마련

### **□ 중점 과제**

#### **1. 아동주거환경 개선**

- 공사장 및 공장 지역 청결 관리 및 오염 방지 감독 강화
- 환경오염 예방 시민 참여 및 의식 개선 사업

#### **2. 아동보호체계 강화**

- 방임 아동 보호 마을 공동체 구성
- 아동학대 예방 홍보: 옥외 광고 설치

# 목 차

## 1부 아동친화도 조사

I. 익산시 아동친화도 조사 .....	3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3
2. 조사 방법 및 절차 .....	4
II. 조사 결과 .....	10
1. 익산시 아동의 생활만족도 .....	10
2. 익산시 부모의 생활만족도 .....	12
3. 조사대상자의 아동친화도 평가 .....	14
I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70
1. 놀이와 여가 .....	170
2. 참여와 시민권 .....	172
3. 안전과 보호 .....	173
4. 보건과 사회서비스 .....	175
5. 교육환경 .....	176
6. 가정생활환경 .....	178

## 2부 시민 참여 조사

I. 시민참여조사의 개요 .....	183
II. 시민참여조사의 실행 .....	184
1. 아동의견 수렴을 위한 원탁토론 준비 .....	184
2. 아동의견 수렴을 위한 원탁토론의 운영 .....	185
III. 시민참여조사의 내용과 구성 .....	185
IV. 의제별 의견수렴 현황 및 아동의견의 구조화 .....	188
1. 6대 영역에 대한 문제 인식 우선순위 투표결과 .....	188
2. 의제별 의견수렴 현황(중복 의견 포함) .....	189
3. 아동 의견의 구조화 .....	190
4. 아동들이 인식하는 주요 해결방안(순위 구분) .....	194

### 3부 아동 정책 방안 제안

I. 놀이와 여가 .....	203
II. 참여와 시민권 영역 .....	207
III. 안전과 보호 .....	213
IV. 보건과 사회 서비스 .....	216
V. 교육환경 .....	220
VI. 가정생활환경 .....	222

# 표 목 차

<표 1-I-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	3
<표 1-I-2> 익산시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자 특성 .....	5
<표 1-I-3> 아동친화도 평가 영역별 설문내용 .....	7
<표 1-I-4> 설문 구성 영역 및 문항 수 .....	9
<표 1-II-1> 익산시 아동의 지역사회 만족도 평가 .....	11
<표 1-II-2> 익산시 아동의 삶의 만족도 평가 .....	11
<표 1-II-3> 익산시 아동의 행복감 수준 평가 .....	12
<표 1-II-4> 익산시 부모의 지역사회 만족도 평가 .....	12
<표 1-II-5> 익산시 부모의 삶의 만족도 평가 .....	13
<표 1-II-6> 익산시 부모의 행복감 수준 평가 .....	13
<표 1-II-7> 조사대상별 아동친화도 영역별 평가 점수 .....	14
<표 1-II-8> 지역별 아동친화도 영역별 평가 점수 .....	15
<표 1-II-9> 성인 간 비교 평균 점수 .....	16
<표 1-II-10> 아동 간 비교 평균 점수 .....	17
<표 1-II-11> 아동은 놀고 쉴 시간이 있다. ....	18
<표 1-II-12>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다.(예: 운동장, 놀이터, 체육시설 등) ....	20
<표 1-II-13> 우리 동네 놀이터는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도 이용할 수 있다. ....	22
<표 1-II-14> 우리 지역사회에는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이 가꿔져 있다. ....	24
<표 1-II-15>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여하고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종교 행사나 이벤트, 축제가 열린다. ...	26
<표 1-II-16> 우리 지역사회에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모임, 활동 등이 있다. ....	28
<표 1-II-17> 우리 동네에는 아동이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다(놀이터나 운동장 등) ....	30
<표 1-II-18>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아동이 참여할 기회가 있다. ....	32
<표 1-II-19> 나는 우리 지역사회의 계획이나 중요한 결정 등에 참여한다. ....	34
<표 1-II-20> 우리 지역 의회나 시장은 나의 생활이나 우리 지역에 관한 나의 의견을 묻는다. ....	36
<표 1-II-21>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대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나의 의견을 묻는다. ....	38
<표 1-II-22> TV, 라디오, 책 등을 통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	40
<표 1-II-23> 아동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 동네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다. ....	42
<표 1-II-24> 아동이 위험을 느낄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 ....	44
<표 1-II-25>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을 위협하는 폭력집단이 없다. ....	46
<표 1-II-26> 아동은 폭력 및 학대*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	48
<표 1-II-27> 아동은 유괴나 납치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	50
<표 1-II-28> 아동은 친구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	52
<표 1-II-29> 아동은 위험한 약물(예: 마약, 환각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	54
<표 1-II-30> 우리 동네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이다. ....	56
<표 1-II-31>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은 인종, 종교, 국적, 민족, 문화 및 장애와 상관없이 존중받는다. ...	58
<표 1-II-32> 우리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은 아동이 이용하기에 안전하다. ....	60

<표 1-Ⅱ-33> 아동은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	62
<표 1-Ⅱ-34>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위험한 일(예: 흡연 등 건강에 해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	64
<표 1-Ⅱ-35>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재난상황(예: 홍수,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행동요령을 알려준다. ....	66
<표 1-Ⅱ-36>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인터넷 사용의 문제점을 알려준다. ....	68
<표 1-Ⅱ-37>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집이 없는 아동에게 먹고, 씻고, 잘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	70
<표 1-Ⅱ-38>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성인과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 ....	72
<표 1-Ⅱ-39>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보호시설(대안돌봄서비스)이 있다. ...	74
<표 1-Ⅱ-40> 나는 아동정신건강 서비스(예: 상담 등)에 대해 알고 있다. ....	76
<표 1-Ⅱ-41> 아동은 전문가를 통해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	78
<표 1-Ⅱ-42> 우리 동네에는 아동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다. ·	80
<표 1-Ⅱ-43> 우리 지역사회에는 쓰레기와 오염수로 인한 문제가 없다. ....	82
<표 1-Ⅱ-44>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 가능한 응급시설이 있다. ....	84
<표 1-Ⅱ-45> 우리 동네에는 매연이나 악취가 없고 깨끗하다. ....	86
<표 1-Ⅱ-46> 우리 동네에는 아동이 아플 때 진료 받을 병원이 있다. ....	88
<표 1-Ⅱ-47>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다. ....	90
<표 1-Ⅱ-48>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	92
<표 1-Ⅱ-49> 우리 지역사회에는 빈곤층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 ....	94
<표 1-Ⅱ-50>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내 자녀를 돌봐 줄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 ..	96
<표 1-Ⅱ-51> 우리 지역사회에는 자녀의 건강과 성장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 ....	98
<표 1-Ⅱ-52> 아동은 학교에 다닌다. ....	100
<표 1-Ⅱ-53> 아동은 학교수업에 필요한 공책, 학용품을 구입할 여유가 있다. ....	102
<표 1-Ⅱ-54>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할 수 있다. ....	104
<표 1-Ⅱ-55> 아동이 필요할 때, 교사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준다. ....	106
<표 1-Ⅱ-56> 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	108
<표 1-Ⅱ-57> 학교에서 교사는 아동의 의견을 경청한다. ....	110
<표 1-Ⅱ-58> 아동은 학교에서 건강한 생활습관과 위생에 대해 배운다. ....	112
<표 1-Ⅱ-59> 아동은 학교에서 환경보호에 대해 배운다. ....	114
<표 1-Ⅱ-60> 아동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	116
<표 1-Ⅱ-61> 학교에는 마시고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	118
<표 1-Ⅱ-62> 학교의 화장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 ....	120
<표 1-Ⅱ-63> 학교에서는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존중받는다. ....	122
<표 1-Ⅱ-64> 학교에서는 장애아동도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124
<표 1-Ⅱ-65> 학교에는 아동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예: 상담사)가 있다. ....	126
<표 1-Ⅱ-66> 학교는 장애를 가진 아동도 다닐 수 있다. ....	128
<표 1-Ⅱ-67> 학교에서는 아동을 체벌을 하지 않는다. ....	130
<표 1-Ⅱ-68> 학교에서는 서로 존중하며, 다른 아동의 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부터 안전하다. ....	132
<표 1-Ⅱ-69>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아동들에게 미래직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134
<표 1-Ⅱ-70>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운동하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	136
<표 1-Ⅱ-71>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 ....	138
<표 1-Ⅱ-72> 아동은 학교에서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해 배운 적이 있다. ...	140

<표 1-Ⅱ-73>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교육비를 직접 벌지 않아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42
<표 1-Ⅱ-74>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장소(학교 등)가 있다. ....	144
<표 1-Ⅱ-75> 학교의 운영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편리하다. ....	146
<표 1-Ⅱ-76> 집 근처에 경제적이고 알맞은 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	148
<표 1-Ⅱ-77> 우리 지역사회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에게 대안적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	150
<표 1-Ⅱ-78> 아동은 우리 집에서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	152
<표 1-Ⅱ-79> 아동은 집이나 집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	154
<표 1-Ⅱ-80> 아동은 집에서 몸이나 손을 씻을 때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	156
<표 1-Ⅱ-81> 우리 집 공기는 유해하지 않으며 매연과 공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 ....	158
<표 1-Ⅱ-82> 우리 집에는 전기조명시설이 갖춰져 있다. ....	160
<표 1-Ⅱ-83> 우리 집은 날씨와 상관없이 지낼만한 곳이다. ....	162
<표 1-Ⅱ-84> 우리 집은 경제적이며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다. ....	164
<표 1-Ⅱ-85> 우리 집에는 아동을 위한 공간(예: 놀이, 공부, 수면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있다. ....	166
<표 1-Ⅱ-86> 우리 집은 아동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	168
<표 1-Ⅲ-1> 놀이와 여가 문항별 비교 .....	171
<표 1-Ⅲ-2> 참여와 시민권 문항별 비교 .....	172
<표 1-Ⅲ-3> 안전과 보호 문항별 비교 .....	174
<표 1-Ⅲ-4> 보건과 사회서비스 문항별 비교 .....	175
<표 1-Ⅲ-5> 교육환경 문항별 비교 .....	177
<표 1-Ⅲ-6> 가정생활환경 문항별 비교 .....	178
<표 2-Ⅱ-1> '아동이 행복한 익산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참석자 현황 .....	185
<표 2-Ⅲ-1> 의제개발을 위한 논의 과정 .....	186
<표 2-Ⅲ-2> 시민참여조사를 위한 선정의제 .....	187
<표 2-Ⅳ-1> 의제별 의견수렴 현황(중복 의견 포함) .....	189
<표 2-Ⅳ-2> 아동 의견의 구조화 .....	190
<표 2-Ⅳ-3> 아동 의견의 구조화 아동들이 인식하는 주요 해결방안(순위 구분) .....	195
<표 3-Ⅰ-1> 익산시 공원 수 .....	203
<표 3-Ⅱ-1> 익산시 아동친화 6대 영역별 예산 현황 .....	207
<표 3-Ⅳ-1> 보육지원 시설 및 어린이집 현황 .....	216
<표 3-Ⅳ-2> 아동지원시설 현황 .....	216
<표 3-Ⅳ-3> 청소년시설 현황 .....	216
<표 3-Ⅴ-1> 교육 기관 현황 .....	220
<표 3-Ⅴ-2> 도서관 및 문화시설 현황 .....	220

# 그 림 목 차

[그림 1-Ⅱ-1] 조사대상별 아동친화도 영역별 평가 비교 .....	14
[그림 1-Ⅱ-2] 지역별 아동친화도 영역별 평가 비교 .....	15
[그림 1-Ⅱ-3] 성인 간 아동친화도 영역별 평가 비교 .....	16
[그림 1-Ⅱ-4] 아동간 아동친화도 영역별 평가 비교 .....	17
[그림 1-Ⅱ-5] 아동은 놀고 쉴 시간이 있다. ....	19
[그림 1-Ⅱ-6]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다. ....	21
[그림 1-Ⅱ-7] 우리 동네 놀이터는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도 이용할 수 있다. ....	23
[그림 1-Ⅱ-8] 우리 지역사회에는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이 가꿔져 있다. ....	25
[그림 1-Ⅱ-9]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여하고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종교 행사나 이벤트, 축제가 열린다. ....	27
[그림 1-Ⅱ-10] 우리 지역사회에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모임, 활동 등이 있다. ....	29
[그림 1-Ⅱ-11] 우리 동네에는 아동이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다 .....	31
[그림 1-Ⅱ-12]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아동이 참여할 기회가 있다. ....	33
[그림 1-Ⅱ-13] 나는 우리 지역사회의 계획이나 중요한 결정 등에 참여한다. ....	35
[그림 1-Ⅱ-14] 우리 지역 의회나 시장은 나의 생활이나 우리 지역에 관한 나의 의견을 묻는다. ....	37
[그림 1-Ⅱ-15]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대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나의 의견을 묻는다. ....	39
[그림 1-Ⅱ-16] TV, 라디오, 책 등을 통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	41
[그림 1-Ⅱ-17] 아동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 동네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다. ..	43
[그림 1-Ⅱ-18] 아동이 위험을 느낄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 ....	45
[그림 1-Ⅱ-19]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을 위협하는 폭력집단이 없다. ....	47
[그림 1-Ⅱ-20] 아동은 폭력 및 학대*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	49
[그림 1-Ⅱ-21] 아동은 유괴나 납치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	51
[그림 1-Ⅱ-22] 아동은 친구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	53
[그림 1-Ⅱ-23] 아동은 위험한 약물(예: 마약, 환각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	55
[그림 1-Ⅱ-24] 우리 동네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이다. ....	57
[그림 1-Ⅱ-25]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은 인종, 종교, 국적, 민족, 문화 및 장애와 상관없이 존중받는다. ....	59
[그림 1-Ⅱ-26] 우리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은 아동이 이용하기에 안전하다. ....	61
[그림 1-Ⅱ-27] 아동은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	63
[그림 1-Ⅱ-28]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위험한 일(예: 흡연 등 건강에 해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	65
[그림 1-Ⅱ-29]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재난상황(예: 홍수,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행동요령을 알려준다. ...	67
[그림 1-Ⅱ-30]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인터넷 사용의 문제점을 알려준다. ....	69
[그림 1-Ⅱ-31]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집이 없는 아동에게 먹고, 씻고, 잘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	71
[그림 1-Ⅱ-32]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성인과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 ..	73
[그림 1-Ⅱ-33]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보호시설(대안돌봄서비스)이 있다. ...	75
[그림 1-Ⅱ-34] 나는 아동정신건강 서비스(예: 상담 등)에 대해 알고 있다. ....	77
[그림 1-Ⅱ-35] 아동은 전문가를 통해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	79
[그림 1-Ⅱ-36] 우리 동네에는 아동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다. 81	

[그림 1-Ⅱ-37] 우리 지역사회에는 쓰레기와 오염수로 인한 문제가 없다. ....	83
[그림 1-Ⅱ-38]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 가능한 응급시설이 있다. ...	85
[그림 1-Ⅱ-39] 우리 동네에는 매연이나 악취가 없고 깨끗하다. ....	87
[그림 1-Ⅱ-40] 우리 동네에는 아동이 아플 때 진료 받을 병원이 있다. ....	89
[그림 1-Ⅱ-41]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다. ....	91
[그림 1-Ⅱ-4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	93
[그림 1-Ⅱ-43] 우리 지역사회에는 빈곤층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 ....	95
[그림 1-Ⅱ-44]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내 자녀를 돌봐 줄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 ....	97
[그림 1-Ⅱ-45] 우리 지역사회에는 자녀의 건강과 성장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 ...	99
[그림 1-Ⅱ-46] 아동은 학교에 다닌다. ....	101
[그림 1-Ⅱ-47] 아동은 학교수업에 필요한 공책, 학용품을 구입할 여유가 있다. ....	103
[그림 1-Ⅱ-48]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할 수 있다. ....	105
[그림 1-Ⅱ-49] 아동이 필요할 때, 교사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준다. ....	107
[그림 1-Ⅱ-50] 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	109
[그림 1-Ⅱ-51] 학교에서 교사는 아동의 의견을 경청한다. ....	111
[그림 1-Ⅱ-52] 아동은 학교에서 건강한 생활습관과 위생에 대해 배운다. ....	113
[그림 1-Ⅱ-53] 아동은 학교에서 환경보호에 대해 배운다. ....	115
[그림 1-Ⅱ-54] 아동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	117
[그림 1-Ⅱ-55] 학교에는 마시고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	119
[그림 1-Ⅱ-56] 학교의 화장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 ....	121
[그림 1-Ⅱ-57] 학교에서는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존중받는다. ....	123
[그림 1-Ⅱ-58] 학교에서는 장애아동도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125
[그림 1-Ⅱ-59] 학교에는 아동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예: 상담사)가 있다. ....	127
[그림 1-Ⅱ-60] 학교는 장애를 가진 아동도 다닐 수 있다. ....	129
[그림 1-Ⅱ-61] 학교에서는 아동을 체벌을 하지 않는다. ....	131
[그림 1-Ⅱ-62] 학교에서는 서로 존중하며, 다른 아동의 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부터 안전하다. ...	133
[그림 1-Ⅱ-63]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아동들에게 장래직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135
[그림 1-Ⅱ-64]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운동하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	137
[그림 1-Ⅱ-65]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 ....	139
[그림 1-Ⅱ-66] 아동은 학교에서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해 배운 적이 있다. ..	141
[그림 1-Ⅱ-67]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교육비를 직접 벌지 않아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43
[그림 1-Ⅱ-68]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장소(학교 등)가 있다. ....	145
[그림 1-Ⅱ-69] 학교의 운영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편리하다. ....	147
[그림 1-Ⅱ-70] 집 근처에 경제적이고 알맞은 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	149
[그림 1-Ⅱ-71] 우리 지역사회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에게 대안적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	151
[그림 1-Ⅱ-72] 아동은 우리 집에서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	153
[그림 1-Ⅱ-73] 아동은 집이나 집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	155
[그림 1-Ⅱ-74] 아동은 집에서 몸이나 손을 씻을 때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	157
[그림 1-Ⅱ-75] 우리 집 공기는 유해하지 않으며 매연과 공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 ....	159
[그림 1-Ⅱ-76] 우리 집에는 전기조명시설이 갖춰져 있다. ....	161



[그림 1-Ⅱ-77] 우리 집은 날씨와 상관없이 지낼만한 곳이다. ....	163
[그림 1-Ⅱ-78] 우리 집은 경제적이며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다. ....	165
[그림 1-Ⅱ-79] 우리 집에는 아동을 위한 공간(예: 놀이, 공부, 수면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있다. ....	167
[그림 1-Ⅱ-80] 우리 집은 아동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	169
[그림 2-I-1] 아동이 행복한 익산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의 절차 ....	183
[그림 2-IV-1] 익산시 아동정책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	189
[그림 2-IV-2] 의제별 해결방안 의견수렴 ....	189
[그림 2-IV-3] 의제별 해결방안에 대한 영역별 워드클라우드 키워드 ....	194
[그림 3-1] 아동정책 개요 ....	201



## 1부 아동 친화도 조사



## 1부 아동 친화도 조사

### I. 익산시 아동친화도 조사

####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1) 아동친화도 조사에 대한 설명(원칙)

아동친화도시란 UN 산하 민간 비영리기구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아동의 안전,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고 도시 운영 및 행정체계 예산이 아동중심이 되는 도시를 의미한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로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는 10가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적용하여 지방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아동의 참여와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마련, 아동의 권리 홍보 및 정책수립, 아동권리 전담기구 조직구성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조사는 이러한 아동친화도시 원칙을 토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변화모형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아동친화적인 인식수준을 파악하는 표본조사이다.

<표 1-I-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원칙	내용
1.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함.
2.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함.
3. 아동권리 증진 전략 개발	UN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함.
4.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함.
5. 아동영향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함.
6.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한다.
7.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함.
8.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해서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함.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권리 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함.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함.

출처: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unicef.or.kr/>)에서 2020.1.19 인출.

## 2) 익산시의 아동친화도 조사 목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조사는 지역사회의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교육, 보호 및 대변하는 아동 관계자 및 아동권리 옹호자로부터 해당 지자체의 아동 친화영역(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 환경, 가정 환경)의 수준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아동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 2. 조사 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자

익산시 아동실태조사 대상자는 아동의 경우 익산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527명, 중·고등학생 1,041명, 익산시에 거주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은 학교 밖 아동 40명을 포함하여 총 1,608명을 선정하였다. 아동보호자의 경우 미취학아동 부모 110명, 초등학생 부모 145명, 청소년 부모 170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228명을 포함하여 총 653명을 선정하였다.

익산시 아동친화도 조사 설문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수는 1,994명으로 초등학생 499명(25.0%), 중·고등학생 922명(46.2%), 학교 밖 아동 29명(1.5%), 미취학아동 부모 103명(5.2%), 초등학생 부모 114명(5.7%), 중·고등학생 부모 143명(7.2%),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명(9.2%)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초·중·고등학생) 1,450명(72.7%), 부모(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 부모) 360명(18.1%),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명(9.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읍면 375명(19.2%), 구도심 658명(33.6%), 신도심 923명(47.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로 살펴보면 아동 남학생 568명(28.5%), 아동 여학생 882명(44.2%), 부모 남성 66명(3.3%), 부모 여성 294명(14.7%), 아동관계자 남성 33명(1.6%), 아동관계자 여성 151명(7.7%)로 나타났다.

&lt;표 1-I-2&gt; 익산시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1,994	100.0
응답자	초등학생	499	25.0
	중·고등학생	922	46.2
	학교 밖 아동	29	1.5
	미취학 아동 부모	103	5.2
	초등학생 부모	114	5.7
	중·고등학생 부모	143	7.2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9.2
유형별 응답자	아동(초·중·고)	1,450	72.7
	부모(미취학+초+중+고)	360	18.1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9.2
학교 소재지/거주지역	읍·면	375	19.2
	구도심	658	33.6
	신도심	923	47.2
성별	(아동) 남학생	568	28.5
	(아동) 여학생	882	44.2
	(부모) 남성	66	3.3
	(부모) 여성	294	14.7
	(아동관계자) 남성	33	1.6
	(아동관계자) 여성	151	7.7

## 2) 조사도구 및 조사내용

익산시 아동실태조사에는 조사 대상에 따라 아동용과 보호자용,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용으로 문항이 달리 구성된 아동친화도 평가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아동용은 초등학교 아동 대상 어린이용과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용 설문지로 구분되고, 보호자용은 미취학아동의 보호자용, 초등학생 보호자용, 그리고 중고등학생 보호자용으로 달리 구성된 설문지가 사용되었으며, 교사와 아동시설종사자들에게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용 아동친화도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 파악에 사용되는 설문지는 유니세프에서 개발한 지역사회 아동친화도 평가 척도로서, 본 익산시 아동실태조사에 사용된 척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한국의 실정에 맞게 보완한 것이다.

초등학생에게는 유니세프의 어린이용 아동친화도 평가 설문지, 중고등학생에게는 청소년용 아동친화도 평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부모들은 자녀 연령대별로 미취학 아동 보호자용, 어린이 보호자용, 그리고 청소년 보호자용 아동친화도 평가 설문지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연령대별 교사와 아동시설종사자들에게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용 아동친화도 평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어린이용과 청소년용 설문지, 자녀 연령대별 3종의 부모용 설문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용 설문지에는 익산시의 아동친화도 평가 설문 외에 공통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연령, 성별, 국적 등 인구 통계학적 문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아동용과 부모용 설문지에는 아동친화도 평가 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 본인이 느끼는 현재의 삶의 만족도, 행복감을 느끼는 수준을 묻는 7점 평정 문항이 포함되었다.

### **3) 아동친화도 조사 영역별 문항**

조사 대상자에 따라 총 6종으로 개발된 아동친화도 평가 설문 내용은 아동의 중요한 권리인 참여, 생존, 보호, 발달을 지원,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환경들에 관한 것으로서, 본 실태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6개의 아동권리 영역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구성되었다. 즉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1-I-3에 제시한 바와 같다.



&lt;표 1-I-3&gt; 아동친화도 평가 영역별 설문내용

영역	설문문항
놀이와 여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놀고 쉴 시간이 있다.</li> <li>2.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다.</li> <li>3. 우리 동네 놀이터는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도 이용할 수 있다.</li> <li>4. 우리 동네에는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이 가꿔져 있다.</li> <li>5.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여하고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종교 행사나 이벤트, 축제가 열린다.</li> <li>6. 우리 지역사회에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모임, 활동 등이 있다.</li> <li>7. 우리 동네에는 아동이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다.</li> </ol>
참여와 시민의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아동이 참여할 기회가 있다.</li> <li>2. 아동은 우리 지역의 계획이나 중요한 결정 등에 참여한다.</li> <li>3. 우리 지역 의회나 시장은 아동의 생활이나 우리 지역에 관한 아동의 의견을 묻는다.</li> <li>4.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대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아동의 의견을 묻는다.</li> <li>5. TV, 라디오, 책 등을 통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li> <li>6. 아동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 동네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다.</li> </ol>
안전과 보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은 위험을 느낄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li> <li>2.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을 위협하는 폭력집단이 없다.</li> <li>3. 아동은 폭력 및 학대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li> <li>4. 아동은 유괴나 납치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li> <li>5. 아동은 친구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li> <li>6. 아동은 위험한 약물(예: 마약, 환각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li> <li>7. 우리 동네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이다.</li> <li>8.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청소년은 인종, 종교, 국적, 민족, 문화 및 장애와 상관없이 존중받는다.</li> <li>9. 아동은 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li> <li>10. 아동은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li> <li>11.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위험한 일(예: 흡연 등 건강에 해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li> <li>12. 우리 지역사회는 재난상황(예: 홍수,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행동요령을 알려준다.</li> <li>13.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인터넷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알려준다.</li> <li>14.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집이 없는 아동에게 먹고, 씻고, 잘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li> <li>15. 아동이 법적인 문제에 처했을 경우, 성인과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li> <li>16.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보호시설(대안돌봄서비스)이 있다.</li> </ol>
보건과 사회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은 아동정신건강 서비스(예: 상담 등)에 대해 알고 있다.</li> <li>2. 아동은 전문가를 통해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li> <li>3. 우리 동네에는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다.</li> <li>4. 우리 동네에는 쓰레기가 방치돼 있지 않으며, 더러운 오염수가 흘러 다니지 않는다.</li> <li>5.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가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 가능한 응급시설이 있다.</li> <li>6. 우리 동네에는 매연이나 악취가 없고 깨끗하다.</li> <li>7. 우리 동네에는 아플 때 진료 받을 병원이 있다.</li> <li>8. 우리 지역사회는 나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다.</li> <li>9.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li> <li>10. 우리 지역사회에는 빈곤층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li> <li>11. 우리 지역사회에는 부모가 필요로 할 때, 아동을 돌봐줄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li> <li>12. 우리 지역사회에는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과 성장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li> </ol>

영역	설문문항
교육환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 지역사회 아동은 학교에 다닌다.</li> <li>2. 아동은 학교수업에 필요한 공책, 학용품을 구입할 여유가 있다.</li> <li>3. 아동은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전할 수 있다.</li> <li>4. 아동이 필요할 때, 선생님들은 아동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li> <li>5. 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li> <li>6. 학교에서 아동이 의견을 말하면 선생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li> <li>7. 아동은 학교에서 건강한 생활습관과 위생에 대해 배운다.</li> <li>8. 아동은 학교에서 환경보호에 대해 배운다.</li> <li>9. 아동은 우리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li> <li>10. 우리 학교에는 마시고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li> <li>11. 우리 학교 화장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li> <li>12. 우리 학교에서는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존중받는다.</li> <li>13.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도 존중하고, 똑같이 대우한다.</li> <li>14. 우리학교에는 아동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예: 상담사)가 있다.</li> <li>15. 우리 학교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다닐 수 있다.</li> <li>16. 우리 학교에서는 체벌을 하지 않는다.</li> <li>17. 우리 학교에서는 서로 존중하며, 다른 친구의 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부터 안전하다.</li> <li>18. 우리 학교와 아동이 사는 지역에는 어린이의 장래 직업에 관련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있다.</li> <li>19.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운동하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li> <li>20. 우리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에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li> <li>21. 아동은 학교에서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해 배운 적이 있다.</li> <li>2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교육비를 직접 벌지 않아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li> <li>23.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장소(학교 등)가 있다.</li> <li>24. 우리 지역사회 교육기관의 운영시간은 아동의 가족들에게 편리하다.</li> <li>25. 우리 지역사회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에게 대안적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를 제공한다.</li> </ol>
가정생활 환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은 집에서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li> <li>2. 아동은 집이나 집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li> <li>3. 아동은 집에서 몸이나 손을 씻을 때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li> <li>4. 아동의 집 공기는 유해하지 않으며 매연 과 공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li> <li>5. 아동의 집에는 전기조명시설이 갖춰져 있다.</li> <li>6. 아동의 집은 날씨와 상관없이 지낼만한 곳이다.</li> <li>7. 아동의 집은 경제적이며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다.</li> <li>8. 아동의 집에는 자신의 공간(예: 놀이, 공부, 수면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있다.</li> <li>9. 아동의 집은 아동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li> </ol>

&lt;표 1-I-4&gt; 설문 구성 영역 및 문항 수

영역	문항 수					
	초등학생	중고등 학생	미취학 아동부모	초등학생 부모	중고등 학생부모	아동 관계자
놀이와 여가	7	7	7	7	7	7
참여와 시민권	6	6	5	6	6	6
안전과 보호	14	15	8	13	14	16
보건과 사회서비스	8	8	12	12	12	12
교육환경	23	23	22	24	24	26
가정생활환경	9	9	9	9	9	9
지역 만족도	1	1	1	1	1	-
삶의 만족도	1	1	1	1	1	-
행복감 수준	1	1	1	1	1	-

#### 4) 조사절차 및 분석 방법

익산시 아동친화도 조사는 2019년 8월~9월까지 익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1~2주 뒤 다시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또한 일부 조사자의 직접 조사 방식을 원하는 학교에 한해 조사자가 직접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당일 전량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II. 조사 결과

본 실태조사의 내용은 익산시 아동친화도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과 조사대상 아동과 부모의 생활 만족도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격적인 아동친화도 평가 결과 분석에 앞서 익산시 아동과 부모의 생활만족도 조사 자료를 먼저 살펴보았다.

본 실태조사의 주 목적인 아동과 부모, 교사와 아동시설종사자의 익산시 지역에 대한 아동친화도 평가 자료들은 설문지의 아동권리 6개 영역별, 그리고 각 영역의 문항별로 분석하였다. 우선 전체 조사대상자의 익산시 아동친화도 평가 경향을 살펴보았으며, 아동, 부모, 교사 및 아동시설조사자의 아동친화도 영역별 평가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어서 아동, 부모, 교사 및 아동시설종사자 집단 순서로 아동친화도 6개 영역의 각 문항에 대한 평가 결과 중 의미 있는 자료들을 해석하여 정책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 1. 익산시 아동의 생활만족도

익산시 아동의 개인적 생활만족을 나타내는 문항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과 “본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 “현재 본인이 느끼는 행복감”에 대한 것으로 최저 1점에서 최고 7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아동들의 평균 평정점수는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익산시 아동의 지역사회 만족도는 초등학생이 5.80으로 가장 높았고 중고등학생 4.78, 학교 밖 아동 4.55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이상 수준의 지역사회 만족도로 평가하였다.

&lt;표 1-Ⅱ-1&gt; 익산시 아동의 지역사회 만족도 평가

(단위: 사례수(%))

구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지역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2(0.4)	8(0.9)	2(6.9)
	2	3(0.6)	36(3.9)	3(10.3)
	3	12(2.4)	113(12.3)	1(3.4)
	4 (보통)	58(11.6)	241(26.1)	7(24.1)
	5	100(20.0)	242(26.2)	7(24.1)
	6	152(30.5)	156(16.9)	5(17.2)
	7 (매우 만족)	172(34.5)	126(13.7)	4(13.8)
합 계		499(100.0)	922(100.0)	29(100.0)
평 균		5.80	4.78	4.55

익산시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초등학생이 5.74로 가장 높았고 중고등학생 4.93, 학교 밖 아동 4.86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이상 수준의 삶의 만족도로 평가하였다.

&lt;표 1-Ⅱ-2&gt; 익산시 아동의 삶의 만족도 평가

(단위: 사례수(%))

구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삶의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5(1.0)	10(1.1)	1(3.4)
	2	6(1.2)	28(3.0)	0(0.0)
	3	26(5.2)	92(10.0)	3(10.3)
	4 (보통)	56(11.2)	220(23.9)	8(27.6)
	5	87(17.4)	237(25.7)	7(24.1)
	6	131(26.3)	202(21.9)	6(20.7)
	7 (매우 만족)	188(37.7)	133(14.4)	4(13.8)
합 계		499(100.0)	922(100.0)	29(100.0)
평 균		5.74	4.93	4.86

익산시 아동의 행복감 수준은 초등학생이 5.72로 가장 높았고 학교 밖 아동 5.07, 중고등학생 4.89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이상 수준의 행복감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표 1-Ⅱ-3> 익산시 아동의 행복감 수준 평가

(단위: 사례수(%))

구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행복감 수준	1 (매우 불만족)	7(1.4)	12(1.3)	1(3.4)
	2	11(2.2)	26(2.8)	0(0.0)
	3	22(4.4)	102(11.1)	2(6.9)
	4 (보통)	57(11.4)	212(23.0)	8(27.6)
	5	77(15.4)	257(27.9)	6(20.7)
	6	135(27.1)	182(19.7)	6(20.7)
	7 (매우 만족)	190(38.1)	131(14.2)	6(20.7)
합 계		499(100.0)	922(100.0)	29(100.0)
평 균		5.72	4.89	5.07

## 2. 익산시 부모의 생활만족도

익산시 부모의 지역사회 만족도는 중고등학생 부모가 4.96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부모 4.79, 미취학아동 부모 4.47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이상 수준의 지역사회 만족도로 평가하였다.

<표 1-Ⅱ-4> 익산시 부모의 지역사회 만족도 평가

(단위: 사례수(%))

구분		미취학아동 부모	초등학생 부모	중고등학생 부모
지역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0(0.0)	1(0.9)	0(0.0)
	2	7(6.9)	3(2.6)	1(0.7)
	3	13(12.6)	10(8.8)	16(11.2)
	4 (보통)	38(37.3)	28(24.6)	27(18.9)
	5	21(20.6)	41(36.0)	58(40.6)
	6	15(14.7)	25(21.9)	26(18.2)
	7 (매우 만족)	8(7.8)	6(5.3)	15(10.5)
합 계		102(100.0)	114(100.0)	143(100.0)
평 균		4.47	4.79	4.96

익산시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중·고등학생 부모가 5.31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부모 5.03, 미취학아동 부모 4.86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이상 수준의 삶의 만족도로 평가하였다.

<표 1-Ⅱ-5> 익산시 부모의 삶의 만족도 평가 (단위: 사례수(%))

구분		미취학아동 부모	초등학생 부모	중·고등학생 부모
삶의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0(0.0)	1(0.9)	0(0.0)
	2	2(2.0)	4(3.5)	1(0.7)
	3	10(9.8)	6(5.3)	6(4.2)
	4 (보통)	24(23.5)	22(19.3)	20(14.0)
	5	39(38.2)	40(35.1)	55(38.5)
	6	18(17.5)	29(25.4)	42(29.4)
	7 (매우 만족)	9(8.8)	12(10.5)	19(13.3)
합 계		102(100.0)	114(100.0)	143(100.0)
평 균		4.86	5.03	5.31

익산시 부모의 행복감 수준은 중·고등학생 부모가 5.49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부모 5.14, 미취학아동 부모 5.02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이상 수준의 행복감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표 1-Ⅱ-6> 익산시 부모의 행복감 수준 평가 (단위: 사례수(%))

구분		미취학아동 부모	초등학생 부모	중·고등학생 부모
행복감 수준	1 (매우 불만족)	0(0.0)	1(0.9)	1(0.7)
	2	2(2.0)	3(2.6)	1(0.7)
	3	6(5.9)	7(6.1)	4(2.8)
	4 (보통)	25(24.5)	18(15.8)	13(9.1)
	5	33(32.4)	36(31.6)	52(36.4)
	6	27(26.5)	37(32.5)	46(32.2)
	7 (매우 만족)	9(8.8)	12(10.5)	26(18.2)
합 계		102(100.0)	114(100.0)	143(100.0)
평 균		5.02	5.14	5.49

### 3. 조사대상자의 아동친화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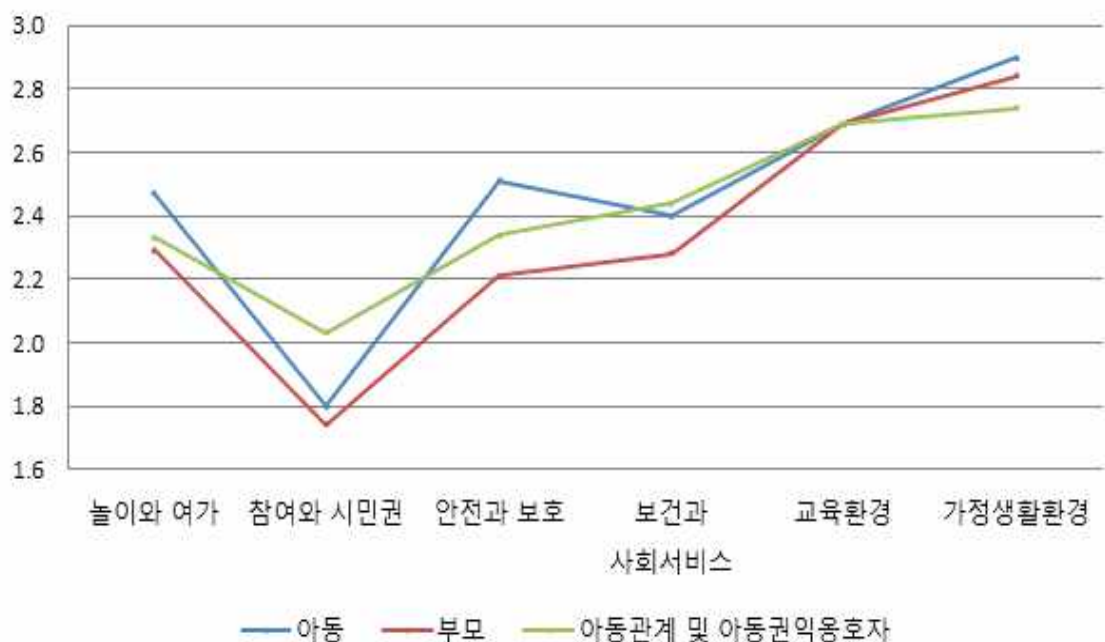
#### 1) 조사대상별 아동 친화도 영역별 평가

익산시에 거주하는 아동과 부모,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들의 6개 영역별 아동친화도 평가결과, 가정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영역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참여와 시민권 영역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표 1-Ⅱ-7> 조사대상별 아동친화도 영역별 평가 점수

영역	아동	부모	아동관계 및 아동권익옹호자	전체
놀이와 여가	2.47	2.29	2.33	2.42
참여와 시민권	1.80	1.74	2.03	<b>1.81</b>
안전과 보호	2.51	2.21	2.34	2.44
보건과 사회서비스	2.40	2.28	2.44	2.38
교육환경	2.69	2.69	2.69	<b>2.69</b>
가정생활환경	2.90	2.84	2.74	<b>2.88</b>

(점수범위 1-3점)



[그림 1-Ⅱ-1] 조사대상별 아동친화도 영역별 평가 비교



## 2) 지역별 아동친화도 영역별 평가

익산시 읍·면, 구도심, 신도심의 지역별 아동친화도 평가결과, 가정생활환경과 교육 환경 영역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참여와 시민권 영역은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표 1-Ⅱ-8> 지역별 아동친화도 영역별 평가 점수

영역	읍면	구도심	신도심	전체
놀이와 여가	2.45	2.36	2.46	2.42
참여와 시민권	1.87	1.78	1.80	<b>1.81</b>
안전과 보호	2.51	2.38	2.46	2.44
보건과 사회서비스	2.37	2.37	2.39	2.38
교육환경	2.72	2.66	2.69	<b>2.69</b>
가정생활환경	2.88	2.85	2.90	<b>2.88</b>

(점수범위 1-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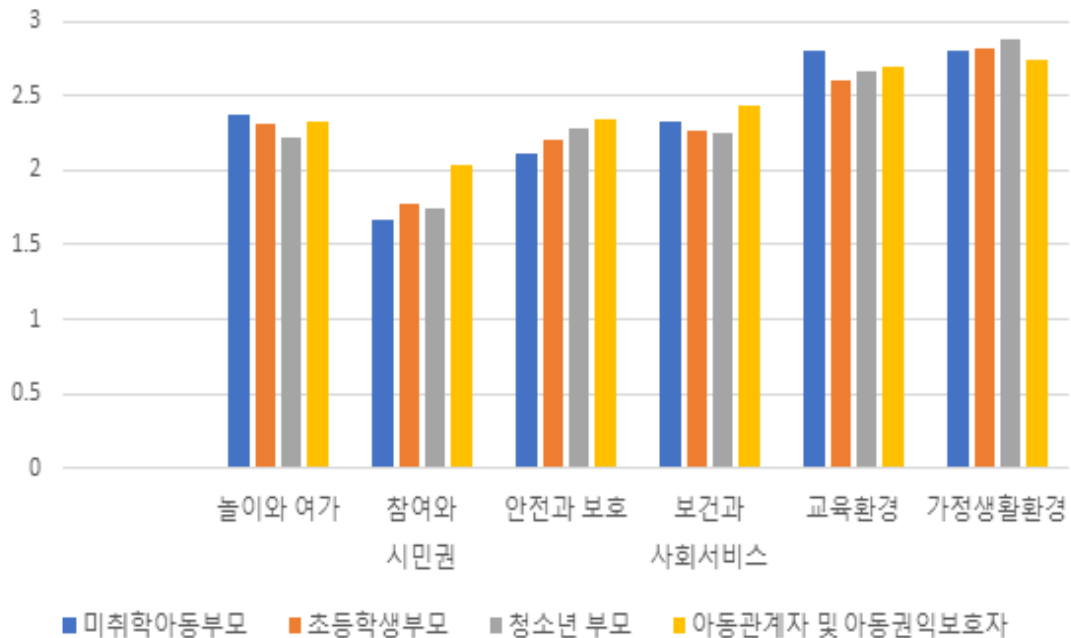
[그림 1-Ⅱ-2] 지역별 아동친화도 영역별 평가 비교

### 3) 성인 간 아동친화도 영역별 평가

익산시 미취학아동 부모, 초등학생 부모, 중·고등학생 부모,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보호자의 아동친화도 평가결과, 가정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영역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참여와 시민권 영역은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표 1-Ⅱ-9> 성인 간 비교 평균 점수

영역	미취학아동 부모	초등학생 부모	중·고등학생 부모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보호자
놀이와 여가	2.38	2.31	2.22	2.33
참여와 시민권	<b>1.67</b>	<b>1.78</b>	<b>1.75</b>	<b>2.03</b>
안전과 보호	2.12	2.20	2.28	2.34
보건과 사회서비스	2.33	2.27	2.25	2.44
교육환경	<b>2.80</b>	<b>2.60</b>	<b>2.66</b>	<b>2.69</b>
가정생활환경	<b>2.81</b>	<b>2.82</b>	<b>2.88</b>	<b>2.7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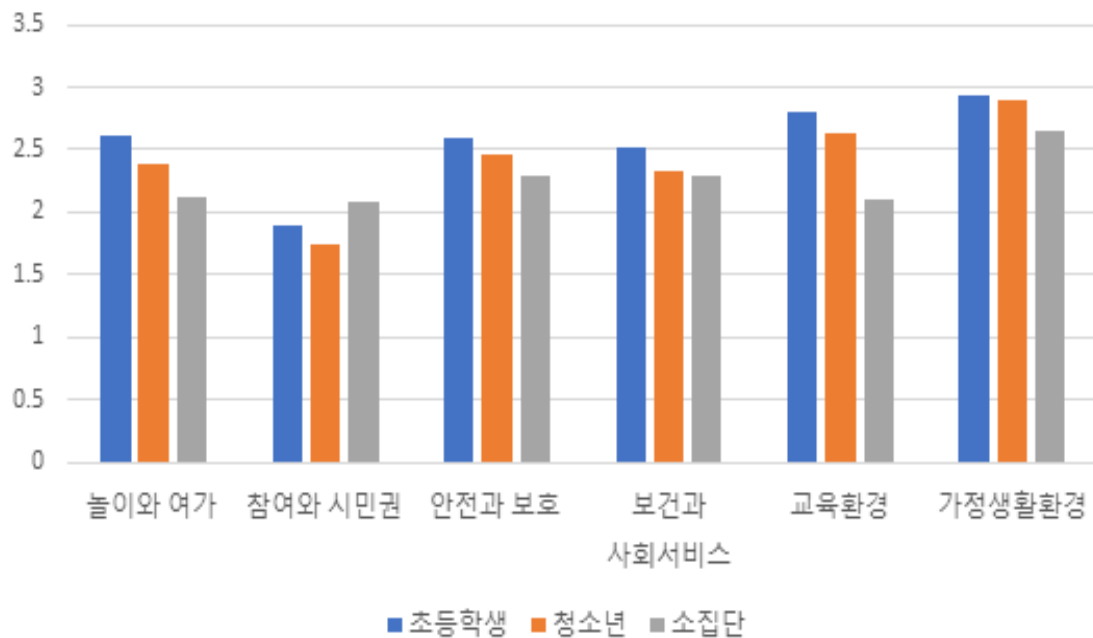
[그림 1-Ⅱ-3] 성인 간 아동친화도 영역별 평가 비교

## 4) 아동간 아동친화도 영역별 평가

익산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의 아동친화도 평가결과, 가정생활환경 영역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참여와 시민권 영역은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lt;표 1-Ⅱ-10&gt; 아동 간 비교 평균 점수

영역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놀이와 여가	2.61	2.39	2.12
참여와 시민권	1.89	1.75	2.09
안전과 보호	2.60	2.46	2.29
보건과 사회서비스	2.51	2.33	2.30
교육환경	2.81	2.64	2.10
가정생활환경	2.93	2.89	2.65



[그림 1-Ⅱ-4] 아동간 아동친화도 영역별 평가 비교

(1) 나는 스포츠·문화·놀이를 즐길 수 있나요?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표 1-Ⅱ-11>

1-1. 아동은 놀고 쉴 시간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36	1.8	771	39.4	1148	58.7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4	0.8	178	36.7	303	62.5
	중·고등학생	922	25	2.8	369	40.8	511	56.5
	학교 밖 아동	29	1	3.6	14	50.0	13	46.4
	미취학아동 부모	103	0	0.0	25	24.3	78	75.7
	초등학생 부모	114	0	0.0	45	39.8	68	60.2
	청소년 부모	143	0	0.0	51	35.9	91	64.1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6	3.4	89	49.7	84	46.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5	1.4	155	42.3	206	56.3
	구도심	658	20	3.1	271	41.9	356	55.0
	신도심	923	11	1.2	329	36.4	564	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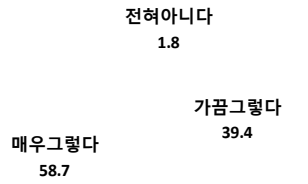
<표 1-Ⅱ-11>의 '아동은 놀고 쉴 시간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5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미취학아동 학부모 75.7%(78명), 청소년 부모 64.1%(91명), 초등학생 62.5%(303명), 초등학생 부모 60.2%(68명), 중·고등학생 56.5%(511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46.9%(84명), 학교 밖 아동 46.4%(1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62.4%), 읍·면(56.3%), 구도심(55.0%)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구도심보다 7.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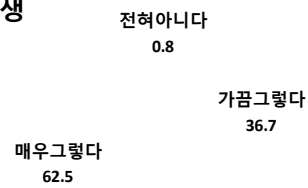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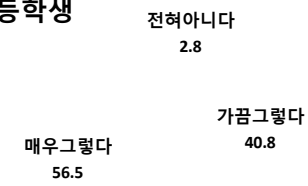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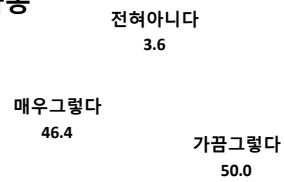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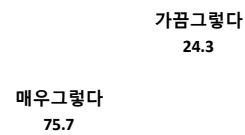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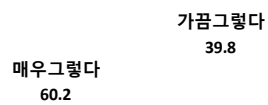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미취학아동 부모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5] 아동은 놀고 쉴 시간이 있다.

<표 1-Ⅱ-12>

1-2.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다.(예: 운동장, 놀이터, 체육시설 등)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71	3.8	617	32.7	1200	63.6
응답자	초등학생	499	11	2.3	69	14.5	395	83.2
	중·고등학생	922	33	3.9	302	35.7	511	60.4
	학교 밖 아동	29	4	14.8	14	51.9	9	33.3
	미취학아동 부모	103	1	1.0	38	36.9	64	62.1
	초등학생 부모	114	4	3.5	53	46.5	57	50.0
	청소년 부모	143	14	10.1	69	49.6	56	40.3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4	2.2	72	39.1	108	58.7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20	5.6	111	30.8	229	63.6
	구도심	658	29	4.7	217	34.8	377	60.5
	신도심	923	19	2.2	270	31.1	578	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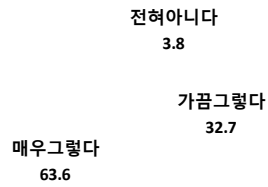
<표 1-Ⅱ-12>의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다.(예: 운동장, 놀이터, 체육시설 등)'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6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83.2%(395명), 미취학아동 부모 62.1%(64명), 중·고등학생 60.4%(511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58.7%(108명), 초등학생 부모 50.0%(57명), 청소년 부모 40.3%(56명), 학교 밖 아동 33.3%(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66.7%), 읍·면(63.6%), 구도심(60.5%)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구도심보다 6.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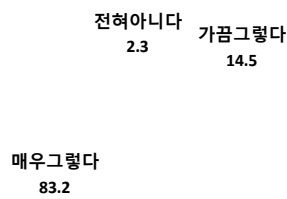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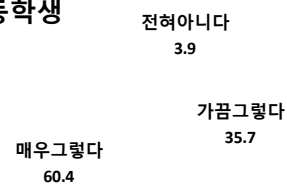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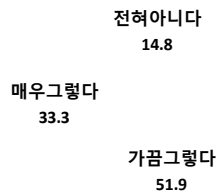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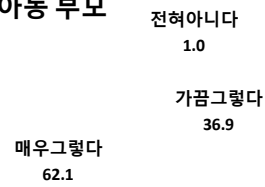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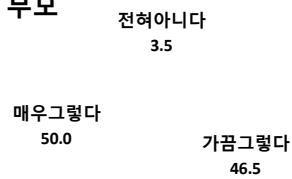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미취학아동 부모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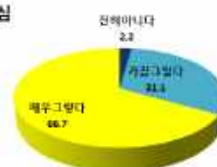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6]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다.

<표 1-Ⅱ-13>

1-3. 우리 동네 놀이터는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도 이용할 수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439	35.3	453	36.4	352	28.3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65	26.5	71	29.0	109	44.5
	중·고등학생	922	208	39.1	175	32.9	149	28.0
	학교 밖 아동	29	6	28.6	11	52.4	4	19.0
	미취학아동 부모	103	34	41.5	29	35.4	19	23.2
	초등학생 부모	114	24	24.7	52	53.6	21	21.6
	청소년 부모	143	47	43.5	46	42.6	15	13.9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55	34.6	69	43.4	35	22.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82	34.3	73	30.5	84	35.1
	구도심	658	169	36.9	176	38.4	113	24.7
	신도심	923	178	34.7	188	36.6	147	28.7

<표 1-Ⅱ-13>의 '우리 동네 놀이터는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도 이용할 수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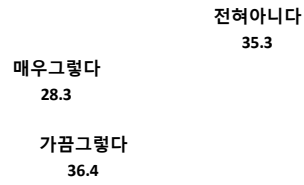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3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가끔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부모 53.6%(52명), 학교 밖 아동 52.4%(11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43.4%(69명), 청소년 부모 42.6%(46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35.4%(29명), 중·고등학생 32.9%(175명), 초등학생 29.0%(7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경우 구도심(38.4%), 신도심(36.6%), 읍·면(30.5%)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구도심이 읍·면보다 7.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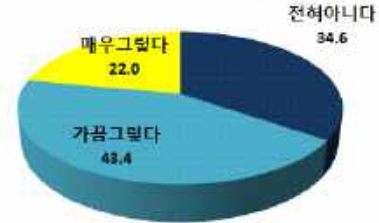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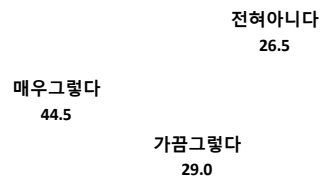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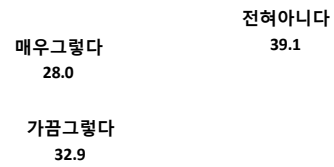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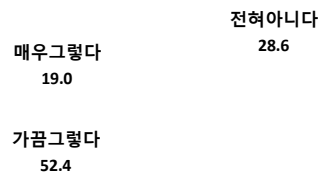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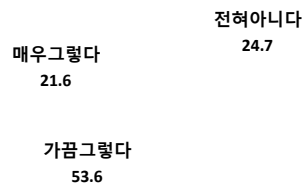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미취학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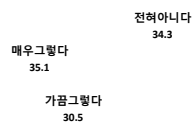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7] 우리 동네 놀이터는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도 이용할 수 있다.

<표 1-Ⅱ-14>

1-4. 우리 지역사회에는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이 가꿔져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108	6.0	741	41.3	944	52.6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6	1.4	119	27.5	307	71.1
	중·고등학생	922	48	5.9	327	40.4	434	53.6
	학교 밖 아동	29	3	12.0	15	60.0	7	28.0
	미취학아동 부모	103	4	4.0	60	60.0	36	36.0
	초등학생 부모	114	11	9.9	59	53.2	41	36.9
	청소년 부모	143	18	13.3	67	49.6	50	37.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8	9.9	94	51.9	69	38.1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22	6.4	121	35.3	200	58.3
	구도심	658	44	7.3	262	43.7	293	48.9
	신도심	923	39	4.8	338	41.4	439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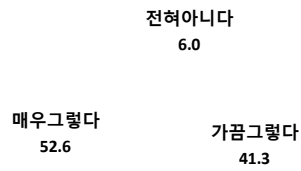
<표 1-Ⅱ-14> '우리 지역사회에는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이 가꿔져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5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71.1%(307명), 중·고등학생 53.6%(434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38.1%(69명), 청소년 부모 37.0%(50명), 초등학생 부모 53.6%(52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35.4%(29명), 학교 밖 아동 52.4%(1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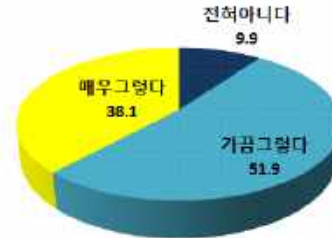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58.3%), 신도심(53.8%), 구도심(48.9%)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9.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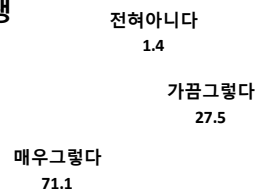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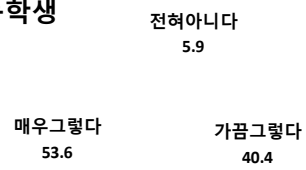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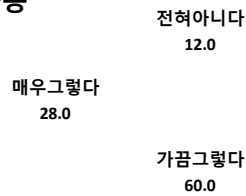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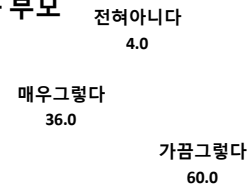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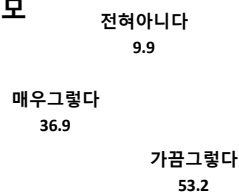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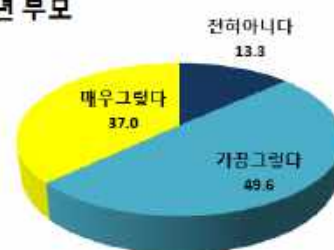
미취학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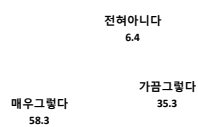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8] 우리 지역사회에는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이 가꿔져 있다.

<표 1-Ⅱ-15>

1-5.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여하고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종교 행사나 이벤트, 축제가 열린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194	11.3	1003	58.5	518	30.2
응답자	초등학생	499	43	10.2	236	56.2	141	33.6
	중·고등학생	922	97	13.0	428	57.4	221	29.6
	학교 밖 아동	29	4	17.4	15	65.2	4	17.4
	미취학아동 부모	103	9	9.2	57	58.2	32	32.7
	초등학생 부모	114	10	8.8	83	73.5	20	17.7
	청소년 부모	143	19	13.9	89	65.0	29	21.2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2	6.7	95	53.4	71	39.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29	8.7	188	56.3	117	35.0
	구도심	658	76	13.0	336	57.6	171	29.3
	신도심	923	84	11.0	459	60.2	219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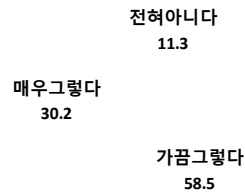
<표 1-Ⅱ-15>의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여하고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종교 행사나 이벤트, 축제가 열린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5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가끔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부모 73.5%(83명), 학교 밖 아동 65.2%(15명), 청소년 부모 65.0%(89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58.2%(57명), 중·고등학생 57.4%(428명), 초등학생 56.2%(236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53.4%(9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60.2%), 구도심(57.6%), 읍·면(56.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읍·면보다 3.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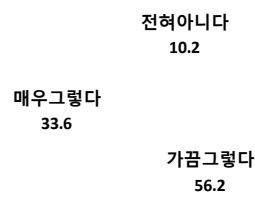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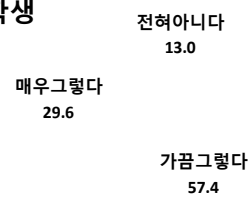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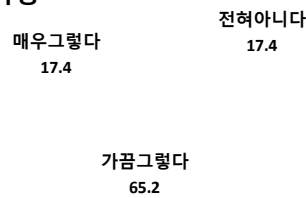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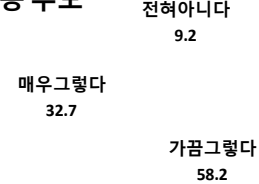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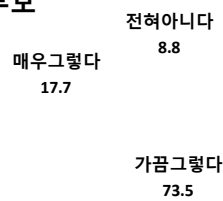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미취학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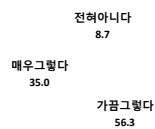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II-9]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여하고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종교 행사나 이벤트, 축제가 열린다.

<표 1-Ⅱ-16>

1-6. 우리 지역사회에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모임, 활동 등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145	8.9	705	43.1	784	48.0
응답자	초등학생	499	12	2.7	95	21.6	333	75.7
	중·고등학생	922	75	11.3	317	47.8	271	40.9
	학교 밖 아동	29	6	27.3	13	59.1	3	13.6
	미취학아동 부모	103	4	4.0	71	71.0	25	25.0
	초등학생 부모	114	15	13.8	60	55.0	34	31.2
	청소년 부모	143	22	16.9	76	58.5	32	24.6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1	6.5	73	42.9	86	50.6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32	9.8	99	30.4	195	59.8
	구도심	658	53	9.4	256	45.5	254	45.1
	신도심	923	52	7.3	335	47.2	322	45.4

<표 1-Ⅱ-16>의 '우리 지역사회에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모임, 활동 등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4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75.7%(333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50.6%(86명), 중·고등학생 40.9%(271명), 초등학생 부모 31.2%(34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25.0%(25명), 청소년 부모 24.6%(32명), 학교 밖 아동 13.6%(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59.8%), 신도심(45.4%), 구도심(45.1%)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14.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10] 우리 지역사회에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모임, 활동 등이 있다.

<표 1-Ⅱ-17>

1-7. 우리 동네에는 아동이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다(놀이터나 운동장 등)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116	6.2	585	31.3	1169	62.5
응답 자	초등학생	499	16	3.4	64	13.6	390	83.0
	중·고등학생	922	47	5.6	296	35.0	503	59.5
	학교 밖 아동	29	4	17.4	12	52.2	7	30.4
	미취학아동 부모	103	5	5.0	34	33.7	62	61.4
	초등학생 부모	114	3	2.7	50	44.2	60	53.1
	청소년 부모	143	28	20.4	43	31.4	66	48.2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3	7.2	86	47.8	81	45.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36	10.1	93	26.0	229	64.0
	구도심	658	42	6.9	215	35.2	354	57.9
	신도심	923	35	4.0	257	29.7	574	66.3

<표 1-Ⅱ-17>의 '우리 동네에는 아동이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다(놀이터나 운동장 등)'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6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83.0%(390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61.4%(62명), 중·고등학생 59.5%(503명), 초등학생 부모 53.1%(60명), 청소년 부모 48.2%(66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45.0%(81명), 학교 밖 아동 30.4%(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66.3%), 읍·면(64.0%), 구도심(57.9%)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구도심보다 8.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11] 우리 동네에는 아동이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다

## (2) 나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말하나요?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표 1-Ⅱ-18>

2-1.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아동이 참여할 기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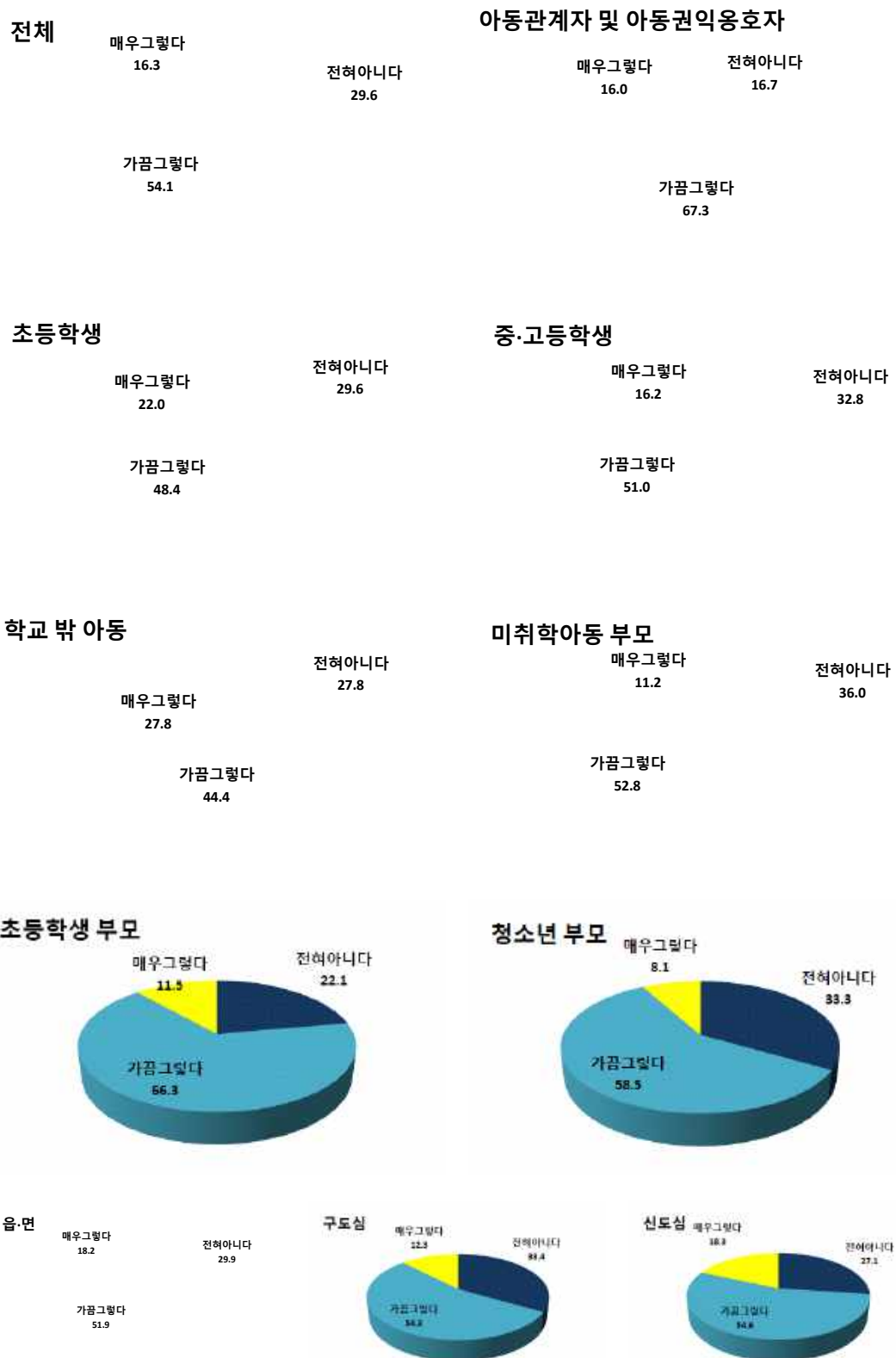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419	29.6	765	54.1	230	16.3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94	29.6	154	48.4	70	22.0
	중·고등학생	922	197	32.8	306	51.0	97	16.2
	학교 밖 아동	29	5	27.8	8	44.4	5	27.8
	미취학아동 부모	103	32	36.0	47	52.8	10	11.2
	초등학생 부모	114	23	22.1	69	66.3	12	11.5
	청소년 부모	143	41	33.3	72	58.5	10	8.1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27	16.7	109	67.3	26	16.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79	29.9	137	51.9	48	18.2
	구도심	658	169	33.4	275	54.3	62	12.3
	신도심	923	166	27.1	334	54.6	112	18.3

<표 1-Ⅱ-18>의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아동이 참여할 기회가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5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가끔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67.3%(109명), 초등학생 부모 66.3%(69명), 청소년 부모 58.5%(72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52.8%(47명), 중·고등학생 51.0%(306명), 초등학생 48.4%(154명), 학교 밖 아동 44.4%(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54.6%), 구도심(54.3%), 읍·면(51.9%)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읍·면보다 2.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12]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아동이 참여할 기회가 있다.

<표 1-Ⅱ-19>

2-2. 나는 우리 지역사회의 계획이나 중요한 결정 등에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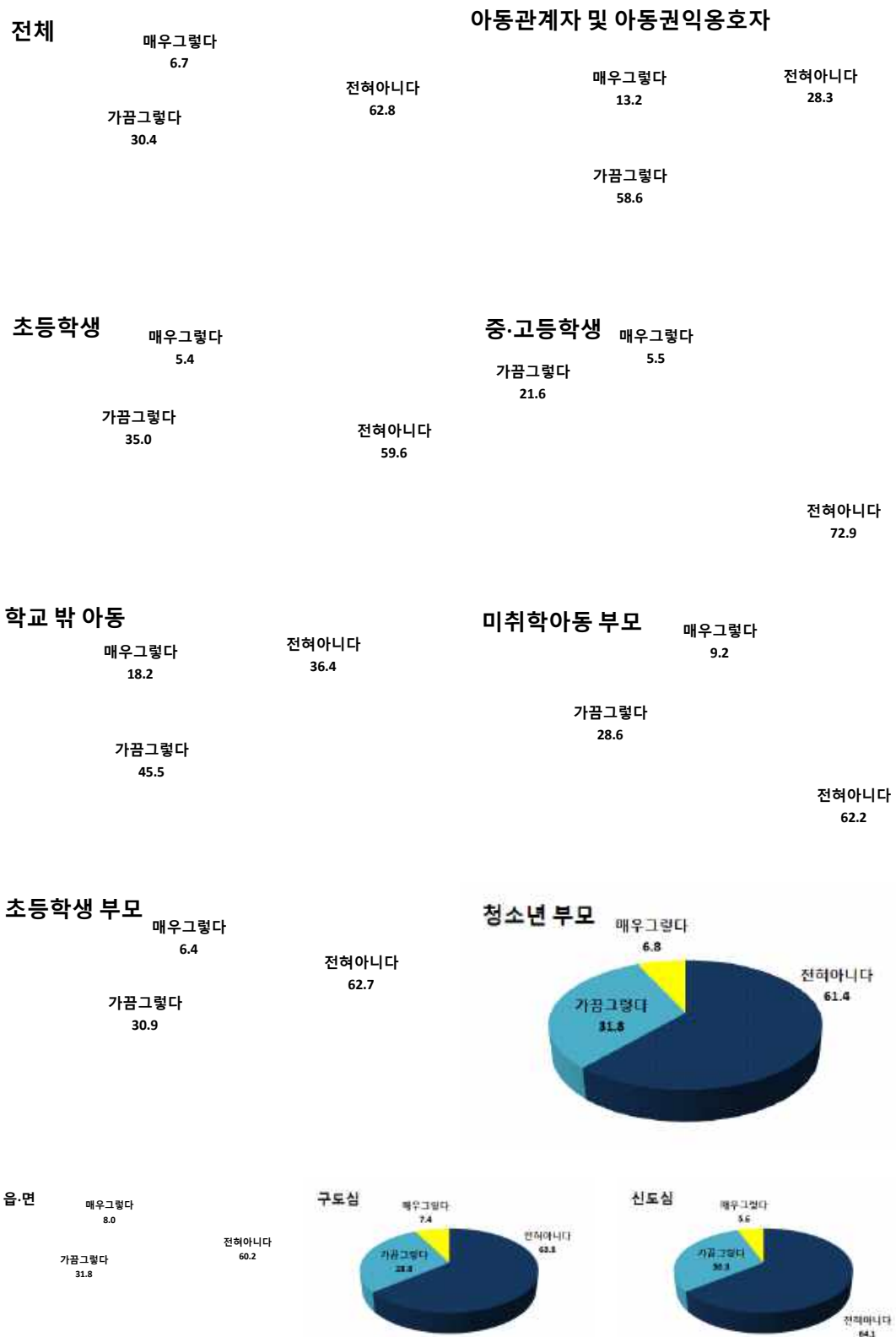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1025	62.8	496	30.4	110	6.7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232	59.6	136	35.0	21	5.4
	중·고등학생	922	531	72.9	157	21.6	40	5.5
	학교 밖 아동	29	8	36.4	10	45.5	4	18.2
	미취학아동 부모	103	61	62.2	28	28.6	9	9.2
	초등학생 부모	114	69	62.7	34	30.9	7	6.4
	청소년 부모	143	81	61.4	42	31.8	9	6.8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43	28.3	89	58.6	20	13.2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189	60.2	100	31.8	25	8.0
	구도심	658	353	63.8	159	28.8	41	7.4
	신도심	923	469	64.1	222	30.3	41	5.6

<표 1-Ⅱ-19>의 '나는 우리 지역사회의 계획이나 중요한 결정 등에 참여한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전혀 아니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6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전혀 아니다'의 응답비율은 중·고등학생 72.9%(531명), 초등학생 부모 62.7%(69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62.2%(61명), 청소년 부모 61.4%(81명), 초등학생 59.6%(232명), 학교 밖 아동 36.4%(8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28.3%(4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전혀 아니다'의 경우 신도심(64.1%), 구도심(63.8%), 읍·면(60.2%)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읍·면보다 3.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13] 나는 우리 지역사회의 계획이나 중요한 결정 등에 참여한다.

<표 1-Ⅱ-20>

2-3. 우리 지역 의회나 시장은 나의 생활이나 우리 지역에 관한 나의 의견을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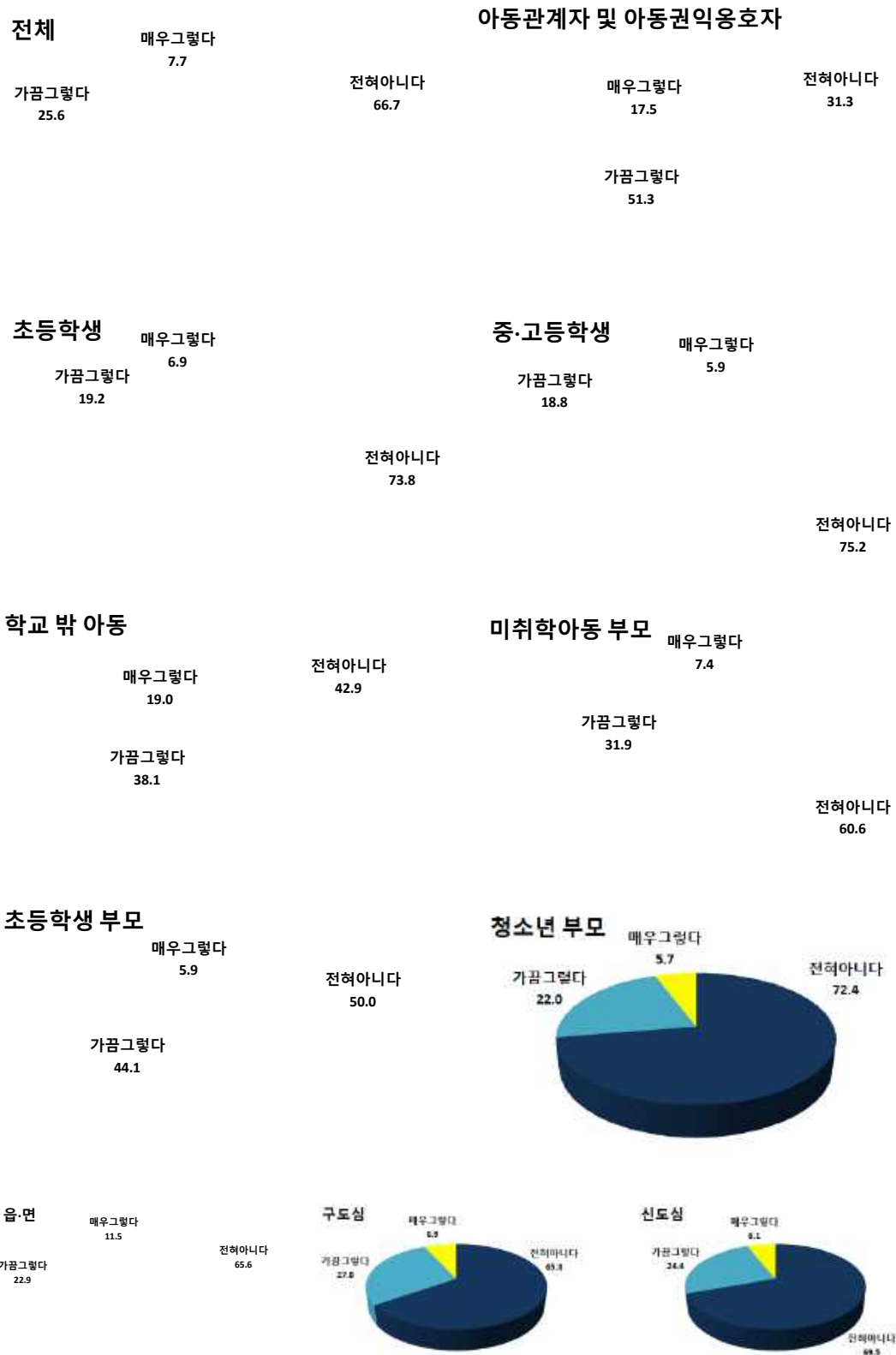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973	66.7	374	25.6	112	7.7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234	73.8	61	19.2	22	6.9
	중·고등학생	922	483	75.2	121	18.8	38	5.9
	학교 밖 아동	29	9	42.9	8	38.1	4	19.0
	미취학아동 부모	103	57	60.6	30	31.9	7	7.4
	초등학생 부모	114	51	50.0	45	44.1	6	5.9
	청소년 부모	143	89	72.4	27	22.0	7	5.7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50	31.3	82	51.3	28	17.5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183	65.6	64	22.9	32	11.5
	구도심	658	340	65.3	145	27.8	36	6.9
	신도심	923	436	69.5	153	24.4	38	6.1

<표 1-Ⅱ-20>의 '우리 지역 의회나 시장은 나의 생활이나 우리 지역에 관한 나의 의견을 묻는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전혀 아니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전혀 아니다'의 응답비율은 중·고등학생 75.2%(483명), 초등학생 73.8%(234명), 청소년 부모 72.4%(89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60.6%(57명), 초등학생 부모 50.0%(51명), 학교 밖 아동 42.9%(9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31.3%(5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전혀 아니다'의 경우 신도심(69.5%), 읍·면(65.6%), 구도심(65.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구도심보다 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14] 우리 지역 의회나 시장은 나의 생활이나 우리 지역에 관한 나의 의견을 묻는다.

<표 1-Ⅱ-21>

2-4.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대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나의 의견을 묻는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805	55.3	505	34.7	145	10.0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177	55.0	103	32.0	42	13.0
	중·고등학생	922	350	54.9	229	35.9	59	9.2
	학교 밖 아동	29	5	26.3	12	63.2	2	10.5
	미취학아동 부모	103	65	67.0	25	25.8	7	7.2
	초등학생 부모	114	60	57.7	40	38.5	4	3.8
	청소년 부모	143	98	79.0	20	16.1	6	4.8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50	33.1	76	50.3	25	16.6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154	55.6	79	28.5	44	15.9
	구도심	658	289	56.6	181	35.4	41	8.0
	신도심	923	349	54.9	230	36.2	57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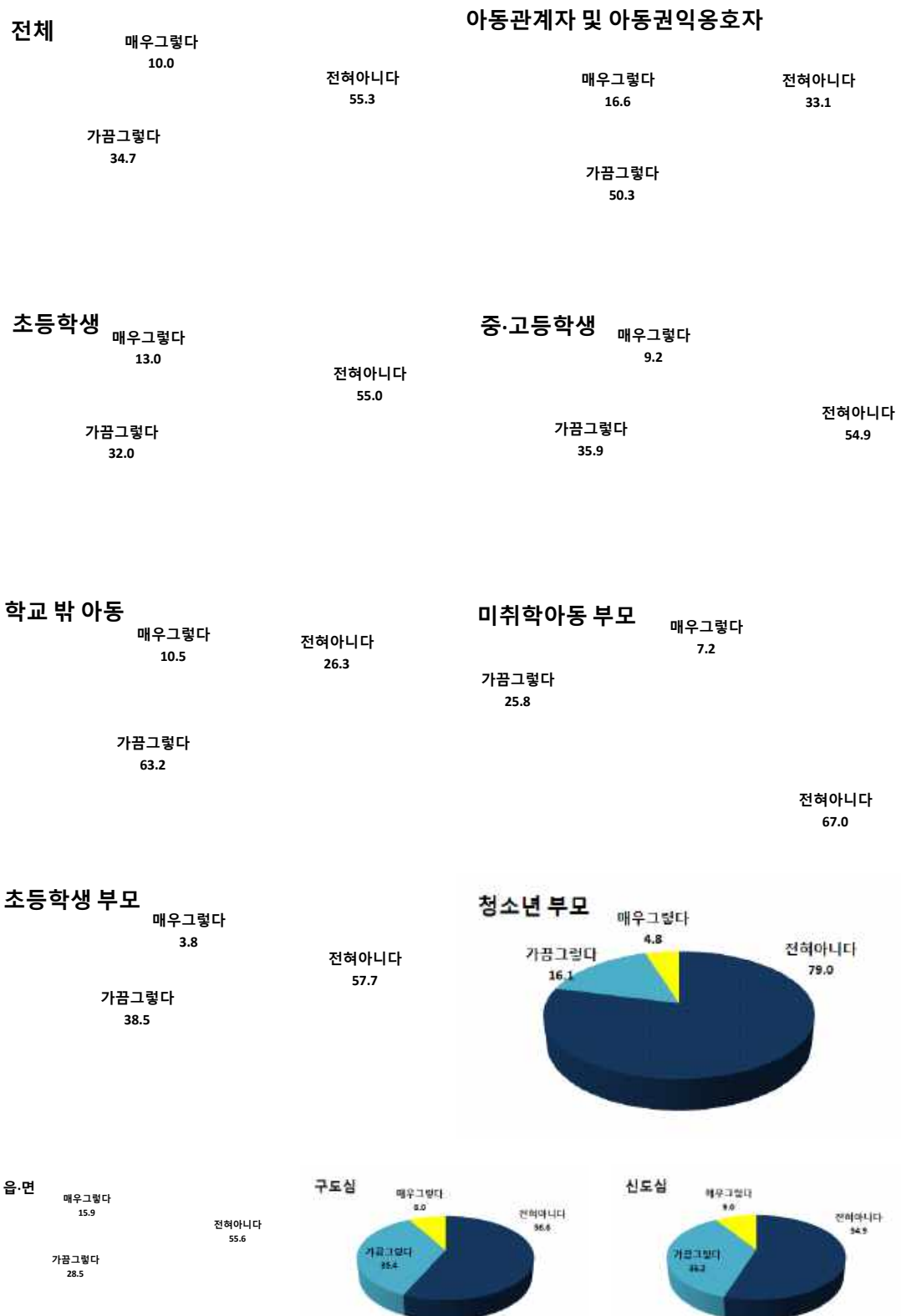
<표 1-Ⅱ-21>의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대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나의 의견을 묻는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전혀 아니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5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전혀 아니다'의 응답비율은 청소년 부모 79.0%(98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67.0%(65명), 초등학생 부모 57.7%(60명), 초등학생 55.0%(177명), 중·고등학생 54.9%(350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33.1%(50명), 학교 밖 아동 26.3%(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전혀 아니다'의 경우 구도심(56.6%), 읍·면(55.6%), 신도심(54.9%)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구도심이 신도심보다 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표-15]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대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나의 의견을 묻는다.

<표 1-Ⅱ-22>

2-5. TV, 라디오, 책 등을 통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291	17.1	876	51.5	535	31.4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79	19.1	168	40.6	167	40.3
	중·고등학생	922	162	21.5	407	54.1	183	24.3
	학교 밖 아동	29	1	4.0	10	40.0	14	56.0
	미취학아동 부모	103	13	13.5	48	50.0	35	36.5
	초등학생 부모	114	9	8.0	72	64.3	31	27.7
	청소년 부모	143	8	5.8	79	57.2	51	37.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9	11.5	92	55.8	54	32.7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56	16.9	150	45.2	126	38.0
	구도심	658	91	15.7	316	54.5	173	29.8
	신도심	923	142	18.8	390	51.7	222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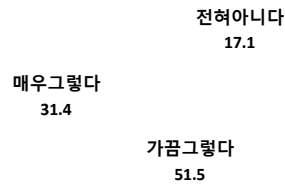
<표 1-Ⅱ-22>의 'TV, 라디오, 책 등을 통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5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가끔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부모 64.3%(72명), 청소년 부모 57.2%(79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55.8%(92명), 중·고등학생 54.1%(407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50.0%(48명), 초등학생 40.6%(168명), 학교 밖 아동 40.0%(1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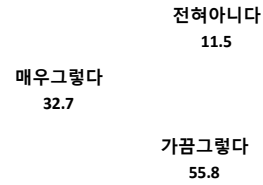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경우 구도심(54.5%), 신도심(51.7%), 읍·면(45.2%)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구도심이 읍·면보다 9.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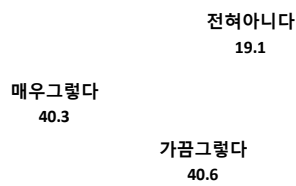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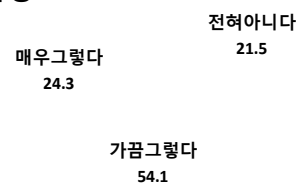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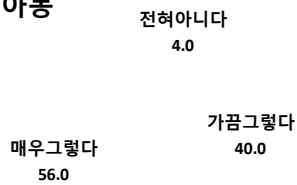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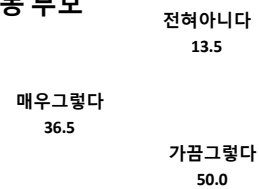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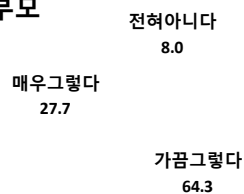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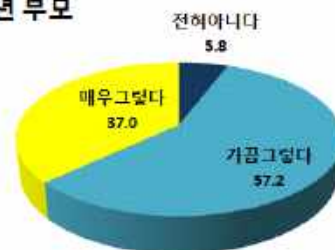
미취학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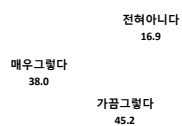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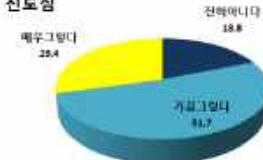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16] TV, 라디오, 책 등을 통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표 1-Ⅱ-23>

2-6. 아동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 동네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891	209	13.0	773	48.0	629	39.0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53	12.4	168	39.3	206	48.2
	중·고등학생	922	108	14.4	373	49.6	271	36.0
	학교 밖 아동	29	0	0.0	13	59.1	9	40.9
	미취학아동 부모	-	-	-	-	-	-	-
	초등학생 부모	114	19	17.8	61	57.0	27	25.2
	청소년 부모	143	16	11.9	73	54.5	45	33.6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3	7.7	85	50.3	71	42.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48	15.0	137	42.8	135	42.2
	구도심	658	69	13.1	250	47.5	207	39.4
	신도심	923	89	12.2	369	50.5	272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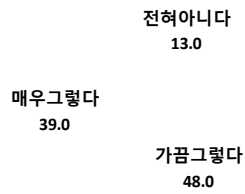
<표 1-Ⅱ-23>의 '아동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 동네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4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가끔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학교 밖 아동 59.1%(13명), 초등학생 부모 57.0%(61명), 청소년 부모 54.5%(73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50.3%(85명), 중·고등학생 49.6%(373명), 초등학생 39.3%(16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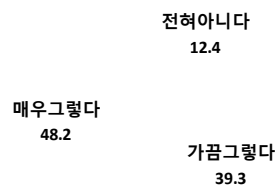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50.5%), 구도심(47.5%), 읍·면(42.8%)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읍·면보다 7.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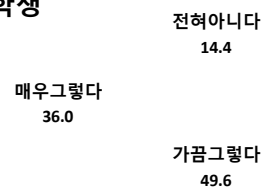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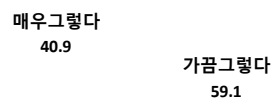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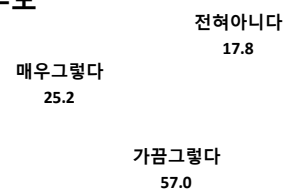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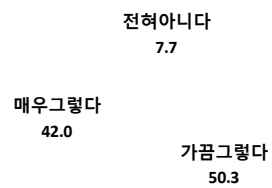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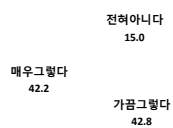
청소년 부모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17] 아동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 동네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다.

### (3)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나요?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표 1-Ⅱ-24>

3-1. 아동이 위험을 느낄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33	1.7	420	21.5	1499	76.8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9	1.8	23	4.7	457	93.5
	중·고등학생	922	9	1.0	183	20.2	716	78.9
	학교 밖 아동	29	1	3.8	9	34.6	16	61.5
	미취학아동 부모	103	3	3.1	42	43.3	52	53.6
	초등학생 부모	114	4	3.6	53	48.2	53	48.2
	청소년 부모	143	5	3.5	44	31.0	93	65.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2	1.1	66	36.7	112	62.2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5	1.4	63	17.1	301	81.6
	구도심	658	10	1.6	165	25.7	467	72.7
	신도심	923	17	1.9	177	19.6	710	78.5

<표 1-Ⅱ-24>의 '아동이 위험을 느낄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7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93.5%(457명), 중·고등학생 78.9%(716명), 청소년 부모 65.5%(93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62.2%(112명), 학교 밖 아동 61.5%(16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53.6%(52명), 초등학생 부모 48.2%(5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81.6%), 신도심(78.5%), 구도심(72.7%)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8.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18] 아동이 위험을 느낄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

<표 1-Ⅱ-25>

3-2.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을 위협하는 폭력집단이 없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147	8.6	434	25.4	1131	66.1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30	7.0	40	9.3	360	83.7
	중·고등학생	922	48	6.3	129	17.1	579	76.6
	학교 밖 아동	29	2	9.5	8	38.1	11	52.4
	미취학아동 부모	103	18	18.9	48	50.5	29	30.5
	초등학생 부모	114	12	11.0	60	55.0	37	33.9
	청소년 부모	143	16	11.2	66	48.9	53	39.3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21	12.7	83	50.0	62	37.3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27	8.2	64	19.4	239	72.4
	구도심	658	53	9.2	175	30.5	346	60.3
	신도심	923	63	8.2	174	22.5	535	69.3

<표 1-Ⅱ-25>의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을 위협하는 폭력집단이 없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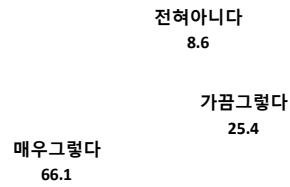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6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83.7%(360명), 중·고등학생 76.6%(579명), 학교 밖 아동 52.4%(11명), 청소년 부모 39.3%(53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37.3%(62명), 초등학생 부모 33.9%(37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30.5%(2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72.4%), 신도심(69.3%), 구도심(60.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12.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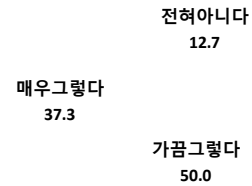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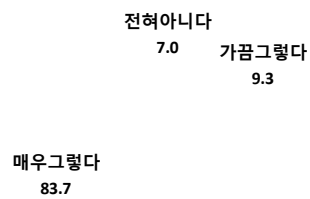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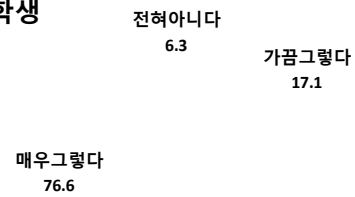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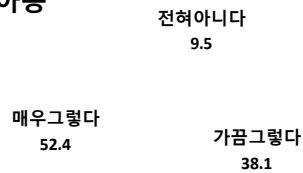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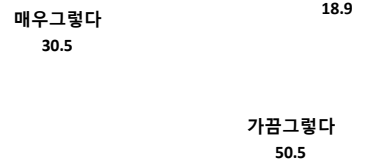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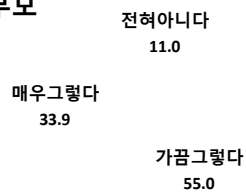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미취학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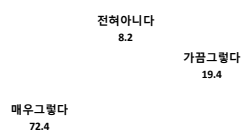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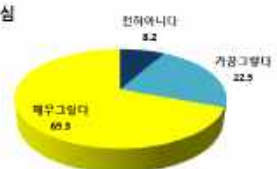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19]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을 위협하는 폭력집단이 없다.

<표 1-Ⅱ-26>

3-3. 아동은 폭력 및 학대\*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187	10.3	555	30.5	1078	59.2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48	10.1	71	15.0	355	74.9
	중·고등학생	922	67	8.2	216	26.6	530	65.2
	학교 밖 아동	29	4	18.2	8	36.4	10	45.5
	미취학아동 부모	103	18	18.2	52	52.5	29	29.3
	초등학생 부모	114	12	11.1	56	51.9	40	37.0
	청소년 부모	143	16	12.0	66	49.6	51	38.3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22	12.9	86	50.3	63	36.8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29	8.2	88	25.0	235	66.8
	구도심	658	71	11.9	208	34.8	319	53.3
	신도심	923	85	10.2	236	28.3	513	61.5

<표 1-Ⅱ-26>의 '아동은 폭력 및 학대\*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5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74.9%(355명), 중·고등학생 65.2%(530명), 학교 밖 아동 45.5%(10명), 청소년 부모 38.3%(51명), 초등학생 부모 37.0%(40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36.8%(63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29.3%(2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66.8%), 신도심(61.5%), 구도심(53.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13.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20] 아동은 폭력 및 학대\*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표 1-Ⅱ-27>

3-4. 아동은 유괴나 납치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283	16.1	643	36.5	836	47.4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66	14.6	107	23.7	278	61.6
	중·고등학생	922	132	16.9	275	35.2	374	47.9
	학교 밖 아동	29	3	12.5	14	58.3	7	29.2
	미취학아동 부모	103	26	26.5	48	49.0	24	24.5
	초등학생 부모	114	18	16.7	57	52.8	33	30.6
	청소년 부모	143	20	15.3	65	49.6	46	35.1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8	10.7	77	45.6	74	43.8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47	14.2	99	30.0	184	55.8
	구도심	658	94	15.9	248	42.0	249	42.1
	신도심	923	138	17.1	279	34.5	391	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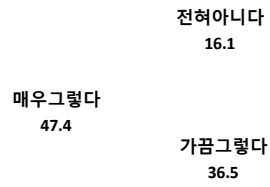
<표 1-Ⅱ-27>의 '아동은 유괴나 납치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4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61.6%(278명), 중·고등학생 47.9%(374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43.8%(74명), 청소년 부모 35.1%(46명), 초등학생 부모 30.6%(33명), 학교 밖 아동 29.2%(7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24.5%(2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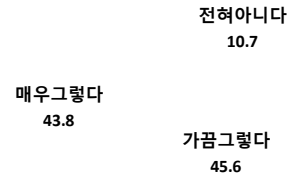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55.8%), 신도심(48.4%), 구도심(42.1%)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13.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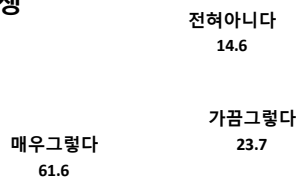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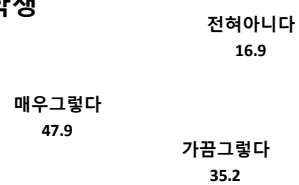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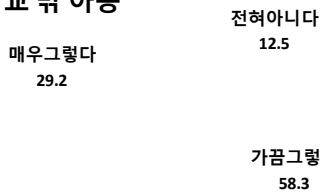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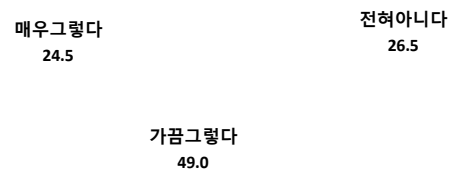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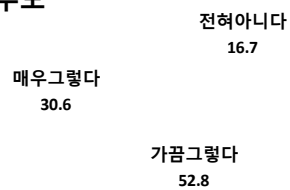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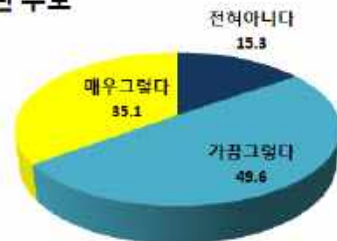
미취학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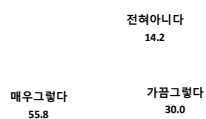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21] 아동은 유괴나 납치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표 1-Ⅱ-28>

3-5. 아동은 친구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891	277	15.6	606	34.2	889	50.2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61	13.1	127	27.3	278	59.7
	중·고등학생	922	92	10.8	240	28.2	520	61.0
	학교 밖 아동	29	4	16.7	8	33.3	12	50.0
	미취학아동 부모	-	-	-	-	-	-	-
	초등학생 부모	114	22	19.8	61	55.0	28	25.2
	청소년 부모	143	22	15.8	65	46.8	52	37.4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35	20.7	90	53.3	44	26.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57	16.0	116	32.6	183	51.4
	구도심	658	99	17.6	218	38.8	245	43.6
	신도심	923	113	13.8	256	31.3	450	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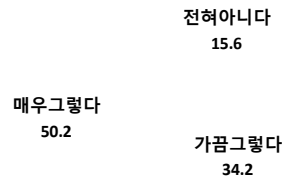
<표 1-Ⅱ-28>의 '아동은 친구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5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중·고등학생 61.0%(520명), 초등학생 59.7%(278명), 학교 밖 아동 50.0%(12명), 청소년 부모 37.4%(52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26.0%(44명), 초등학생 부모 25.2%(2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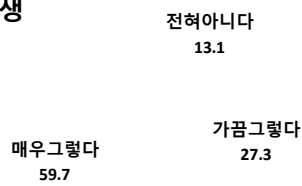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54.9%), 읍·면(51.4%), 구도심(43.6%)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구도심보다 1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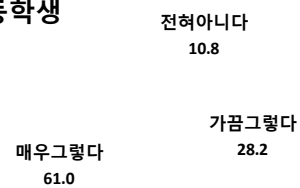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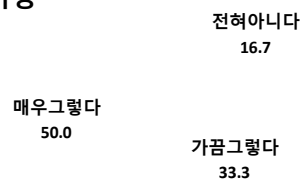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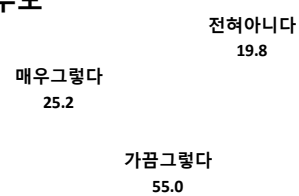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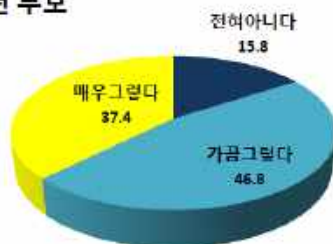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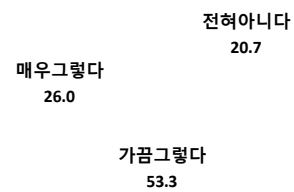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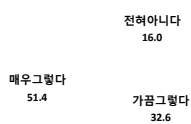
청소년 부모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22] 아동은 친구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표 1-Ⅱ-29>

3-6. 아동은 위험한 약물(예: 마약, 환각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891	198	11.5	386	22.4	1141	66.1
응답자	초등학생	499	79	17.2	39	8.5	340	74.2
	중·고등학생	922	78	9.2	117	13.9	649	76.9
	학교 밖 아동	29	5	20.8	8	33.3	11	45.8
	미취학아동 부모	-	-	-	-	-	-	-
	초등학생 부모	114	13	11.6	38	33.9	61	54.5
	청소년 부모	143	22	15.8	65	46.8	52	37.4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8	4.8	69	41.1	91	54.2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39	11.7	77	23.1	217	65.2
	구도심	658	54	9.8	161	29.3	335	60.9
	신도심	923	99	12.3	136	16.8	573	70.9

<표 1-Ⅱ-29>의 '아동은 위험한 약물(예: 마약, 환각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의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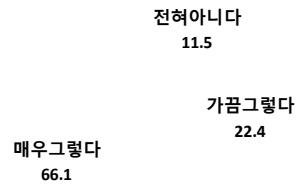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6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중·고등학생 76.9%(649명), 초등학생 74.2%(340명), 초등학생 부모 54.5%(61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54.2%(91명), 학교 밖 아동 45.8%(11명), 청소년 부모 37.4%(5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70.9%), 읍·면(65.2%), 구도심(60.9%)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10.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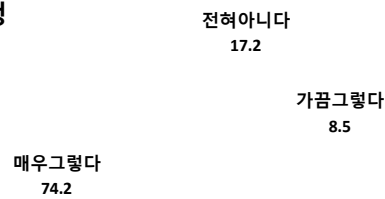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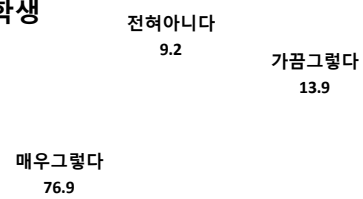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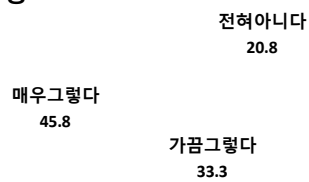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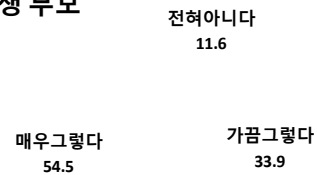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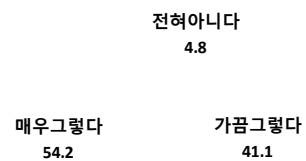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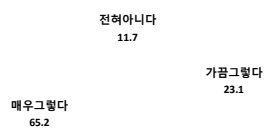
청소년 부모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23] 아동은 위험한 약물(예: 마약, 환각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표 1-Ⅱ-30>

3-7. 우리 동네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이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241	13.3	821	45.4	745	41.2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32	7.2	169	38.0	244	54.8
	중·고등학생	922	123	15.1	365	44.9	325	40.0
	학교 밖 아동	29	4	15.4	14	53.8	8	30.8
	미취학아동 부모	103	29	28.2	56	54.4	18	17.5
	초등학생 부모	114	32	28.6	63	56.3	17	15.2
	청소년 부모	143	43	30.9	78	56.1	18	12.9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45	25.1	90	50.3	44	24.6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33	9.8	142	42.3	161	47.9
	구도심	658	99	16.5	290	48.3	211	35.2
	신도심	923	104	12.5	369	44.2	361	43.3

<표 1-Ⅱ-30>의 '우리 동네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이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4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가끔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부모 56.3%(63명), 청소년 부모 56.1%(78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54.4%(56명), 학교 밖 아동 53.8%(14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50.3%(90명), 중·고등학생 44.9%(365명), 초등학생 38.0%(16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경우 구도심(48.3%), 신도심(44.2%), 읍·면(42.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구도심이 읍·면보다 6.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24] 우리 동네는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이다.

<표 1-Ⅱ-31>

3-8.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은 인종, 종교, 국적, 민족, 문화 및 장애와 상관없이 존중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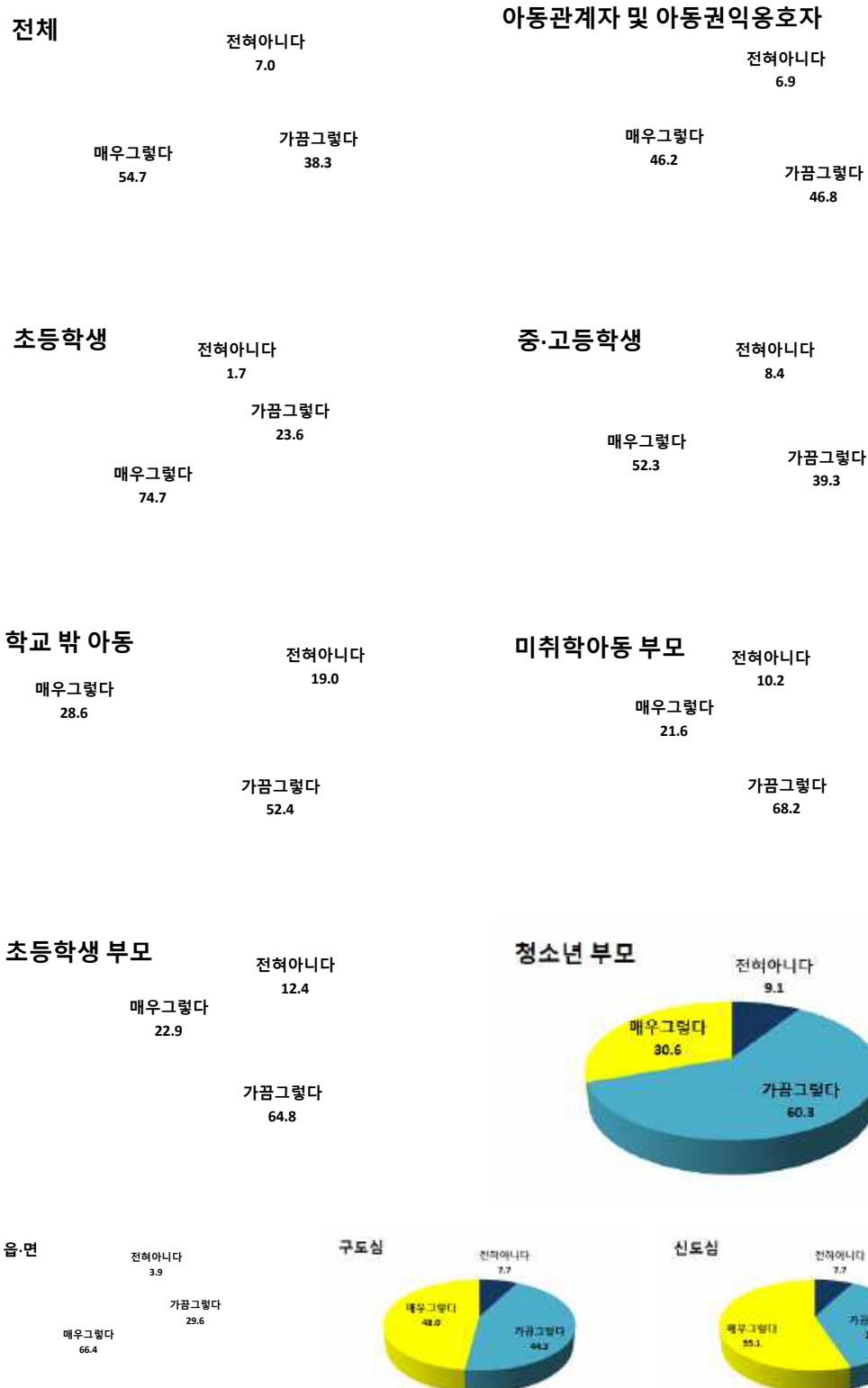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107	7.0	587	38.3	837	54.7
응답자	초등학생	499	6	1.7	85	23.6	269	74.7
	중·고등학생	922	55	8.4	257	39.3	342	52.3
	학교 밖 아동	29	4	19.0	11	52.4	6	28.6
	미취학아동 부모	103	9	10.2	60	68.2	19	21.6
	초등학생 부모	114	13	12.4	68	64.8	24	22.9
	청소년 부모	143	11	9.1	73	60.3	37	30.6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2	6.9	81	46.8	80	46.2
학교 소재지/거주지	읍·면	375	12	3.9	90	29.6	202	66.4
	구도심	658	40	7.7	230	44.3	249	48.0
	신도심	923	52	7.7	250	37.2	370	55.1

<표 1-Ⅱ-31>의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은 인종, 종교, 국적, 민족, 문화 및 장애와 상관없이 존중받는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5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74.7%(269명), 중·고등학생 52.3%(342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46.2%(80명), 청소년 부모 30.6%(37명), 학교 밖 아동 28.6%(6명), 초등학생 부모 22.9%(24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21.6%(1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66.4%), 신도심(55.1%), 구도심(48.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18.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25]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은 인종, 종교, 국적, 민족, 문화 및 장애와 상관 없이 존중받는다.

<표 1-Ⅱ-32>

3-9. 우리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은 아동이 이용하기에 안전하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202	11.3	804	45.0	782	43.7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24	5.7	179	42.5	218	51.8
	중·고등학생	922	68	8.2	352	42.6	406	49.2
	학교 밖 아동	29	5	19.2	10	38.5	11	42.3
	미취학아동 부모	103	26	27.1	47	49.0	23	24.0
	초등학생 부모	114	16	15.1	59	55.7	31	29.2
	청소년 부모	143	9	6.7	76	56.7	49	36.6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28	15.6	82	45.6	70	38.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33	9.3	142	40.0	180	50.7
	구도심	658	82	14.3	280	48.8	212	36.9
	신도심	923	81	9.9	364	44.3	377	45.9

<표 1-Ⅱ-32>의 '우리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은 아동이 이용하기에 안전하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4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가끔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청소년 부모 56.7%(76명), 초등학생 부모 55.7%(59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49.0%(47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45.6%(82명), 중·고등학생 42.6%(352명), 초등학생 42.5%(179명), 학교 밖 아동 38.5%(1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50.7%), 신도심(45.9%), 구도심(36.9%)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13.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26] 우리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은 아동이 이용하기에 안전하다.

<표 1-Ⅱ-33>

3-10. 아동은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176	10.3	486	28.3	1055	61.4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37	8.9	75	18.0	304	73.1
	중·고등학생	922	86	11.3	217	28.4	461	60.3
	학교 밖 아동	29	1	4.2	10	41.7	13	54.2
	미취학아동 부모	103	14	14.7	43	45.3	38	40.0
	초등학생 부모	114	10	9.3	54	50.5	43	40.2
	청소년 부모	143	10	7.4	46	34.1	79	58.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3	7.8	74	44.6	79	47.6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28	8.6	69	21.3	227	70.1
	구도심	658	59	10.2	186	32.1	335	57.8
	신도심	923	86	11.1	215	27.7	476	61.3

<표 1-Ⅱ-33>의 ‘아동은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6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73.1%(304명), 중·고등학생 60.3%(461명), 청소년 부모 58.5%(79명), 학교 밖 아동 54.2%(13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47.6%(79명), 초등학생 부모 40.2%(43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40.0%(4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70.1%), 신도심(61.3%), 구도심(57.8%)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1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27] 아동은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표 1-Ⅱ-34>

3-11.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위험한 일(예: 흡연 등 건강에 해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891	195	12.7	561	36.5	780	50.8
응답자	초등학생	499	27	6.8	95	23.8	278	69.5
	중·고등학생	922	100	14.1	270	38.0	341	48.0
	학교 밖 아동	29	5	22.7	9	40.9	8	36.4
	미취학아동 부모	-	-	-	-	-	-	-
	초등학생 부모	114	22	20.2	50	45.9	37	33.9
	청소년 부모	143	16	13.2	61	50.4	44	36.4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25	14.5	76	43.9	72	41.6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30	9.6	101	32.4	181	58.0
	구도심	658	75	15.4	173	35.5	239	49.1
	신도심	923	86	12.2	270	38.4	347	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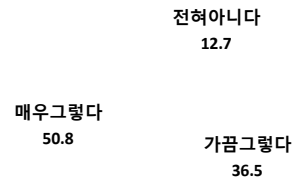
<표 1-Ⅱ-34>의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위험한 일(예: 흡연 등 건강에 해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5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69.5%(278명), 중·고등학생 48.0%(341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41.6%(72명), 청소년 부모 36.4%(44명), 학교 밖 아동 36.4%(8명), 초등학생 부모 33.9%(3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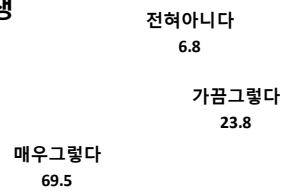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58.0%), 신도심(49.4%), 구도심(49.1%)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8.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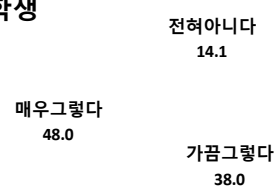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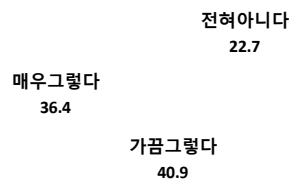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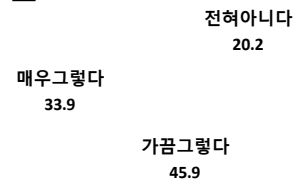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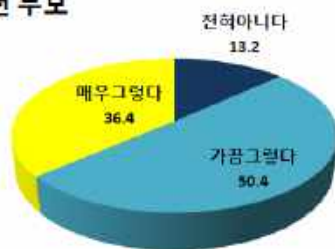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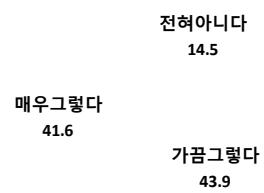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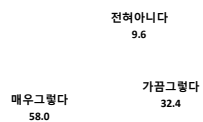
청소년 부모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28]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위험한 일(예: 흡연 등 건강에 해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표 1-Ⅱ-35>

3-1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재난상황(예: 홍수,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행동요령을 알려준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891	119	7.5	562	35.5	904	57.0
응답자	초등학생	499	22	5.4	92	22.5	294	72.1
	중·고등학생	922	71	9.7	273	37.4	386	52.9
	학교 밖 아동	29	3	13.0	7	30.4	13	56.5
	미취학아동 부모	-	-	-	-	-	-	-
	초등학생 부모	114	10	9.2	53	48.6	46	42.2
	청소년 부모	143	10	7.5	73	54.5	51	38.1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3	1.7	64	35.4	114	63.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16	5.0	101	31.3	206	63.8
	구도심	658	37	7.2	188	36.8	286	56.0
	신도심	923	64	9.0	261	36.6	389	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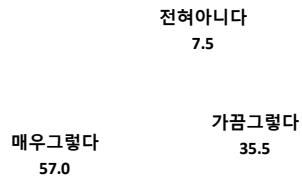
<표 1-Ⅱ-35>의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재난상황(예: 홍수,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행동요령을 알려준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5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72.1%(294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63.0%(114명), 학교 밖 아동 56.5%(13명), 중·고등학생 52.9%(386명), 초등학생 부모 42.2%(46명), 청소년 부모 38.1%(5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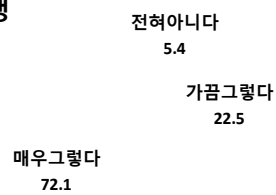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63.8%), 구도심(56.0%), 신도심(54.5%)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신도심보다 9.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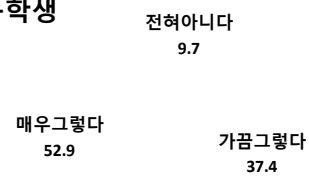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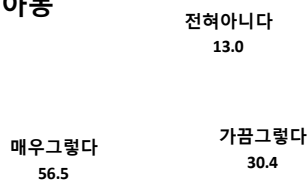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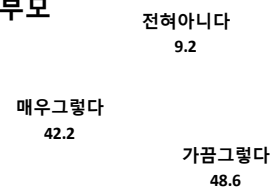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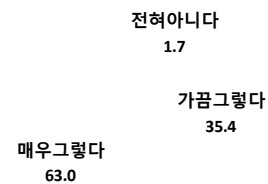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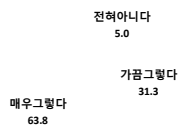
청소년 부모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29]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재난상황(예: 홍수,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 행동요령을 알려준다.

<표 1-Ⅱ-36>

3-13.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인터넷 사용의 문제점을 알려준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891	222	14.7	630	41.6	663	43.8
응답자	초등학생	499	38	9.9	102	26.6	243	63.4
	중·고등학생	922	128	18.2	296	42.1	279	39.7
	학교 밖 아동	29	5	21.7	11	47.8	7	30.4
	미취학아동 부모	-	-	-	-	-	-	-
	초등학생 부모	114	17	15.9	58	54.2	32	29.9
	청소년 부모	143	21	16.4	71	55.5	36	28.1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3	7.6	92	53.8	66	38.6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39	12.7	118	38.6	149	48.7
	구도심	658	73	14.9	212	43.3	205	41.8
	신도심	923	108	15.7	281	40.9	298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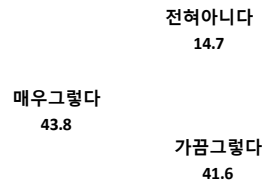
<표 1-Ⅱ-36>의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인터넷 사용의 문제점\*을 알려준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63.4%(243명), 중·고등학생 39.7%(279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38.6%(66명), 학교 밖 아동 30.4%(7명), 초등학생 부모 29.9%(32명), 청소년 부모 28.1%(3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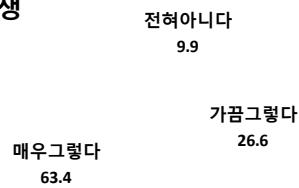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48.7%), 신도심(43.4%), 구도심(41.8%)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6.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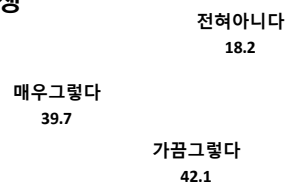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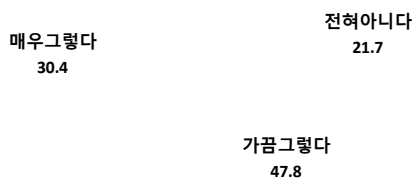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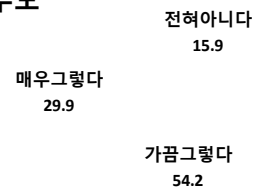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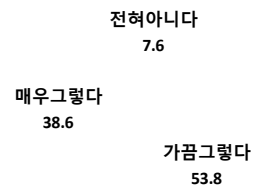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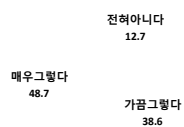
청소년 부모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30]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인터넷 사용의 문제점을 알려준다.

<표 1-Ⅱ-37>

3-14.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집이 없는 아동에게 먹고, 씻고, 잘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634	114	14.9	274	35.9	375	49.1
응답자	초등학생	499	22	11.6	47	24.9	120	63.5
	중·고등학생	922	79	19.7	149	37.1	174	43.3
	학교 밖 아동	29	4	19.0	7	33.3	10	47.6
	미취학아동 부모	-	-	-	-	-	-	-
	초등학생 부모	-	-	-	-	-	-	-
	청소년 부모	-	-	-	-	-	-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9	6.0	71	47.0	71	47.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26	18.4	40	28.4	75	53.2
	구도심	658	41	15.2	98	36.4	130	48.3
	신도심	923	46	13.8	129	38.7	158	47.4

<표 1-Ⅱ-37>의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집이 없는 아동에게 먹고, 씻고, 잘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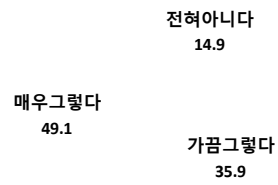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4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63.5%(120명), 학교 밖 아동 47.6%(10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47.0%(71명), 중·고등학생 43.3%(17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53.2%), 구도심(48.3%), 신도심(47.4%)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신도심보다 5.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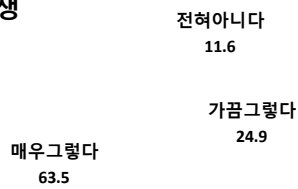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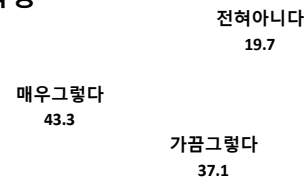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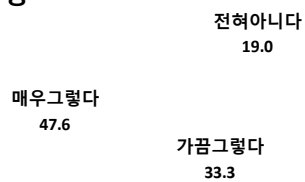
###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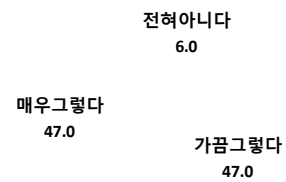
###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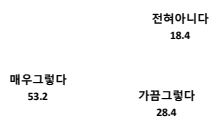
### 학교 밖 아동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읍·면



### 구도심



### 신도심



[그림 1-Ⅱ-31]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집이 없는 아동에게 먹고, 씻고, 잘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표 1-Ⅱ-38>

3-15.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성인과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278	48	7.3	254	38.4	359	54.3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중·고등학생	922	32	8.0	155	38.7	214	53.4
	학교 밖 아동	29	1	5.9	8	47.1	8	47.1
	미취학아동 부모	-	-	-	-	-	-	-
	초등학생 부모	-	-	-	-	-	-	-
	청소년 부모	143	11	12.8	38	44.2	37	43.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4	2.5	53	33.8	100	63.7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8	7.3	47	43.1	54	49.5
	구도심	658	16	6.6	88	36.5	137	56.8
	신도심	923	24	8.3	112	38.9	152	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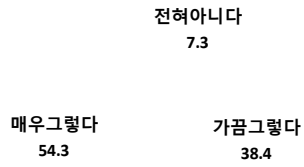
<표 1-Ⅱ-38>의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성인과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5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63.7%(100명), 중·고등학생 53.4%(214명), 학교 밖 아동 47.1%(8명), 청소년 부모 43.0%(3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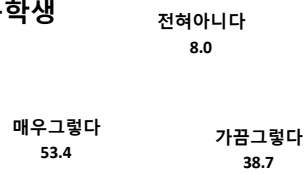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구도심(56.8%), 신도심(52.8%), 읍·면(49.5%)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구도심이 읍·면보다 7.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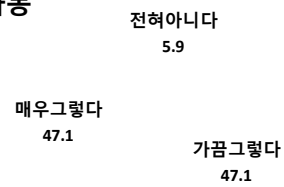
전체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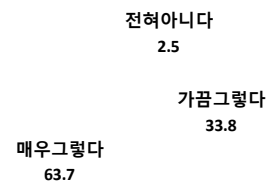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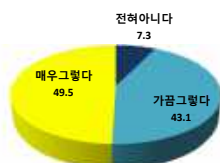
청소년 부모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32]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성인과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

<표 1-Ⅱ-39>

3-16.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보호시설(대안돌봄서비스)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84	8	5.2	69	44.5	78	50.3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중·고등학생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미취학아동 부모	-	-	-	-	-	-	-
	초등학생 부모	-	-	-	-	-	-	-
	청소년 부모	-	-	-	-	-	-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8	5.2	69	44.5	78	50.3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1	4.8	8	38.1	12	57.1
	구도심	658	4	4.4	43	47.8	43	47.8
	신도심	923	2	6.1	14	42.4	17	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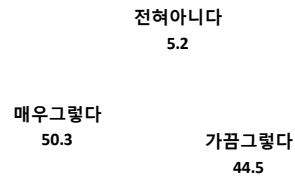
<표 1-Ⅱ-39>의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보호시설(대안돌봄서비스)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가 50.3%(78명)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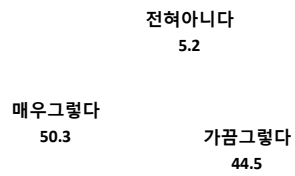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57.1%), 신도심(51.5%), 구도심(47.8%)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9.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전체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33]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보호시설(대안돌봄 서비스)이 있다.

#### (4) 나는 건강한가요?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표 1-Ⅱ-40>

4-1. 나는 아동정신건강 서비스(예: 상담 등)에 대해 알고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252	17.1	670	45.6	548	37.3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60	17.1	121	34.6	169	48.3
	중·고등학생	922	133	21.7	282	45.9	199	32.4
	학교 밖 아동	29	4	19.0	8	38.1	9	42.9
	미취학아동 부모	103	8	9.2	42	48.3	37	42.5
	초등학생 부모	114	13	11.9	62	56.9	34	31.2
	청소년 부모	143	20	16.8	60	50.4	39	32.8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4	8.2	95	55.9	61	35.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46	16.3	126	44.7	110	39.0
	구도심	658	96	18.4	255	48.9	170	32.6
	신도심	923	107	16.9	275	43.4	251	39.7

<표 1-Ⅱ-40>의 '나는 아동정신건강 서비스(예: 상담 등)에 대해 알고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4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가끔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부모 56.9%(62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55.9%(95명), 청소년 부모 50.4%(60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48.3%(42명), 중·고등학생 45.9%(282명), 학교 밖 아동 38.1%(8명), 초등학생 34.6%(12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경우 구도심(48.9%), 읍·면(44.7%), 신도심(43.4%)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구도심이 신도심보다 5.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34] 나는 아동정신건강 서비스(예: 상담 등)에 대해 알고 있다.

<표 1-Ⅱ-41>

4-2. 아동은 전문가를 통해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220	12.4	578	32.5	982	55.2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65	14.6	77	17.3	302	68.0
	중·고등학생	922	73	8.9	262	31.9	486	59.2
	학교 밖 아동	29	2	8.7	8	34.8	13	56.5
	미취학아동 부모	103	35	41.2	32	37.6	18	21.2
	초등학생 부모	114	19	17.3	57	51.8	34	30.9
	청소년 부모	143	18	14.9	73	60.3	30	24.8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8	4.5	69	39.2	99	56.3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48	14.1	96	28.2	197	57.8
	구도심	658	61	10.2	201	33.5	338	56.3
	신도심	923	108	13.4	262	32.6	433	53.9

<표 1-Ⅱ-41>의 '아동은 전문가를 통해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5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68.0%(302명), 중·고등학생 59.2%(486명), 학교 밖 아동 56.5%(13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56.3%(99명), 초등학생 부모 30.9%(34명), 청소년 부모 24.8%(30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21.2%(1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57.8%), 구도심(56.3%), 신도심(53.9%)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신도심보다 3.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35] 아동은 전문가를 통해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표 1-Ⅱ-42>

4-3. 우리 동네에는 아동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363	22.2	670	40.9	605	36.9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72	18.9	123	32.3	186	48.8
	중·고등학생	922	195	26.6	280	38.3	257	35.1
	학교 밖 아동	29	3	15.8	11	57.9	5	26.3
	미취학아동 부모	103	16	17.6	45	49.5	30	33.0
	초등학생 부모	114	16	14.4	70	63.1	25	22.5
	청소년 부모	143	39	29.8	68	51.9	24	18.3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22	12.7	73	42.2	78	45.1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74	23.1	114	35.5	133	41.4
	구도심	658	123	23.2	227	42.2	186	34.6
	신도심	923	154	20.7	313	42.0	278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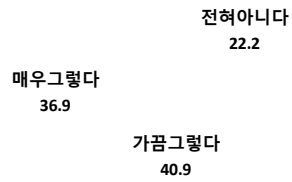
<표 1-Ⅱ-42>의 '우리 동네에는 아동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4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가끔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부모 63.1%(70명), 학교 밖 아동 57.9%(11명), 청소년 부모 51.9%(68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49.5%(30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42.2%(73명), 중·고등학생 38.3%(280명), 초등학생 32.3%(12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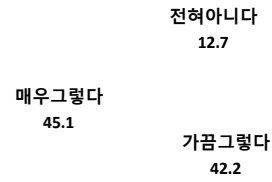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경우 구도심(42.2%), 신도심(42.0%), 읍·면(35.5%)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구도심이 읍·면보다 6.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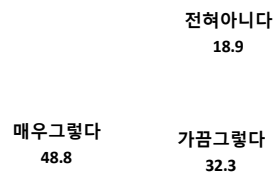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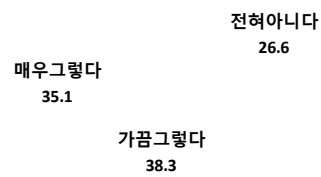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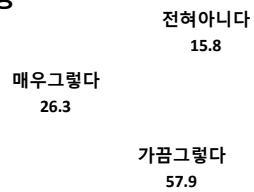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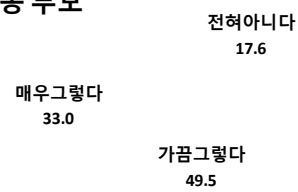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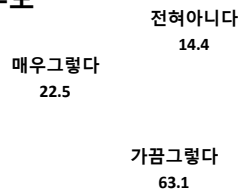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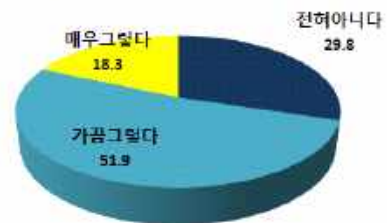
미취학아동 부모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36] 우리 동네에는 아동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다.

<표 1-Ⅱ-43>

4-4. 우리 지역사회에는 쓰레기와 오염수로 인한 문제가 없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344	21.9	705	44.9	521	33.2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35	9.8	146	40.8	177	49.4
	중·고등학생	922	141	20.3	332	47.8	222	31.9
	학교 밖 아동	29	2	8.7	10	43.5	11	47.8
	미취학아동 부모	103	40	45.5	33	37.5	15	17.0
	초등학생 부모	114	31	28.7	62	57.4	15	13.9
	청소년 부모	143	45	35.7	62	49.2	19	15.1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50	29.1	60	34.9	62	36.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61	19.2	154	48.6	102	32.2
	구도심	658	130	24.4	236	44.4	166	31.2
	신도심	923	138	20.2	304	44.4	242	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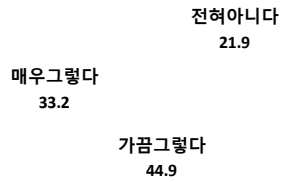
<표 1-Ⅱ-43>의 '우리 지역사회에는 쓰레기와 오염수로 인한 문제가 없다.'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4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가끔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부모 57.4%(62명), 청소년 부모 49.2%(62명), 중·고등학생 47.8%(332명), 학교 밖 아동 43.5%(11명), 초등학생 40.8%(146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37.5%(33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34.9%(6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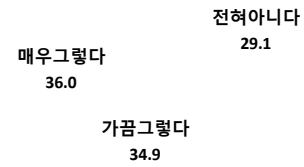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경우 읍·면(48.6%), 신도심(44.4%)과 구도심(44.4%)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신도심과 구도심보다 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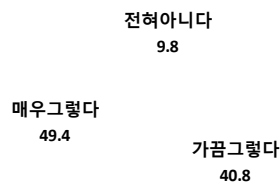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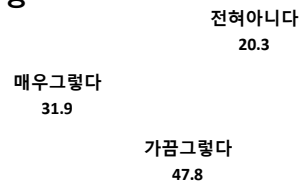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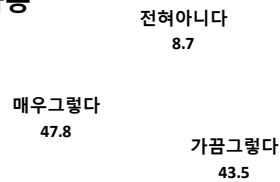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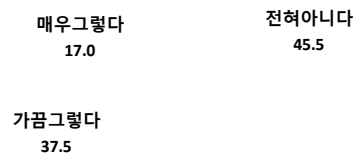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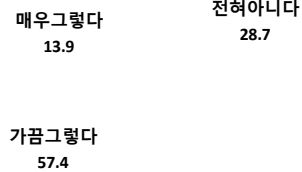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미취학아동 부모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37] 우리 지역사회에는 쓰레기와 오염수로 인한 문제가 없다.

<표 1-Ⅱ-44>

4-5.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 가능한 응급시설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137	8.1	491	29.0	1068	63.0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23	5.7	67	16.6	313	77.7
	중·고등학생	922	73	9.7	224	29.6	459	60.7
	학교 밖 아동	29	2	8.7	11	47.8	10	43.5
	미취학아동 부모	103	6	6.3	35	36.5	55	57.3
	초등학생 부모	114	11	9.9	43	38.7	57	51.4
	청소년 부모	143	9	6.8	61	45.9	63	47.4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3	7.5	50	28.7	111	63.8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46	14.3	95	29.6	180	56.1
	구도심	658	36	6.3	164	28.6	373	65.1
	신도심	923	51	6.7	217	28.4	497	65.0

<표 1-Ⅱ-44>의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 가능한 응급시설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6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77.7%(313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63.8%(111명), 중·고등학생 60.7%(459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57.3%(55명), 초등학생 부모 51.4%(57명), 청소년 부모 47.4%(63명), 학교 밖 아동 3.5%(1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구도심(65.1%), 신도심(65.0%), 읍·면(56.1%)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구도심이 읍·면보다 9.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38]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 가능한 응급시설이 있다.

<표 1-Ⅱ-45>

4-6. 우리 동네에는 매연이나 악취가 없고 깨끗하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573	33.6	780	45.8	350	20.6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80	20.2	220	55.4	97	24.4
	중·고등학생	922	262	34.4	348	45.7	151	19.8
	학교 밖 아동	29	1	4.3	9	39.1	13	56.5
	미취학아동 부모	103	49	51.6	31	32.6	15	15.8
	초등학생 부모	114	56	50.0	46	41.1	10	8.9
	청소년 부모	143	55	39.9	67	48.6	16	11.6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70	39.5	59	33.3	48	27.1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83	25.1	166	50.2	82	24.8
	구도심	658	201	34.5	263	45.2	118	20.3
	신도심	923	276	36.6	339	45.0	139	18.4

<표 1-Ⅱ-45>의 '우리 동네에는 매연이나 악취가 없고 깨끗하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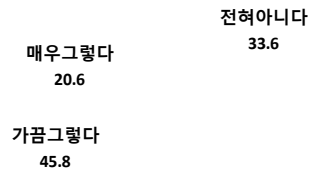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4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가끔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55.4%(220명), 청소년 부모 48.6%(67명), 중·고등학생 45.7%(348명), 초등학생 부모 41.1%(46명), 학교 밖 아동 39.1%(9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33.3%(59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32.6%(3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경우 읍·면(50.2%), 구도심(45.2%), 신도심(45.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신도심보다 5.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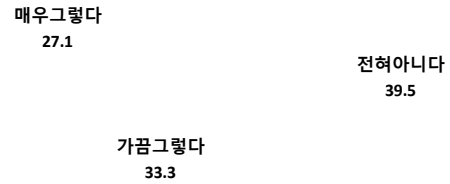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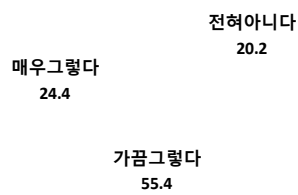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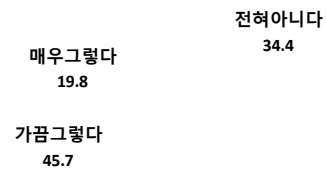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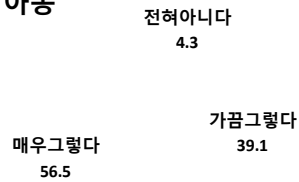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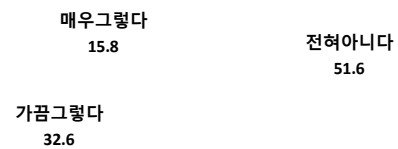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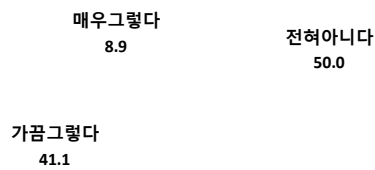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미취학아동 부모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39] 우리 동네에는 매연이나 악취가 없고 깨끗하다.

<표 1-Ⅱ-46>

4-7. 우리 동네에는 아동이 아플 때 진료 받을 병원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84	4.5	337	18.1	1445	77.4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19	4.2	28	6.2	406	89.6
	중·고등학생	922	51	6.0	154	18.0	651	76.1
	학교 밖 아동	29	3	12.5	12	50.0	9	37.5
	미취학아동 부모	103	1	1.0	24	24.5	73	74.5
	초등학생 부모	114	2	1.8	33	28.9	79	69.3
	청소년 부모	143	5	3.5	44	31.2	92	65.2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3	1.7	42	23.3	135	75.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25	7.2	77	22.1	246	70.7
	구도심	658	30	4.9	113	18.6	465	76.5
	신도심	923	25	2.9	134	15.3	714	81.8

<표 1-Ⅱ-46>의 '우리 동네에는 아동이 아플 때 진료 받을 병원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7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89.6%(406명), 중·고등학생 76.1%(651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75.0%(135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74.5%(73명), 초등학생 부모 69.3%(79명), 청소년 부모 65.2%(92명), 학교 밖 아동 37.5%(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81.8%), 구도심(76.5%), 읍·면(70.7%)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읍·면보다 1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40] 우리 동네에는 아동이 아플 때 진료 받을 병원이 있다.

<표 1-Ⅱ-47>

4-8.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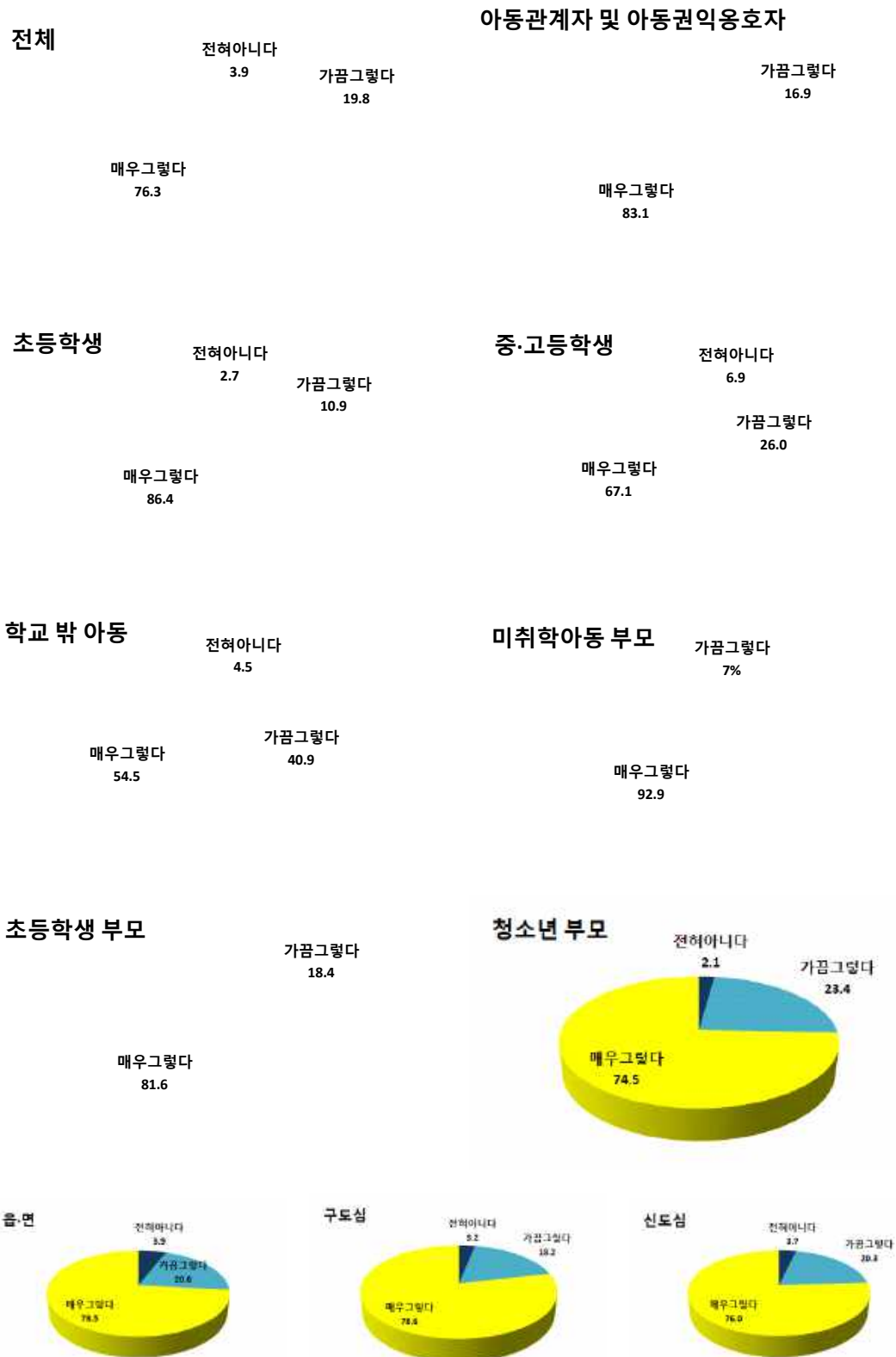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70	3.9	354	19.8	1368	76.3
응답자	초등학생	499	12	2.7	49	10.9	389	86.4
	중·고등학생	922	54	6.9	205	26.0	529	67.1
	학교 밖 아동	29	1	4.5	9	40.9	12	54.5
	미취학아동 부모	103	0	0.0	7	7.1	92	92.9
	초등학생 부모	114	0	0.0	21	18.4	93	81.6
	청소년 부모	143	3	2.1	33	23.4	105	74.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0	0.0	30	16.9	148	83.1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20	5.9	70	20.6	249	73.5
	구도심	658	19	3.2	109	18.2	471	78.6
	신도심	923	30	3.7	166	20.3	621	76.0

<표 1-Ⅱ-47>의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7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미취학아동 학부모 92.9%(92명), 초등학생 86.4%(389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83.1%(148명), 초등학생 부모 81.6%(93명), 청소년 부모 74.5%(105명), 중·고등학생 67.1%(529명), 학교 밖 아동 54.5%(1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구도심(78.6%), 신도심(76.0%), 읍·면(73.5%)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41]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다.

<표 1-Ⅱ-48>

4-9.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구분		전체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544	3	0.6	52	9.8	473	89.6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중·고등학생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미취학아동 부모	103	0	0.0	8	8.2	90	91.8
	초등학생 부모	114	0	0.0	12	10.6	101	89.4
	청소년 부모	143	3	2.1	15	10.6	124	87.3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0	0.0	17	9.7	158	90.3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2	1.8	9	8.3	98	89.9
	구도심	658	0	0.0	26	11.0	211	89.0
	신도심	923	1	0.6	14	9.0	140	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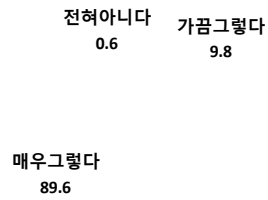
<표 1-Ⅱ-48>의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8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미취학아동 학부모 91.8%(90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90.3%(158명), 초등학생 부모 89.4%(101명), 청소년 부모 87.3%(12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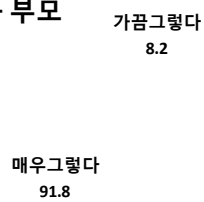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90.3%), 읍·면(89.9%), 구도심(89.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구도심보다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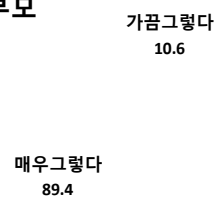
전체



미취학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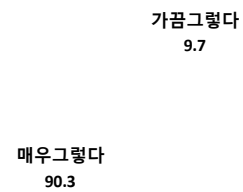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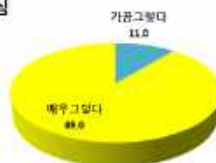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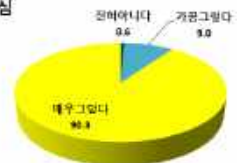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4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표 1-Ⅱ-49>

4-10. 우리 지역사회에는 빈곤층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544	21	5.5	205	53.5	157	41.0
응 답 자	초등학생	-	-	-	-	-	-	-
	중·고등학생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미취학아동 부모	103	5	9.8	23	45.1	23	45.1
	초등학생 부모	114	4	4.4	53	58.2	34	37.4
	청소년 부모	143	9	8.7	51	49.5	43	41.7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3	2.2	78	56.5	57	41.3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4	6.3	32	40.0	43	53.8
	구도심	658	10	5.6	104	57.8	66	36.7
	신도심	923	5	4.9	61	59.2	37	35.9

<표 1-Ⅱ-49>의 '우리 지역사회에는 빈곤층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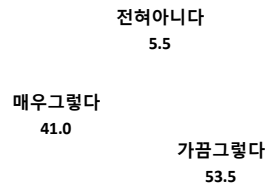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5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가끔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부모 58.2%(53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56.5%(78명), 청소년 부모 49.5%(51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45.1%(2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59.2%), 구도심(57.8%), 읍·면(40.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읍·면보다 19.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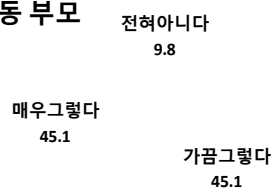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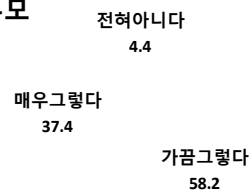
전체



미취학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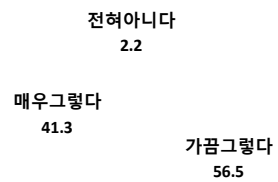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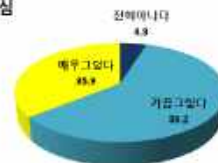
음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43] 우리 지역사회에는 빈곤층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

<표 1-Ⅱ-50>

4-11.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내 자녀를 돌봐 줄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544	48	10.6	234	51.5	172	37.9
응 답 자	초등학생	-	-	-	-	-	-	-
	중·고등학생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미취학아동 부모	103	3	3.5	49	57.6	33	38.8
	초등학생 부모	114	19	18.6	55	53.9	28	27.5
	청소년 부모	143	17	16.8	53	52.5	31	30.7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9	5.4	77	46.4	80	48.2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8	9.3	42	48.8	36	41.9
	구도심	658	21	9.7	110	50.7	86	39.6
	신도심	923	18	14.1	70	54.7	40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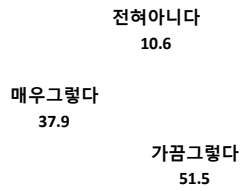
<표 1-Ⅱ-50>의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내 자녀를 돌봐 줄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5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가끔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미취학아동 학부모 57.6%(49명), 초등학생 부모 53.9%(55명), 청소년 부모 52.5%(53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46.4%(7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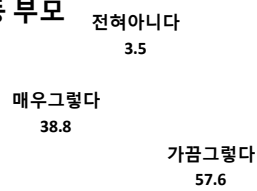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54.7%), 구도심(50.7%), 읍·면(48.8%)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읍·면보다 5.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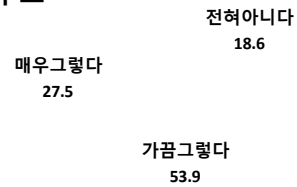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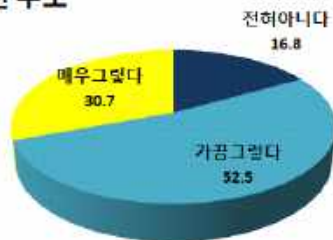
미취학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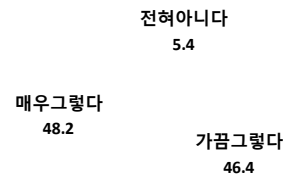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44]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내 자녀를 돌봐 줄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

<표 1-Ⅱ-51>

4-12. 우리 지역사회에는 자녀의 건강과 성장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544	45	10.2	238	54.0	158	35.8
응 답 자	초등학생	-	-	-	-	-	-	-
	중·고등학생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미취학아동 부모	103	5	6.8	36	48.6	33	44.6
	초등학생 부모	114	15	14.6	61	59.2	27	26.2
	청소년 부모	143	16	15.1	64	60.4	26	24.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9	5.7	77	48.7	72	45.6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10	11.5	45	51.7	32	36.8
	구도심	658	20	9.8	103	50.5	81	39.7
	신도심	923	12	9.4	80	62.5	36	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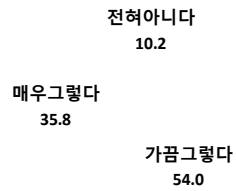
<표 1-Ⅱ-51>의 '우리 지역사회에는 자녀의 건강과 성장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5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가끔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청소년 부모 60.4%(64명), 초등학생 부모 59.2%(61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48.7%(77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48.6%(3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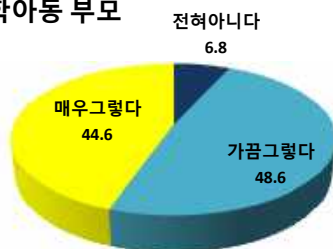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62.5%), 읍·면(51.7%), 구도심(50.5%)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구도심보다 12.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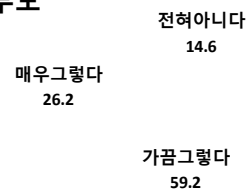
전체



미취학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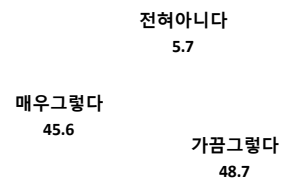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45] 우리 지역사회에는 자녀의 건강과 성장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

### (5) 나는 교육을 잘 받고 있나요?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및 다양한 교육시설을 의미)

<표 1-Ⅱ-52>

5-1. 아동은 학교에 다닌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25	1.3	33	1.7	1918	97.1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1	0.2	1	0.2	496	99.6
	중·고등학생	922	2	0.2	10	1.1	901	98.7
	학교 밖 아동	29	17	70.8	4	16.7	3	12.5
	미취학아동 부모	103	4	3.9	2	1.9	97	94.2
	초등학생 부모	114	0	0.0	1	0.9	112	99.1
	청소년 부모	143	0	0.0	2	1.4	141	98.6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	0.5	13	7.1	168	92.3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2	0.5	4	1.1	368	98.4
	구도심	658	13	2.0	17	2.6	622	95.4
	신도심	923	4	0.4	9	1.0	900	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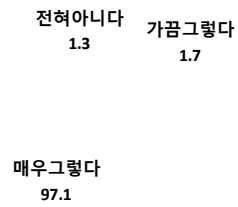
<표 1-Ⅱ-52>의 ‘아동은 학교에 다닌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9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99.6%(496명), 초등학생 부모 99.1%(112명), 중·고등학생 98.7%(901명), 청소년 부모 98.6%(141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94.2%(97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92.3%(168명), 학교 밖 아동 12.5%(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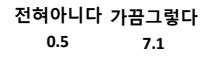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98.6%), 읍·면(98.4%), 구도심(95.4%)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구도심보다 3.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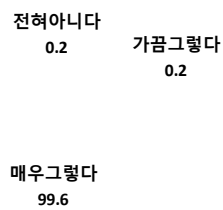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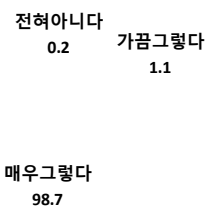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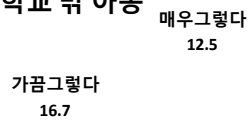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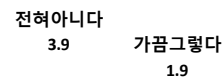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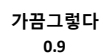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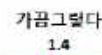
미취학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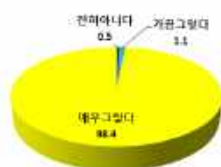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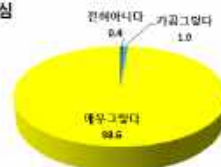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46] 아동은 학교에 다닌다.

<표 1-Ⅱ-53>

5-2. 아동은 학교수업에 필요한 공책, 학용품을 구입할 여유가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19	1.0	201	10.3	1728	88.7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5	1.0	41	8.4	443	90.6
	중·고등학생	922	9	1.0	70	7.7	826	91.3
	학교 밖 아동	29	2	9.5	12	57.1	7	33.3
	미취학아동 부모	103	1	1.0	10	9.9	90	89.1
	초등학생 부모	114	0	0.0	3	2.7	110	97.3
	청소년 부모	143	0	0.0	8	5.6	135	94.4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2	1.1	57	32.4	117	66.5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3	0.8	37	10.1	328	89.1
	구도심	658	7	1.1	86	13.5	546	85.4
	신도심	923	8	0.9	68	7.5	829	91.6

<표 1-Ⅱ-53>의 '아동은 학교수업에 필요한 공책, 학用品을 구입할 여유가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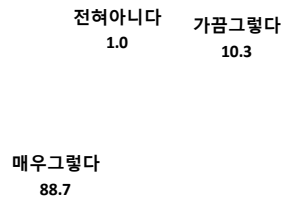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8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부모 97.3%(110명), 청소년 부모 94.4%(135명), 중·고등학생 91.3%(826명), 초등학생 90.6%(443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89.1%(90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66.5%(117명), 학교 밖 아동 33.3%(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91.6%), 읍·면(89.1%), 구도심(85.4%)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구도심보다 6.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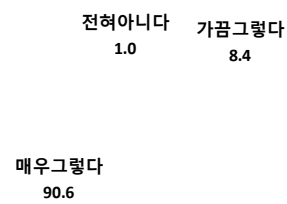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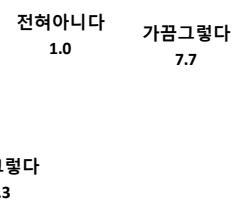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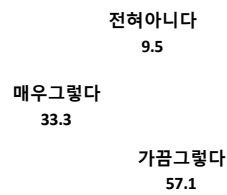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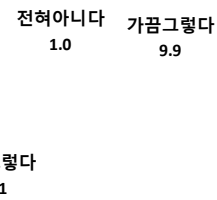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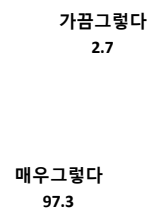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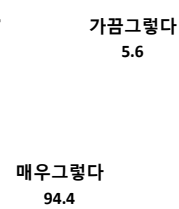
미취학아동 부모



초등학생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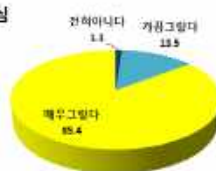
청소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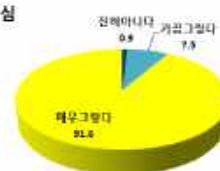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47] 아동은 학교수업에 필요한 공책, 학용품을 구입할 여유가 있다.

<표 1-Ⅱ-54>

5-3.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할 수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101	5.6	607	33.6	1100	60.8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12	2.7	114	25.9	314	71.4
	중·고등학생	922	60	7.2	263	31.6	508	61.1
	학교 밖 아동	29	7	38.9	5	27.8	6	33.3
	미취학아동 부모	103	5	5.2	44	45.4	48	49.5
	초등학생 부모	114	10	9.4	48	45.3	48	45.3
	청소년 부모	143	6	4.4	62	45.6	68	50.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	0.6	71	39.4	108	60.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13	3.8	115	34.0	210	62.1
	구도심	658	33	5.4	221	36.2	357	58.4
	신도심	923	50	6.1	256	31.1	517	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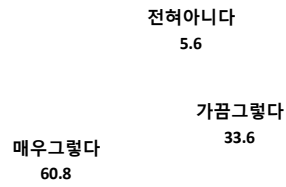
<표 1-Ⅱ-54>의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할 수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6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71.4%(314명), 중·고등학생 61.1%(508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보호자 60.0%(108명), 청소년 부모 50.0%(68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49.5%(48명), 초등학생 부모 45.3%(48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전혀 아니다'의 응답률이 38.9%(7명)로 가장 높았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62.8%), 읍·면(62.1%), 구도심(58.4%)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구도심보다 4.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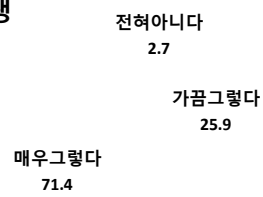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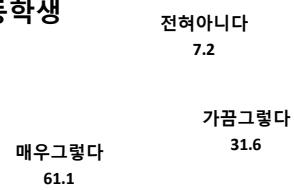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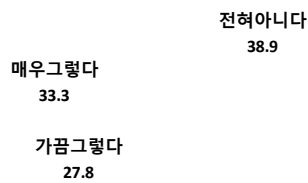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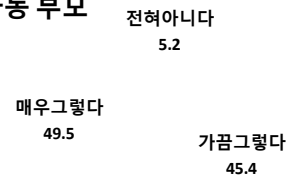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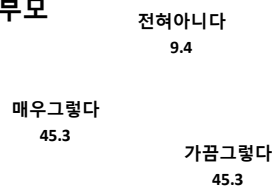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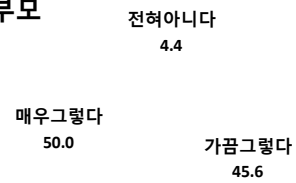
미취학아동 부모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48]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할 수 있다.

<표 1-Ⅱ-55>

5-4. 아동이 필요할 때, 교사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준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61	3.4	504	28.0	1235	68.6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8	1.8	76	17.1	361	81.1
	중·고등학생	922	40	4.9	257	31.5	518	63.6
	학교 밖 아동	29	6	33.3	6	33.3	6	33.3
	미취학아동 부모	103	3	2.9	18	17.5	82	79.6
	초등학생 부모	114	2	1.8	49	44.1	60	54.1
	청소년 부모	143	1	0.8	43	33.3	85	65.9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	0.6	55	30.7	123	68.7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7	2.1	98	28.8	235	69.1
	구도심	658	21	3.5	158	26.3	422	70.2
	신도심	923	28	3.4	238	28.9	557	67.7

<표 1-Ⅱ-55>의 '아동이 필요할 때, 교사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준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6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81.1%(361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79.6%(82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68.7%(123명), 청소년 부모 65.9%(85명), 중·고등학생 63.6%(518명), 초등학생 부모 54.1%(60명), 학교 밖 아동 33.3%(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구도심(70.2%), 읍·면(69.1%), 신도심(67.7%)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구도심이 신도심보다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49] 아동이 필요할 때, 교사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준다.

<표 1-Ⅱ-56>

5-5. 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123	7.2	442	26.0	1134	66.7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16	3.8	73	17.2	336	79.1
	중·고등학생	922	93	12.2	238	31.3	429	56.4
	학교 밖 아동	29	5	27.8	5	27.8	8	44.4
	미취학아동 부모	103	0	0.0	9	9.9	82	90.1
	초등학생 부모	114	1	0.9	36	33.3	71	65.7
	청소년 부모	143	3	2.5	40	33.6	76	63.9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5	2.8	41	23.0	132	74.2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21	6.5	72	22.2	232	71.4
	구도심	658	40	6.9	146	25.1	395	68.0
	신도심	923	58	7.7	215	28.4	485	64.0

<표 1-Ⅱ-56>의 '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미취학아동 학부모 90.1%(82명), 초등학생 79.1%(336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74.2%(132명), 초등학생 부모 65.7%(71명), 청소년 부모 63.9%(76명), 중·고등학생 56.4%(429명), 학교 밖 아동 44.4%(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71.4%), 구도심(68.0%), 신도심(64.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신도심보다 7.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50] 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표 1-Ⅱ-57>

5-6. 학교에서 교사는 아동의 의견을 경청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53	3.0	475	26.9	1240	70.1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5	1.1	59	12.9	393	86.0
	중·고등학생	922	40	5.1	257	32.4	495	62.5
	학교 밖 아동	29	2	11.8	8	47.1	7	41.2
	미취학아동 부모	103	0	0.0	14	14.7	81	85.3
	초등학생 부모	114	1	0.9	38	34.9	70	64.2
	청소년 부모	143	3	2.5	43	35.5	75	62.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2	1.1	56	31.6	119	67.2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7	2.1	81	24.0	249	73.9
	구도심	658	17	2.9	162	27.2	417	70.0
	신도심	923	27	3.4	219	27.4	554	69.3

<표 1-Ⅱ-57>의 '학교에서 교사는 아동의 의견을 경청한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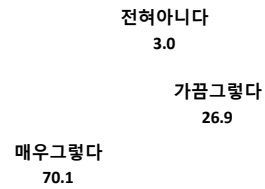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7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86.0%(393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85.3%(81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67.2%(119명), 초등학생 부모 64.2%(70명), 중·고등학생 62.5%(495명), 청소년 부모 62.0%(75명), 학교 밖 아동 41.2%(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73.9%), 구도심(70.7%), 신도심(67.7%)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신도심보다 6.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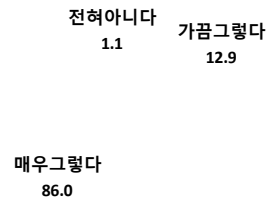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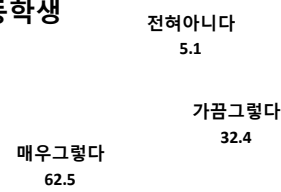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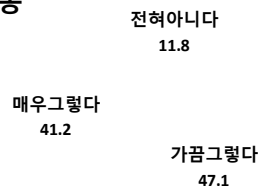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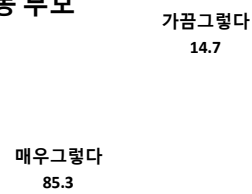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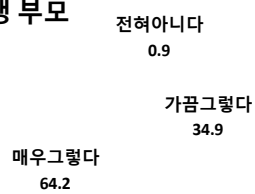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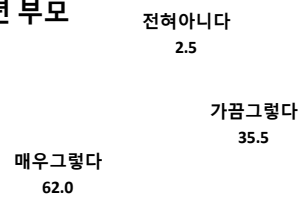
미취학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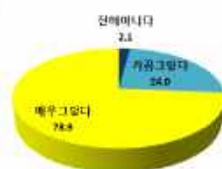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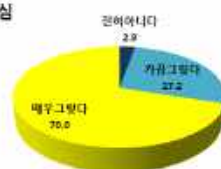
청소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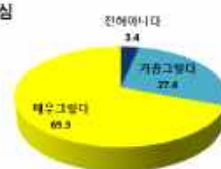
출·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51] 학교에서 교사는 아동의 의견을 경청한다.

<표 1-Ⅱ-58>

5-7. 아동은 학교에서 건강한 생활습관과 위생에 대해 배운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31	1.7	479	26.5	1299	71.8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1	0.2	77	16.8	379	82.9
	중·고등학생	922	27	3.3	282	34.9	500	61.8
	학교 밖 아동	29	2	10.5	8	42.1	9	47.4
	미취학아동 부모	103	0	0.0	10	9.7	93	90.3
	초등학생 부모	114	1	0.9	26	23.9	82	75.2
	청소년 부모	143	0	0.0	39	30.0	91	70.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0	0.0	37	20.3	145	79.7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2	0.5	71	20.5	274	79.0
	구도심	658	11	1.8	158	26.0	439	72.2
	신도심	923	17	2.1	240	29.4	560	68.5

<표 1-Ⅱ-58>의 ‘아동은 학교에서 건강한 생활습관과 위생에 대해 배운다.’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7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미취학아동 학부모 90.3%(93명), 초등학생 82.9%(379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79.7%(145명), 초등학생 부모 75.2%(82명), 청소년 부모 70.0%(91명) 중·고등학생 61.8%(500명), 학교 밖 아동 47.4%(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79.0%), 구도심(72.2%), 신도심(68.5%)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신도심보다 1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52] 아동은 학교에서 건강한 생활습관과 위생에 대해 배운다.

<표 1-Ⅱ-59>

5-8. 아동은 학교에서 환경보호에 대해 배운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49	2.7	551	30.2	1223	67.1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5	1.1	92	19.7	371	79.3
	중·고등학생	922	40	4.9	317	39.1	454	56.0
	학교 밖 아동	29	2	10.5	10	52.6	7	36.8
	미취학아동 부모	103	0	0.0	14	13.9	87	86.1
	초등학생 부모	114	1	0.9	28	25.9	79	73.1
	청소년 부모	143	1	0.7	42	31.1	92	68.1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0	0.0	48	26.5	133	73.5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4	1.2	86	24.8	257	74.1
	구도심	658	18	3.0	191	31.6	396	65.5
	신도심	923	27	3.2	262	31.4	545	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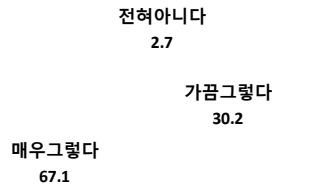
<표 1-Ⅱ-59>의 '아동은 학교에서 환경보호에 대해 배운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6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미취학아동 학부모 86.1%(87명), 초등학생 79.3%(371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73.5%(133명), 초등학생 부모 73.1%(79명), 청소년 부모 68.1%(92명), 중·고등학생 56.0%(454명), 학교 밖 아동 36.8%(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74.1%), 구도심(65.5%), 신도심(65.3%)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신도심보다 8.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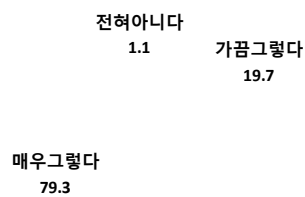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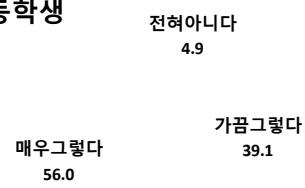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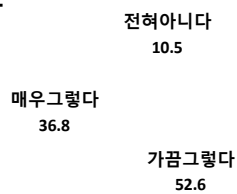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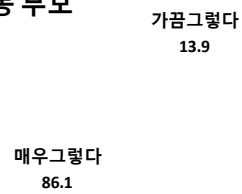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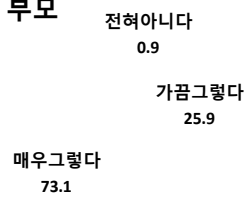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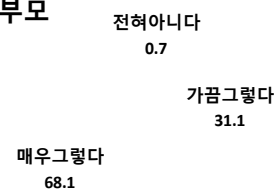
미취학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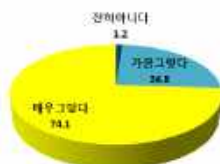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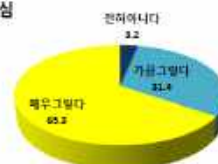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53] 아동은 학교에서 환경보호에 대해 배운다.

<표 1-Ⅱ-60>

5-9. 아동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35	1.9	358	19.2	1468	78.9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12	2.6	43	9.2	412	88.2
	중·고등학생	922	17	2.0	178	20.6	670	77.5
	학교 밖 아동	29	2	11.1	9	50.0	7	38.9
	미취학아동 부모	103	1	1.2	12	14.3	71	84.5
	초등학생 부모	114	0	0.0	37	33.9	72	66.1
	청소년 부모	143	1	0.7	49	36.0	86	63.2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2	1.1	30	16.5	150	82.4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8	2.3	55	15.9	282	81.7
	구도심	658	10	1.6	132	21.0	486	77.4
	신도심	923	16	1.9	160	18.8	676	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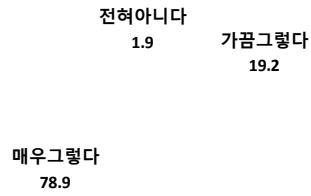
<표 1-Ⅱ-60>의 '아동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88.2%(412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84.5%(71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82.4%(150명), 중·고등학생 77.5%(670명), 초등학생 부모 66.1%(72명), 청소년 부모 63.2%(86명), 학교 밖 아동 38.9%(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81.7%), 신도심(79.3%), 구도심(77.4%)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4.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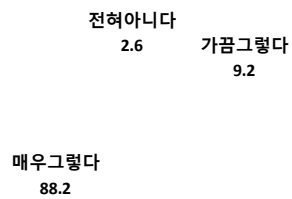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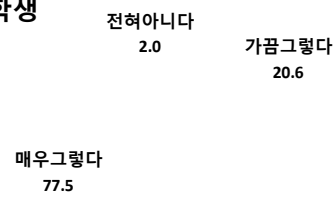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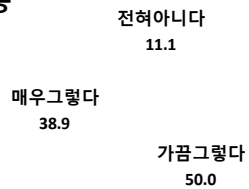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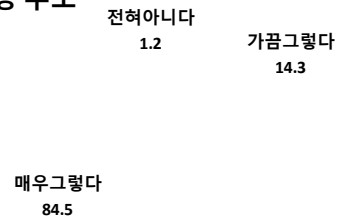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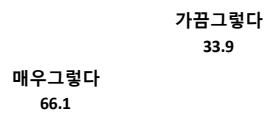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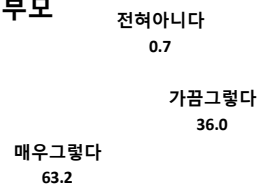
미취학아동 부모



초등학생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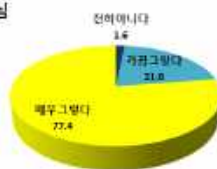
청소년 부모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II-54] 아동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표 1-Ⅱ-61>

5-10. 학교에는 마시고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27	1.4	295	15.6	1570	83.0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7	1.5	35	7.4	433	91.2
	중·고등학생	922	11	1.3	165	19.0	694	79.8
	학교 밖 아동	29	2	10.0	8	40.0	10	50.0
	미취학아동 부모	103	0	0.0	6	6.1	93	93.9
	초등학생 부모	114	3	2.7	25	22.7	82	74.5
	청소년 부모	143	2	1.4	25	18.1	111	80.4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2	1.1	31	17.2	147	81.7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0	0.0	45	12.4	318	87.6
	구도심	658	12	1.9	114	18.5	490	79.5
	신도심	923	11	1.3	126	14.4	740	84.4

<표 1-Ⅱ-61>의 '학교에는 마시고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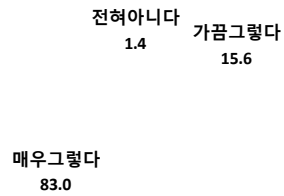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8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미취학아동 학부모 93.9%(93명), 초등학생 91.2%(433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81.7%(147명), 청소년 부모 80.4%(111명), 중·고등학생 79.8%(694명), 초등학생 부모 74.5%(82명), 학교 밖 아동 50.0%(1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87.6%), 신도심(84.4%), 구도심(79.5%)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8.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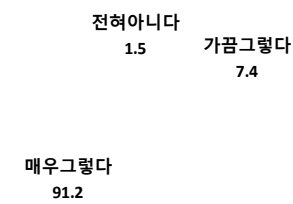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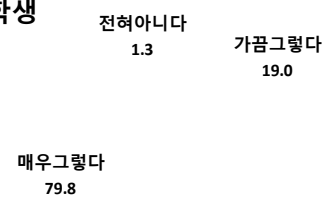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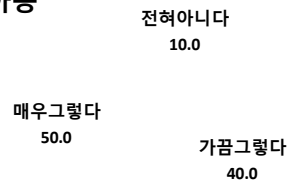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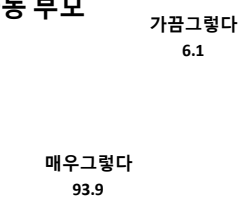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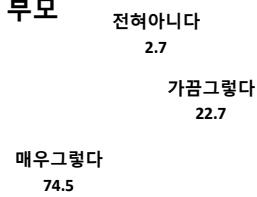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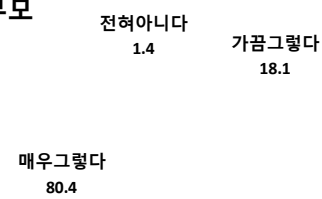
미취학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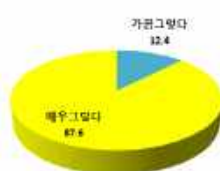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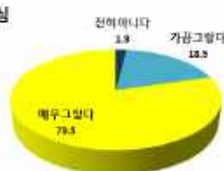
청소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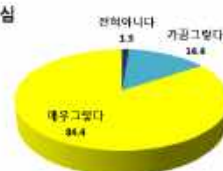
출·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55] 학교에는 마시고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표 1-Ⅱ-62>

5-11. 학교의 화장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149	8.2	609	33.5	1058	58.3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41	9.0	162	35.5	253	55.5
	중·고등학생	922	91	11.0	303	36.8	430	52.2
	학교 밖 아동	29	2	10.0	11	55.0	7	35.0
	미취학아동 부모	103	0	0.0	8	8.4	87	91.6
	초등학생 부모	114	5	4.6	44	40.4	60	55.0
	청소년 부모	143	6	4.5	37	27.6	91	67.9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4	2.2	44	24.7	130	73.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12	3.4	101	28.5	241	68.1
	구도심	658	57	9.8	229	39.6	293	50.6
	신도심	923	76	9.0	267	31.6	503	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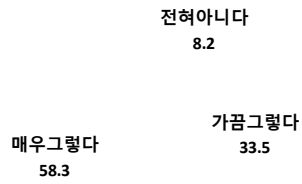
<표 1-Ⅱ-62>의 '학교의 화장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5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미취학아동 학부모 91.6%(87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73.0%(130명), 청소년 부모 67.9%(91명), 초등학생 55.5%(253명), 초등학생 부모 55.0%(60명), 중·고등학생 52.2%(430명), 학교 밖 아동 35.0%(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68.1%), 신도심(59.5%), 구도심(50.6%)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17.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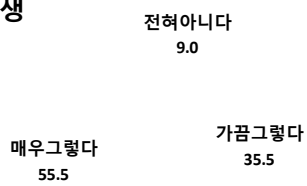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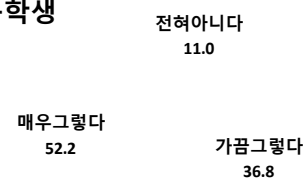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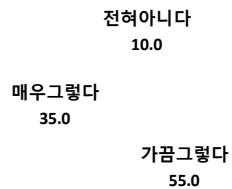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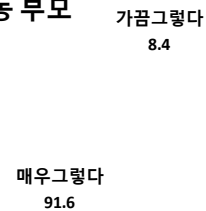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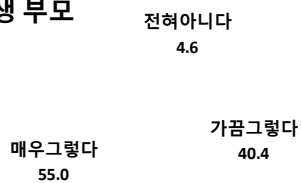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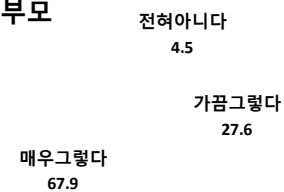
미취학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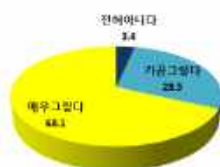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56] 학교의 화장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

<표 1-Ⅱ-63>

5-12. 학교에서는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존중받는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48	2.9	336	20.3	1275	76.9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11	2.6	28	6.5	389	90.9
	중·고등학생	922	28	3.9	188	26.1	505	70.0
	학교 밖 아동	29	1	6.7	6	40.0	8	53.3
	미취학아동 부모	103	0	0.0	10	11.0	81	89.0
	초등학생 부모	114	2	1.9	41	38.7	63	59.4
	청소년 부모	143	2	1.6	27	21.8	95	76.6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4	2.3	36	20.7	134	77.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8	2.5	45	13.8	272	83.7
	구도심	658	12	2.2	126	22.7	417	75.1
	신도심	923	27	3.6	155	20.8	562	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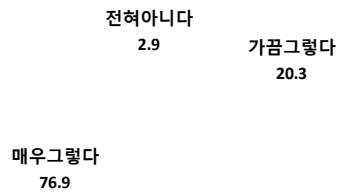
<표 1-Ⅱ-63>의 '학교에서는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존중받는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7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90.9%(389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89.0%(81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77.0%(134명), 청소년 부모 76.6%(95명), 중·고등학생 70.0%(505명), 초등학생 부모 59.4%(63명), 학교 밖 아동 53.3%(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83.7%), 신도심(75.5%), 구도심(75.1%)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8.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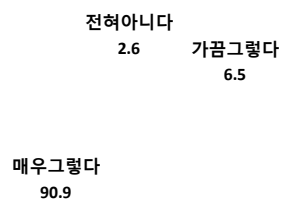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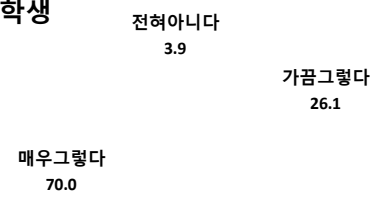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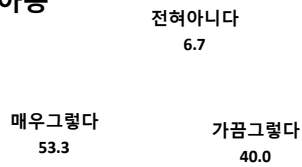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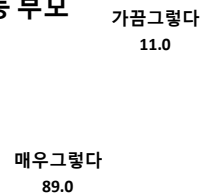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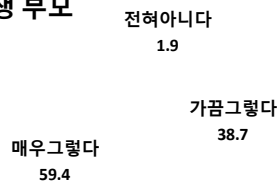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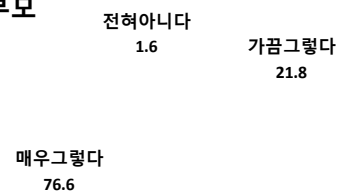
미취학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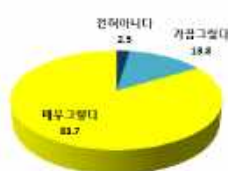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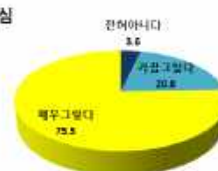
출·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57] 학교에서는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존중받는다.

<표 1-Ⅱ-64>

5-13. 학교에서는 장애아동도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59	3.8	354	22.6	1153	73.6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9	2.1	47	10.9	377	87.1
	중·고등학생	922	33	5.0	175	26.3	458	68.8
	학교 밖 아동	29	1	5.6	10	55.6	7	38.9
	미취학아동 부모	103	2	3.0	7	10.6	57	86.4
	초등학생 부모	114	5	5.0	33	32.7	63	62.4
	청소년 부모	143	1	0.9	27	25.0	80	74.1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8	4.6	55	31.6	111	63.8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6	1.9	48	15.3	260	82.8
	구도심	658	23	4.5	120	23.6	366	71.9
	신도심	923	28	4.0	170	24.0	510	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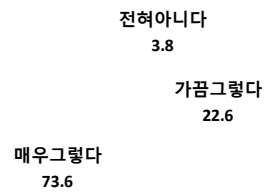
<표 1-Ⅱ-64>의 '학교에서는 장애아동도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7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87.1%(377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86.4%(57명), 청소년 부모 74.1%(80명), 중·고등학생 68.8%(458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63.8%(111명), 초등학생 부모 62.4%(63명), 학교 밖 아동 38.9%(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82.8%), 신도심(72.0%), 구도심(71.9%)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10.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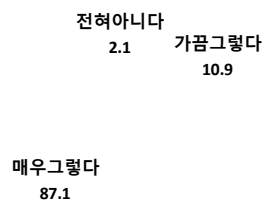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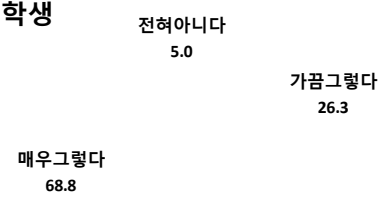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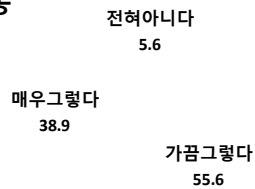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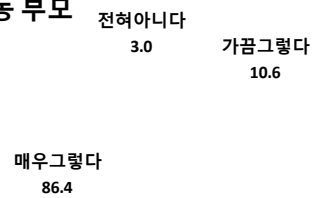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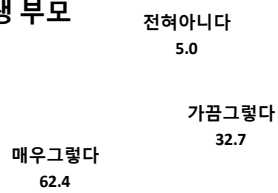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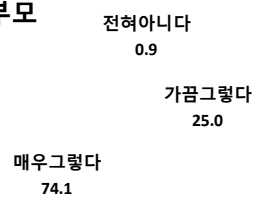
미취학아동 부모



초등학생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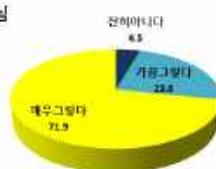
청소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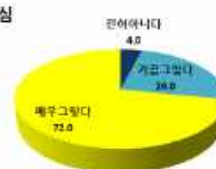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58] 학교에서는 장애아동도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표 1-Ⅱ-65>

5-14. 학교에는 아동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예: 상담사)가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111	6.9	395	24.5	1108	68.6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31	8.6	69	19.1	261	72.3
	중·고등학생	922	48	6.1	161	20.6	572	73.2
	학교 밖 아동	29	3	16.7	7	38.9	8	44.4
	미취학아동 부모	103	7	11.5	13	21.3	41	67.2
	초등학생 부모	114	11	11.0	47	47.0	42	42.0
	청소년 부모	143	1	0.8	36	29.5	85	69.7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0	5.8	62	36.3	99	57.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28	9.4	78	26.2	192	64.4
	구도심	658	40	7.8	151	29.3	325	63.0
	신도심	923	41	5.4	155	20.2	570	74.4

<표 1-Ⅱ-65>의 '학교에는 아동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예: 상담사)가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6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중·고등학생 73.2%(572명), 초등학생 72.3%(261명), 청소년 부모 69.7%(85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67.2%(41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57.9%(99명), 학교 밖 아동 44.4%(8명), 초등학생 부모 42.0%(4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74.4%), 읍·면(64.4%), 구도심(63.0%)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구도심보다 11.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59] 학교에는 아동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예: 상담사)가 있다.

<표 1-Ⅱ-66>

5-15. 학교는 장애를 가진 아동도 다닐 수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72	4.4	240	14.8	1311	80.8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5	1.1	12	2.6	450	96.4
	중·고등학생	922	46	6.6	106	15.1	550	78.3
	학교 밖 아동	29	2	12.5	9	56.3	5	31.3
	미취학아동 부모	103	4	7.5	8	15.1	41	77.4
	초등학생 부모	114	7	6.7	30	28.8	67	64.4
	청소년 부모	143	3	2.9	23	22.1	78	75.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5	2.8	52	29.4	120	67.8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11	3.5	36	11.6	263	84.8
	구도심	658	32	6.2	100	19.5	382	74.3
	신도심	923	26	3.4	92	12.1	645	84.5

<표 1-Ⅱ-66>의 '학교는 장애를 가진 아동도 다닐 수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8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96.4%(450명), 중·고등학생 78.3%(550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77.4%(41명), 청소년 부모 75.0%(78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67.8%(120명), 초등학생 부모 64.4%(67명), 학교 밖 아동 31.3%(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84.8%), 신도심(84.5%), 구도심(74.3%)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1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60] 학교는 장애를 가진 아동도 다닐 수 있다.

<표 1-Ⅱ-67>

5-16. 학교에서는 아동을 체벌을 하지 않는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126	8.0	327	20.8	1122	71.2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42	10.1	34	8.2	338	81.6
	중·고등학생	922	68	10.2	186	27.8	414	62.0
	학교 밖 아동	29	3	16.7	6	33.3	9	50.0
	미취학아동 부모	103	1	1.1	7	8.0	80	90.9
	초등학생 부모	114	4	3.9	32	31.1	67	65.0
	청소년 부모	143	8	7.3	38	34.5	64	58.2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0	0.0	24	13.8	150	86.2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35	11.1	59	18.7	221	70.2
	구도심	658	41	7.7	111	20.8	381	71.5
	신도심	923	49	7.1	148	21.4	495	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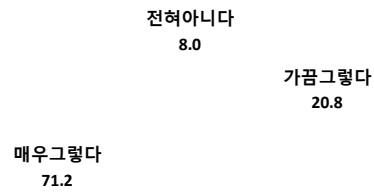
<표 1-Ⅱ-67>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체벌을 하지 않는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7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미취학아동 학부모 90.9%(80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86.2%(150명), 초등학생 81.6%(338명), 초등학생 부모 65.0%(67명), 중·고등학생 62.0%(414명), 청소년 부모 58.2%(64명), 학교 밖 아동 50.0%(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71.5%), 구도심(71.5%), 읍·면(70.2%)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 구도심이 읍·면보다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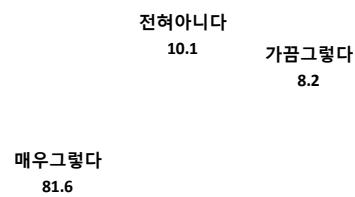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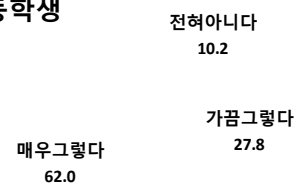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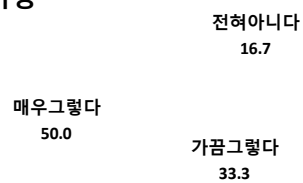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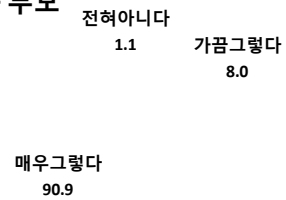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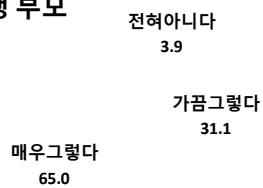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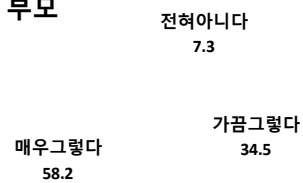
미취학아동 부모



초등학생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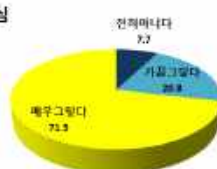
청소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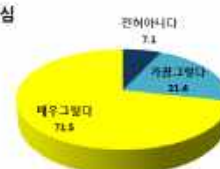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61] 학교에서는 아동을 체벌을 하지 않는다.

<표 1-Ⅱ-68>

5-17. 학교에서는 서로 존중하며, 다른 아동의 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부터 안전하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113	7.1	533	33.4	952	59.6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17	4.2	93	22.7	299	73.1
	중·고등학생	922	81	11.9	238	34.9	363	53.2
	학교 밖 아동	29	1	6.7	9	60.0	5	33.3
	미취학아동 부모	103	1	1.1	22	23.4	71	75.5
	초등학생 부모	114	4	3.7	50	45.9	55	50.5
	청소년 부모	143	5	4.1	50	41.3	66	54.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4	2.4	71	42.3	93	55.4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16	5.0	88	27.6	215	67.4
	구도심	658	38	7.2	185	34.8	308	58.0
	신도심	923	57	8.0	247	34.6	409	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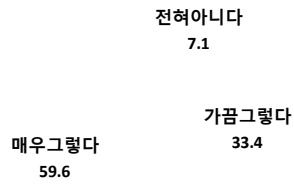
<표 1-Ⅱ-68>의 '학교에서는 서로 존중하며, 다른 아동의 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부터 안전하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미취학아동 학부모 75.5%(71명), 초등학생 73.1%(299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55.4%(93명), 청소년 부모 54.5%(66명), 중·고등학생 53.2%(363명), 초등학생 부모 50.5%(55명), 학교 밖 아동 33.3%(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67.4%), 구도심(58.0%), 신도심(57.4%)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신도심보다 10.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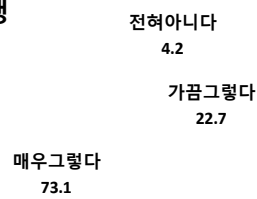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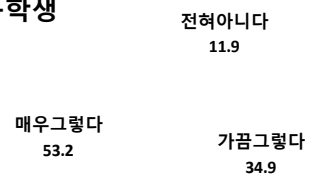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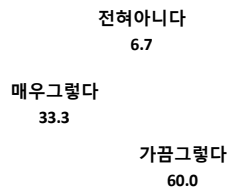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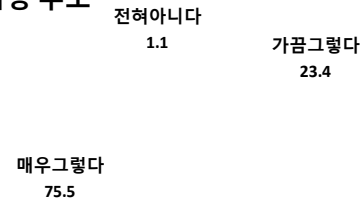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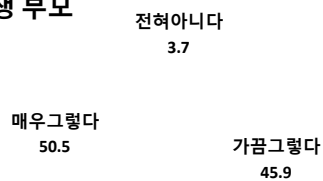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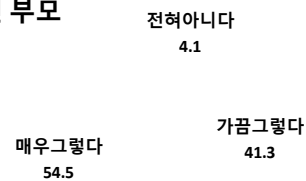
미취학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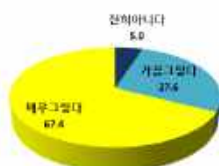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음·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62] 학교에서는 서로 존중하며, 다른 아동의 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부터 안전하다.

<표 1-Ⅱ-69>

5-18.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아동들에게 미래직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94	6.0	495	31.3	990	62.7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16	4.2	74	19.4	291	76.4
	중·고등학생	922	50	7.1	214	30.4	441	62.6
	학교 밖 아동	29	4	22.2	9	50.0	5	27.8
	미취학아동 부모	103	4	5.5	27	37.0	42	57.5
	초등학생 부모	114	5	4.9	46	45.1	51	50.0
	청소년 부모	143	8	6.2	49	37.7	73	56.2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7	4.1	76	44.7	87	51.2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18	5.6	86	26.7	218	67.7
	구도심	658	30	5.7	190	36.3	304	58.0
	신도심	923	44	6.3	203	29.1	451	64.6

<표 1-Ⅱ-69>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아동들에게 미래직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6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76.4%(291명), 중·고등학생 62.6%(441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57.5%(42명), 청소년 부모 56.2%(73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51.2%(87명), 초등학생 부모 50.0%(51명), 학교 밖 아동 27.8%(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67.7%), 신도심(64.6%), 구도심(58.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9.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63]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아동들에게 미래직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표 1-Ⅱ-70>

5-19.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운동하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37	2.0	441	23.4	1403	74.6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7	1.4	55	11.3	425	87.3
	중·고등학생	922	25	2.9	213	24.7	625	72.4
	학교 밖 아동	29	1	5.6	12	66.7	5	27.8
	미취학아동 부모	103	0	0.0	13	13.7	82	86.3
	초등학생 부모	114	0	0.0	38	34.5	72	65.5
	청소년 부모	143	1	0.8	48	37.2	80	62.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3	1.7	62	34.6	114	63.7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8	2.2	72	19.9	282	77.9
	구도심	658	15	2.4	158	25.6	445	72.0
	신도심	923	14	1.6	194	22.5	656	75.9

<표 1-Ⅱ-70>의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운동하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7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87.3%(425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86.3%(82명), 중·고등학생 72.4%(625명), 초등학생 부모 65.5%(72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63.7%(114명), 청소년 부모 62.0%(80명), 학교 밖 아동 27.8%(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77.9%), 신도심(75.9%), 구도심(72.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5.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64]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운동하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표 1-Ⅱ-71>

5-20.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28	1.5	195	10.1	1700	88.4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3	0.6	17	3.4	474	96.0
	중·고등학생	922	17	1.9	100	11.4	761	86.7
	학교 밖 아동	29	1	6.3	6	37.5	9	56.3
	미취학아동 부모	103	0	0.0	6	6.1	92	93.9
	초등학생 부모	114	0	0.0	18	15.8	96	84.2
	청소년 부모	143	7	5.0	21	15.0	112	80.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0	0.0	27	14.8	156	85.2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19	5.2	44	12.1	301	82.7
	구도심	658	3	0.5	65	10.2	567	89.3
	신도심	923	6	0.7	77	8.7	804	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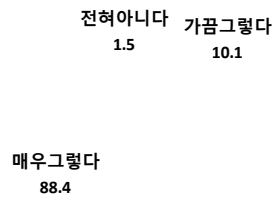
<표 1-Ⅱ-71>의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8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96.0%(474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93.9%(92명), 중·고등학생 86.7%(761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85.2%(156명), 초등학생 부모 84.2%(96명), 청소년 부모 80.0%(112명), 학교 밖 아동 56.3%(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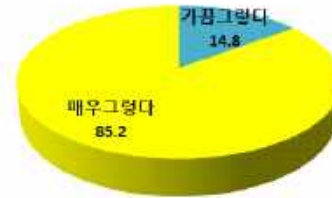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90.6%), 구도심(89.3%), 읍·면(82.7%)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읍·면보다 7.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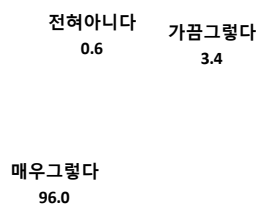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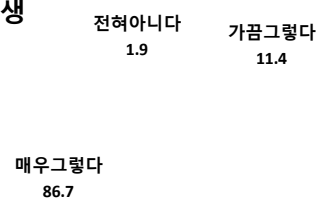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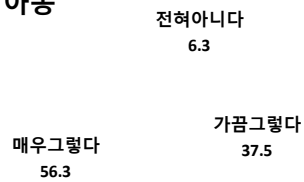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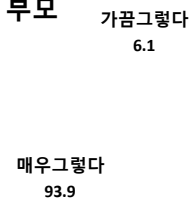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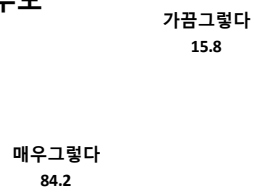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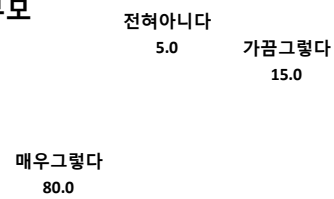
미취학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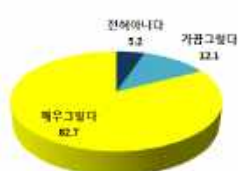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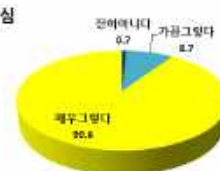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65]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

<표 1-Ⅱ-72>

5-21. 아동은 학교에서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해 배운 적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891	231	19.0	361	29.8	621	51.2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23	7.7	61	20.5	213	71.7
	중·고등학생	922	183	32.9	166	29.9	207	37.2
	학교 밖 아동	29	3	20.0	5	33.3	7	46.7
	미취학아동 부모	-	-	-	-	-	-	-
	초등학생 부모	114	6	6.3	43	45.3	46	48.4
	청소년 부모	143	8	9.2	34	39.1	45	51.7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8	4.9	52	31.9	103	63.2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43	17.8	75	31.1	123	51.0
	구도심	658	69	16.6	129	31.0	218	52.4
	신도심	923	117	22.3	149	28.4	259	49.3

<표 1-Ⅱ-72>의 ‘아동은 학교에서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해 배운 적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5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71.7%(213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63.2%(103명), 청소년 부모 51.7%(45명), 초등학생 부모 48.4%(46명), 학교 밖 아동 46.7%(7명), 중·고등학생 37.2%(20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구도심(52.4%), 읍·면(51.0%), 신도심(49.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구도심이 신도심보다 3.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66] 아동은 학교에서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해 배운 적이 있다.

<표 1-Ⅱ-73>

5-2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교육비를 직접 벌지 않아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891	41	3.2	224	17.7	1004	79.1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4	1.3	17	5.3	299	93.4
	중·고등학생	922	17	3.1	109	20.1	416	76.8
	학교 밖 아동	29	5	31.3	4	25.0	7	43.8
	미취학아동 부모	-	-	-	-	-	-	-
	초등학생 부모	114	7	6.7	37	35.2	61	58.1
	청소년 부모	143	5	4.5	26	23.2	81	72.3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3	1.7	31	17.8	140	80.5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7	2.8	39	15.8	201	81.4
	구도심	658	14	3.2	84	19.2	339	77.6
	신도심	923	17	3.1	93	16.8	444	80.1

<표 1-Ⅱ-73>의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교육비를 직접 벌지 않아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7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93.4%(299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80.5%(140명), 중·고등학생 76.8%(416명), 청소년 부모 72.3%(81명), 초등학생 부모 58.1%(61명), 학교 밖 아동 43.8%(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81.4%), 신도심(80.1%), 구도심(77.6%)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3.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67]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교육비를 직접 벌지 않아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1-Ⅱ-74>

5-23.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장소(학교 등)가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450	9	0.7	94	7.0	1236	92.3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1	0.2	13	2.8	457	97.0
	중·고등학생	922	6	0.7	74	8.7	770	90.6
	학교 밖 아동	29	2	11.1	7	38.9	9	50.0
	미취학아동 부모	-	-	-	-	-	-	-
	초등학생 부모	-	-	-	-	-	-	-
	청소년 부모	-	-	-	-	-	-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2	0.8	14	5.5	239	93.7
	구도심	658	3	0.8	34	8.9	343	90.3
	신도심	923	4	0.6	43	6.2	650	93.3

<표 1-Ⅱ-74>의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가 교육 받을 수 있는 장소(학교 등)가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9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97.0%(457명), 중·고등학생 90.6%(770명), 학교 밖 아동 50.0%(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93.7%), 신도심(93.3%), 구도심(90.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3.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전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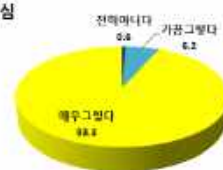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II-68]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장소(학교 등)가 있다.

<표 1-Ⅱ-75>

5-24. 학교의 운영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편리하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544	16	3.1	145	28.0	356	68.9
응 답 자	초등학생	-	-	-	-	-	-	-
	중·고등학생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미취학아동 부모	103	3	3.0	18	18.2	78	78.8
	초등학생 부모	114	5	4.5	46	41.4	60	54.1
	청소년 부모	143	4	3.1	32	24.4	95	72.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4	2.3	49	27.8	123	69.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4	3.9	21	20.4	78	75.7
	구도심	658	6	2.5	80	33.6	152	63.9
	신도심	923	5	3.3	39	25.8	107	70.9

<표 1-Ⅱ-75>의 '학교의 운영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편리하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6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미취학아동 학부모 78.8%(78명), 청소년 부모 72.5%(95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69.9%(123명), 초등학생 부모 54.1%(6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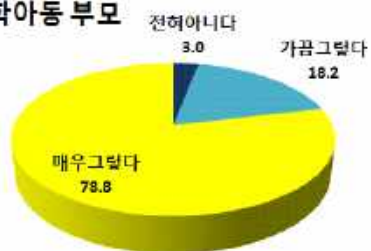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75.7%), 신도심(70.9%), 구도심(63.9%)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11.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전체



미취학아동 부모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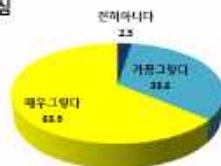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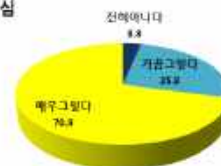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69] 학교의 운영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편리하다.

<표 1-Ⅱ-76>

5-25. 집 근처에 경제적이고 알맞은 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544	13	2.5	118	22.7	389	74.8
응 답 자	초등학생	-	-	-	-	-	-	-
	중·고등학생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미취학아동 부모	103	1	1.0	11	11.3	85	87.6
	초등학생 부모	114	1	0.9	36	32.7	73	66.4
	청소년 부모	143	10	7.6	36	27.5	85	64.9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	0.5	35	19.2	146	80.2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8	7.9	19	18.8	74	73.3
	구도심	658	3	1.3	58	24.3	178	74.5
	신도심	923	2	1.3	34	22.4	116	76.3

<표 1-Ⅱ-76>의 '집 근처에 경제적이고 알맞은 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미취학아동 학부모 87.6%(85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80.2%(146명), 초등학생 부모 66.4%(73명), 청소년 부모 64.9%(8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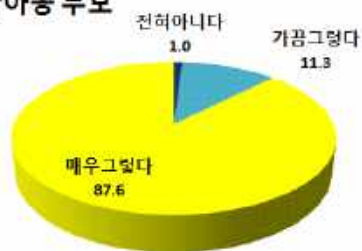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76.3%), 구도심(74.5%), 읍·면(73.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읍·면보다 3.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전체



미취학아동 부모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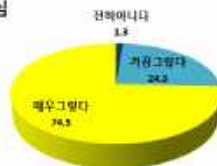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음·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II-70] 집 근처에 경제적이고 알맞은 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표 1-Ⅱ-77>

5-26. 우리 지역사회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에게 대안적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84	16	11.9	48	35.6	71	52.6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중·고등학생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미취학아동 부모	-	-	-	-	-	-	-
	초등학생 부모	-	-	-	-	-	-	-
	청소년 부모	-	-	-	-	-	-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6	11.9	48	35.6	71	52.6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5	20.8	4	16.7	15	62.5
	구도심	658	8	10.8	31	41.9	35	47.3
	신도심	923	3	11.5	11	42.3	12	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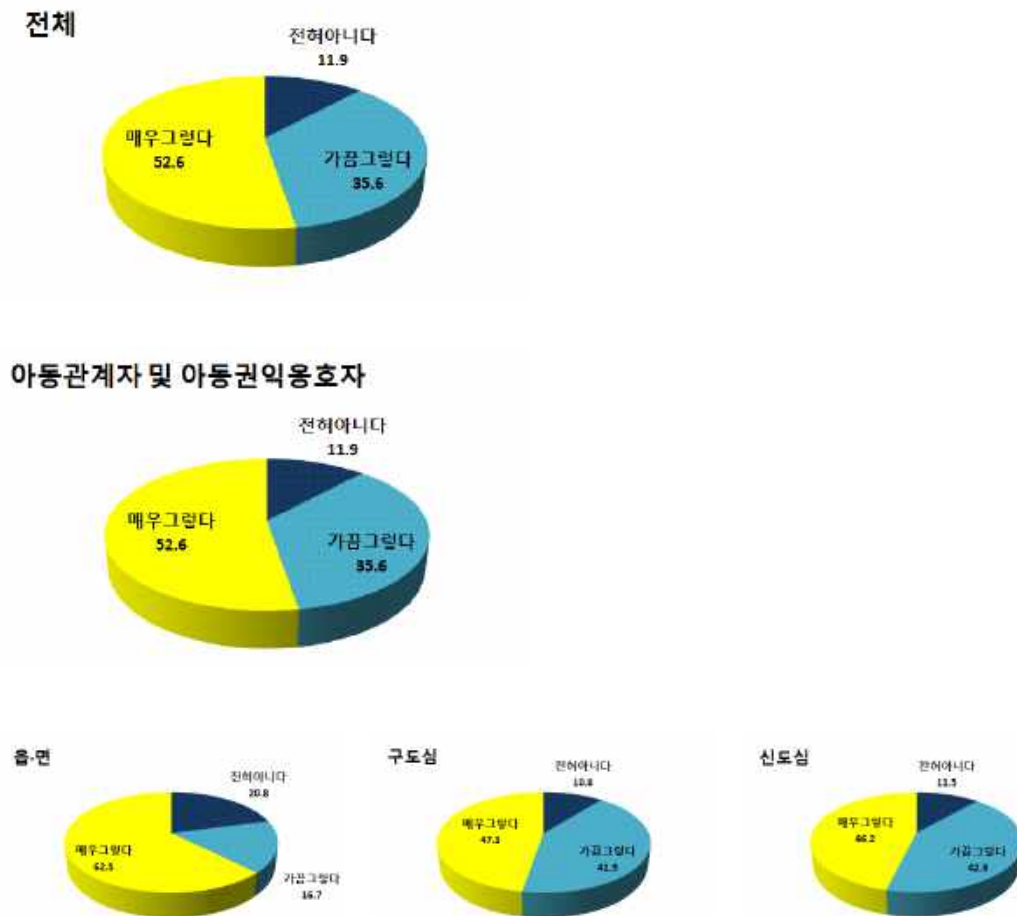
<표 1-Ⅱ-77>의 '우리 지역사회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에게 대안적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를 제공한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52.6%(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62.5%), 구도심(47.3%), 신도심(46.2%)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신도심보다 16.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71] 우리 지역사회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에게 대안적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 (6) 나의 주거환경은 어떤가요?

<표 1-Ⅱ-78>

6-1. 아동은 우리 집에서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6	0.3	100	5.1	1840	94.6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0	0.0	7	1.4	486	98.6
	중·고등학생	922	0	0.0	34	3.8	860	96.2
	학교 밖 아동	29	1	4.2	3	12.5	20	83.3
	미취학아동 부모	103	1	1.0	8	8.2	89	90.8
	초등학생 부모	114	1	0.9	8	7.0	105	92.1
	청소년 부모	143	0	0.0	6	4.2	136	95.8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3	1.7	34	18.8	144	79.6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0	0.0	17	4.6	350	95.4
	구도심	658	4	0.6	43	6.7	598	92.7
	신도심	923	2	0.2	33	3.7	864	96.1

<표 1-Ⅱ-78>의 '아동은 우리 집에서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의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9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98.6%(486명), 중·고등학생 96.2%(860명), 청소년 부모 95.8%(136명), 초등학생 부모 92.1%(105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90.8%(89명), 학교 밖 아동 83.3%(20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79.6%(14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96.1%), 읍·면(95.4%), 구도심(92.7%)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구도심보다 3.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72] 아동은 우리 집에서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표 1-Ⅱ-79>

6-2. 아동은 집이나 집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52	2.8	267	14.2	1564	83.1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7	1.5	56	11.9	409	86.7
	중·고등학생	922	28	3.2	96	11.1	738	85.6
	학교 밖 아동	29	3	13.0	2	8.7	18	78.3
	미취학아동 부모	103	4	4.2	24	25.3	67	70.5
	초등학생 부모	114	2	1.8	29	25.4	83	72.8
	청소년 부모	143	7	5.0	28	20.1	104	74.8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	0.6	32	18.0	145	81.5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11	3.1	41	11.4	307	85.5
	구도심	658	23	3.7	102	16.3	500	80.0
	신도심	923	17	2.0	120	13.9	728	84.2

<표 1-Ⅱ-79>의 '아동은 집이나 집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8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86.7%(409명), 중·고등학생 85.6%(738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81.5%(145명), 학교 밖 아동 78.3%(18명), 청소년 부모 74.8%(104명), 초등학생 부모 72.8%(83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70.5%(6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85.5%), 신도심(84.2%), 구도심(80.0%)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5.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전체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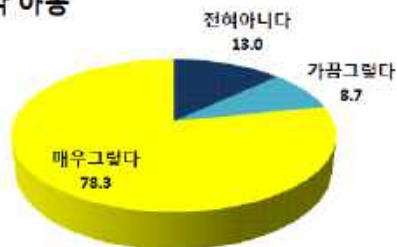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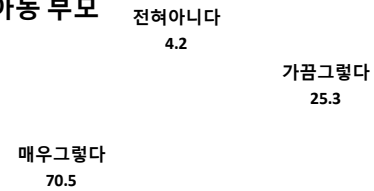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미취학아동 부모



초등학생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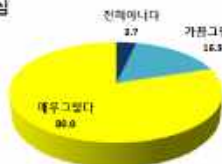
청소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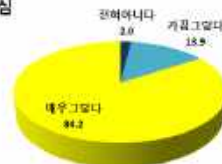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73] 아동은 집이나 집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표 1-Ⅱ-80>

6-3. 아동은 집에서 몸이나 손을 씻을 때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9	0.5	93	4.8	1844	94.8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3	0.6	7	1.4	477	97.9
	중·고등학생	922	3	0.3	33	3.7	862	96.0
	학교 밖 아동	29	1	4.3	3	13.0	19	82.6
	미취학아동 부모	103	1	1.0	7	7.0	92	92.0
	초등학생 부모	114	0	0.0	10	8.8	104	91.2
	청소년 부모	143	0	0.0	5	3.5	137	96.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	0.5	28	15.4	153	84.1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3	0.8	13	3.5	355	95.7
	구도심	658	3	0.5	46	7.1	596	92.4
	신도심	923	3	0.3	30	3.4	862	96.3

<표 1-Ⅱ-80>의 '아동은 집에서 몸이나 손을 씻을 때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9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97.9%(477명), 청소년 부모 96.5%(137명), 중·고등학생 96.0%(862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92.0%(92명), 초등학생 부모 91.2%(104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84.1%(153명), 학교 밖 아동 82.6%(1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96.3%), 읍·면(95.7%), 구도심(92.4%)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구도심보다 3.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전체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미취학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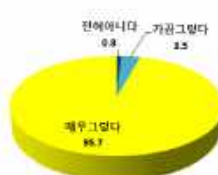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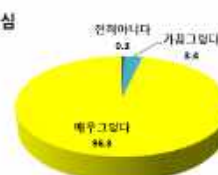
음·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74] 아동은 집에서 몸이나 손을 씻을 때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표 1-Ⅱ-81>

6-4. 우리 집 공기는 유해하지 않으며 매연과 공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82	4.6	381	21.3	1323	74.1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10	2.3	53	12.2	370	85.5
	중·고등학생	922	30	3.7	141	17.5	634	78.8
	학교 밖 아동	29	4	18.2	5	22.7	13	59.1
	미취학아동 부모	103	10	10.2	37	37.8	51	52.0
	초등학생 부모	114	6	5.3	44	38.6	64	56.1
	청소년 부모	143	3	2.2	34	24.6	101	73.2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9	10.8	67	38.1	90	51.1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15	4.4	54	16.0	269	79.6
	구도심	658	34	5.7	148	24.6	419	69.7
	신도심	923	30	3.7	167	20.6	614	75.7

<표 1-Ⅱ-81>의 '우리 집 공기는 유해하지 않으며 매연 과 공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7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85.5%(370명), 중·고등학생 78.8(634명), 청소년 부모 73.2%(101명), 학교 밖 아동 59.1%(13명), 초등학생 부모 56.1%(64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52.0%(51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51.1%(9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읍·면(79.6%), 신도심 (75.7%), 구도심(69.7%)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읍·면이 구도심보다 9.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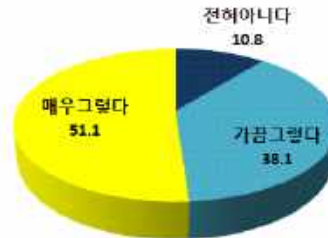


단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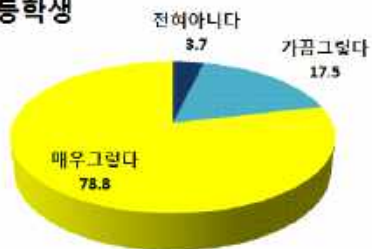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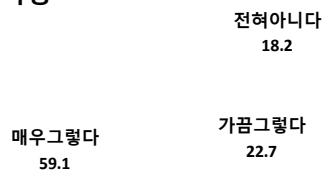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미취학아동 부모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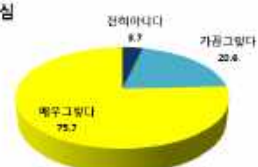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75] 우리 집 공기는 유해하지 않으며 매연과 공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

<표 1-Ⅱ-82>

6-5. 우리 집에는 전기조명시설이 갖춰져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11	0.6	105	5.5	1788	93.9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1	0.2	13	2.8	454	97.0
	중·고등학생	922	7	0.8	45	5.1	826	94.1
	학교 밖 아동	29	2	8.7	3	13.0	18	78.3
	미취학아동 부모	103	0	0.0	7	6.9	95	93.1
	초등학생 부모	114	0	0.0	8	7.0	106	93.0
	청소년 부모	143	0	0.0	5	3.5	137	96.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	0.6	24	13.6	152	85.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1	0.3	19	5.3	340	94.4
	구도심	658	4	0.6	44	7.0	581	92.4
	신도심	923	5	0.6	38	4.3	837	95.1

<표 1-Ⅱ-82>의 '우리 집에는 전기조명시설이 갖춰져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9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97.0%(454명), 청소년 부모 96.5%(137명), 중·고등학생 94.1%(826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93.1%(95명), 초등학생 부모 93.0%(106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85.9%(152명), 학교 밖 아동 78.3%(1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95.1%), 읍·면(94.4%), 구도심(92.4%)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구도심보다 2.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76] 우리 집에는 전기조명시설이 갖춰져 있다.

<표 1-Ⅱ-83>

6-6. 우리 집은 날씨와 상관없이 지낼만한 곳이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14	0.7	145	7.5	1775	91.8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5	1.0	15	3.1	465	95.9
	중·고등학생	922	4	0.4	67	7.5	818	92.0
	학교 밖 아동	29	2	8.3	7	29.2	15	62.5
	미취학아동 부모	103	2	2.0	9	8.8	91	89.2
	초등학생 부모	114	1	0.9	9	7.9	104	91.2
	청소년 부모	143	0	0.0	8	5.6	134	94.4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0	0.0	30	16.9	148	83.1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3	0.8	34	9.2	332	90.0
	구도심	658	5	0.8	53	8.3	583	91.0
	신도심	923	6	0.7	51	5.7	831	93.6

<표 1-Ⅱ-83>의 '우리 집은 날씨와 상관없이 지낼만한 곳이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9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95.9%(465명), 청소년 부모 94.4%(134명), 중·고등학생 92.0%(818명), 초등학생 부모 91.2%(104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89.2%(91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83.1%(148명), 학교 밖 아동 62.5%(1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93.6%), 구도심(91.0%), 읍·면(90.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읍·면보다 3.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전체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미취학아동 부모



초등학생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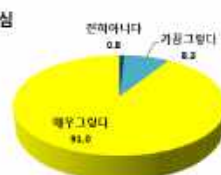
청소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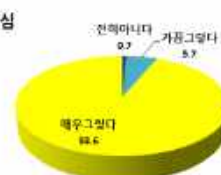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77] 우리 집은 날씨와 상관없이 지낼만한 곳이다.

<표 1-Ⅱ-84>

6-7. 우리 집은 경제적이며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23	1.3	198	10.8	1605	87.9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7	1.6	20	4.5	417	93.9
	중·고등학생	922	9	1.1	86	10.3	739	88.6
	학교 밖 아동	29	2	9.1	4	18.2	16	72.7
	미취학아동 부모	103	1	1.0	11	11.0	88	88.0
	초등학생 부모	114	3	2.7	16	14.2	94	83.2
	청소년 부모	143	0	0.0	16	11.5	123	88.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1	0.6	45	25.9	128	73.6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8	2.3	40	11.4	302	86.3
	구도심	658	6	1.0	69	11.5	527	87.5
	신도심	923	9	1.1	80	9.5	750	89.4

<표 1-Ⅱ-84>의 '우리 집은 경제적이며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8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93.9%(417명), 중·고등학생 88.6%(739명), 청소년 부모 88.5%(123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88.0%(88명), 초등학생 부모 83.2%(94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73.6%(128명), 학교 밖 아동 72.7%(1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89.4%), 구도심(87.5%), 읍·면(86.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읍·면보다 3.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전체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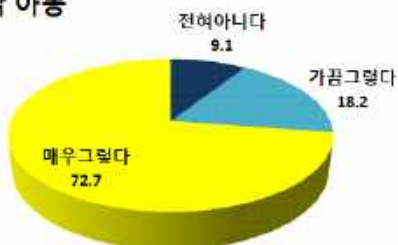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미취학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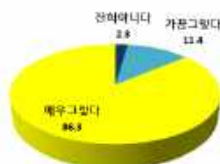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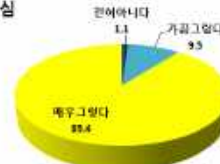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78] 우리 집은 경제적이며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다.

<표 1-Ⅱ-85>

6-8. 우리 집에는 아동을 위한 공간(예: 놀이, 공부, 수면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19	1.0	196	10.2	1707	88.8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4	0.8	21	4.4	456	94.8
	중·고등학생	922	8	0.9	74	8.3	807	90.8
	학교 밖 아동	29	1	4.3	5	21.7	17	73.9
	미취학아동 부모	103	0	0.0	15	14.7	87	85.3
	초등학생 부모	114	1	0.9	17	15.0	95	84.1
	청소년 부모	143	2	1.4	19	13.4	121	85.2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3	1.7	45	26.2	124	72.1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3	0.8	41	11.2	323	88.0
	구도심	658	6	1.0	81	12.8	544	86.2
	신도심	923	10	1.1	66	7.4	811	91.4

<표 1-Ⅱ-85>의 '우리 집에는 아동을 위한 공간(예: 놀이, 공부, 수면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8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94.8%(456명), 중·고등학생 90.8%(807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85.3%(87명), 청소년 부모 85.2%(121명), 초등학생 부모 84.1%(95명), 학교 밖 아동 73.9%(17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72.1%(12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91.4%), 읍·면(88.0%), 구도심(86.2%)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구도심보다 5.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그림 1-Ⅱ-79] 우리 집에는 아동을 위한 공간(예: 놀이, 공부, 수면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있다.

&lt;표 1-Ⅱ-86&gt;

6-9. 우리 집은 아동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전체		1994	7	0.4	144	7.5	1770	92.1
응 답 자	초등학생	499	0	0.0	9	1.8	480	98.2
	중·고등학생	922	3	0.3	54	6.2	817	93.5
	학교 밖 아동	29	1	4.3	8	34.8	14	60.9
	미취학아동 부모	103	1	1.0	7	6.9	94	92.2
	초등학생 부모	114	0	0.0	15	13.3	98	86.7
	청소년 부모	143	0	0.0	9	6.3	134	93.7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84	2	1.1	42	23.7	133	75.1
학교 소재지/ 거주지	읍·면	375	1	0.3	24	6.5	343	93.2
	구도심	658	3	0.5	63	9.9	569	89.6
	신도심	923	3	0.3	47	5.3	831	94.3

<표 1-Ⅱ-86>의 '우리 집은 아동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균 9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98.2%(480명), 청소년 부모 93.7%(134명), 중·고등학생 93.5%(817명), 미취학아동 학부모 92.2%(94명), 초등학생 부모 86.7%(98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75.1%(133명), 학교 밖 아동 60.9%(1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신도심(94.3%), 읍·면(93.2%), 구도심(89.6%)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도심이 구도심보다 4.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전체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미취학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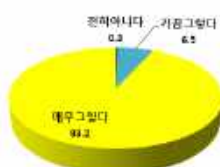
초등학생 부모



청소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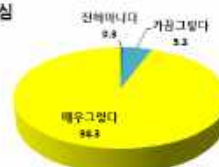
읍·면



구도심



신도심



[그림 1-Ⅱ-80] 우리 집은 아동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 Ⅲ.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익산시 아동친화도 조사는 익산시의 아동친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익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 1,014명과 부모 304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52명, 전체 1,994명을 대상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개발한 6개 영역(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생활환경)의 아동친화도 평가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교육환경과 가정생활환경 영역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참여와 시민권 영역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가정생활환경에서는 아동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친화도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참여와 시민권, 보건과 사회서비스에서는 부모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부모들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아동친화도를 보통이나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하여 아동이 안전한 환경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와 시민권,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의 평가가 다른 대상에 비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영역보다는 참여와 시민권이나 놀이와 여가 영역, 안전과 보호 영역을 상대적으로 친화도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아동을 위한 참여와 시민권, 놀이와 여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방안 도입이 요구된다.

거주지역에 따른 영역 평가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구도심 지역의 아동친화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 지역에 따른 아동 관련 환경이나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1. 놀이와 여가

아동친화도 조사에서 '놀이와 여가' 영역의 조사 결과의 전체 비교값은 다음 <표 1-Ⅲ-1>과 같다. 놀이와 여가 영역은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아동 관련 시설 및 환경이 잘 조성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영역이다.

놀이와 여가 영역에 대한 아동친화도 점수는 평균 2.42점으로 아동과 성인 모두 보통 수준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른 5개 영역과 비교했을 때에는 친화도 순위가 4순위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친화도가 낮은 편이었다.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다'[1-2]의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63.6%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1-Ⅲ-1> 놀이와 여가 문항별 비교

구분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1-1	36	1.8	771	39.4	1148	58.7
1-2	71	3.8	617	32.7	1200	63.6
1-3	439	35.3	453	36.4	352	28.3
1-4	108	6.0	741	41.3	944	52.6
1-5	194	11.3	1003	58.5	518	30.2
1-6	145	8.9	705	43.1	784	48.0
1-7	116	6.2	585	31.3	1169	62.5

반면에 부정적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우리 동네 놀이터는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도 이용할 수 있다'[1-3]로 '매우 그렇다'가 28.3%에 그쳤다. 특히 청소년 부모나 미취학아동 부모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다. 또한 구도심 지역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다른 거주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이어서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여하고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종교 행사나 이벤트, 축제가 열린다'[1-5]라는 문항의 '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율도 30.2%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 문항에서는 학교밖 청소년, 중·고등학생과 청소년 부모가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장애 아동도 사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의 개선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장애 아동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기존 놀이 공간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로 놀이 공간의 분포와 현황을 분석해서 놀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한 배려도 요구된다. 둘째,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문화, 종교 행사나 이벤트, 축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청소년과 청소년 부모가 이 영역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행사에 대한 홍보 및 행사의 다각화를 통해 청소년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밖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청소년이나 미취학 학부모, 청소년 학부모의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홍보를 통해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2. 참여와 시민권

‘참여와 시민권’ 영역의 조사 결과의 전체 비교값은 다음 <표 1-Ⅲ-2>과 같다. 참여와 시민권 영역은 지역사회 의사결정과 서비스 이용, 아동권리 등에서 아동과 부모의 참여와 인식이 이루어지는 정도를 확인하는 영역이다.

<표 1-Ⅲ-2> 참여와 시민권 문항별 비교

구분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2-1	419	29.6	765	54.1	230	16.3
2-2	1025	62.8	496	30.4	110	6.7
2-3	973	66.7	374	25.6	112	7.7
2-4	805	55.3	505	34.7	145	10.0
2-5	291	17.1	876	51.5	535	31.4
2-6	209	13.0	773	48.0	629	39.0

참여와 시민권 영역에 대한 아동친화도 점수는 평균 1.81점으로 아동과 성인 모두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른 5개 영역과 비교했을 때에는 친화도 순위가 6순위로 가장 아동친화도가 낮은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책이나 매체를 통한 아동권리 인식 경험[2-5], 인터넷을 이용한 지역 소식에 대한 접근성[22-6]은 80% 이상이 보통 이상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지역의회나 시장은 아동의 생활이나 지역에 대한 아동 및 부모의 의견을 묻는다’[2-3]라는 문항에서는 66.7%가 ‘전혀 아니다’로 응답하였는데, 학교급과 상관없이 아동 모두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았고 부모 중에는 미취학아동과 청소년 부모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지역의 의사결정 참여[2-2]와 아동대상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의견개진[2-4]에서도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았다. [2-2]문항은 자녀연령과 상관없이 60% 이상의 부모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거주 지역별 비교에서는 구도심과 신도심이 읍면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아동과 부모에게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이나 아동 관련 프로그램

램 등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초등학생 학부모보다 미취학아동이나 중·고등학생 부모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았고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것은 학교를 통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평가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자녀가 어리거나 학교급이 높은 경우에 참여 기회가 더 없는 것으로 평가했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제도뿐 아니라 시행을 계획 중인 아동의회 등을 활성화하고 아동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대상으로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3. 안전과 보호

‘안전과 보호’ 영역의 조사 결과의 전체 비교값은 다음 <표 1-Ⅲ-3>과 같다. 안전과 보호 영역은 지역 아동이 여러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고 안전을 위한 지원체계 접근성, 외부 활동이나 이동에 있어서의 안전이 잘 조성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영역이다.

안전과 보호 영역에 대한 아동친화도 점수는 평균 2.44점으로 아동과 성인 모두 보통 수준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른 5개 영역과 비교했을 때에는 친화도 순위가 3순위로 다른 영역과 비교해서는 중간 정도의 순위를 나타냈다.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아동은 위험을 느낄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3-1]라는 문항에서는 76.8%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폭력집단으로부터의 안전[3-2], 약물로부터의 안전[3-6]에서도 60%이상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와 달리 자전거 이용 안전[3-7]와 대중교통 수단 이용 안전[3-9]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다른 문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에서는 구도심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긍정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유괴나 납치로부터의 안전[3-4], 따돌림과 괴롭힘으로부터의 안전[3-5]도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50%에 가까웠지만 다른 문항과 비교했을 때 부정적 응답 비율이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괴나 납치로부터의 안전[3-4]에 대해서는 미취학아동 부모, 거주 지역으로는 신도심에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어서 따돌림과 괴롭힘으로부터의 안전[3-5]에 관한 문항에서는 초등학생 부모나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그리고 거주 지역으로는 구도심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표 1-Ⅲ-3> 안전과 보호 문항별 비교

구분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3-1	33	1.7	420	21.5	1499	76.8
3-2	147	8.6	434	25.4	1131	66.1
3-3	187	10.3	555	30.5	1078	59.2
3-4	283	16.1	643	36.5	836	47.4
3-5	277	15.6	606	34.2	889	50.2
3-6	198	11.5	386	22.4	1141	66.1
3-7	241	13.3	821	45.4	745	41.2
3-8	107	7.0	587	38.3	837	54.7
3-9	202	11.3	804	45.0	782	43.7
3-10	176	10.3	486	28.3	1055	61.4
3-11	195	12.7	561	36.5	780	50.8
3-12	119	7.5	562	35.5	904	57.0
3-13	222	14.7	630	41.6	663	43.8
3-14	114	14.9	274	35.9	375	49.1
3-15	48	7.3	254	38.4	359	54.3
3-16	8	5.2	69	44.5	78	50.3

이러한 결과는 첫째, 전반적인 폭력이나 약물 등의 위험 요소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자녀의 연령이나 지역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의 유괴나 납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의 연령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시행되는 안전체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식개선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내의 따돌림과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수단 이용 안전에 대한 우려도 확인할 수 있어 도로와 교통수단 이용 안전에 관련된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지역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이나 보행에 위협이 되는 공사나 장애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나 버스 운행 업체나 기사들을 대상으로 아동친화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를 장려할만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4. 보건과 사회서비스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의 조사 결과의 전체 비교값은 다음 <표 1-Ⅲ-4>과 같다.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과 건강 관련 사회서비스의 접근성을 확인하는 영역이다.

<표 1-Ⅲ-4> 보건과 사회서비스 문항별 비교

구분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4-1	252	17.1	670	45.6	548	37.3
4-2	220	12.4	578	32.5	982	55.2
4-3	363	22.2	670	40.9	605	36.9
4-4	344	21.9	705	44.9	521	33.2
4-5	137	8.1	491	29.0	1068	63.0
4-6	573	33.6	780	45.8	350	20.6
4-7	84	4.5	337	18.1	1445	77.4
4-8	70	3.9	354	19.8	1368	76.3
4-9	3	0.6	52	9.8	473	89.6
4-10	21	5.5	205	53.5	157	41.0
4-11	48	10.6	234	51.5	172	37.9
4-12	45	10.2	238	54.0	158	35.8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아동친화도 점수는 평균 2.38점으로 아동과 성인 모두 보통 수준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른 5개 영역과 비교했을 때에는 친화도 순위가 4순위로 다른 영역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친화도가 낮은 편이었다.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4-9], ‘우리 동네에는 아플 때 진료 받을 병원이 있다’[4-7] 등의 문항에서는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아동의 생존권 관련한 여건이 잘 갖추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우리 동네에는 매연이나 악취가 없고 깨끗하다’[4-6], ‘우리 동네에는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다’[4-3], 우리 동네에는 쓰레기가 방치돼 있지 않으며, 더러운 오염수가 흘러 다니지 않는다’[4-4]의 문항에서는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4-6]은 신도심, [4-3]과 [4-4]에서는 구도심에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인 보건과 사회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매연이나 악취, 위생 상태나 보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지역의 청결이나 환경 상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아동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인식에서 청소년과 아동 및 청소년 부모의 부정적 평가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고, 아동을 돌봐줄 기관이나 사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초등학생 부모의 평가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부정적인 편이었다. 이것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적절한 정신건강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5. 교육환경

‘교육환경’ 영역의 조사 결과의 전체 비교값은 다음 <표 1-Ⅲ-5>과 같다. 교육환경 영역은 지역의 학교교육 시설, 학교교육 과정 및 다양한 프로그램, 학교환경 등이 잘 조성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영역이다.

교육환경 영역에 대한 아동친화도 점수는 평균 2.69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른 5개 영역과 비교했을 때에는 친화도 순위가 2순위로 다른 영역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친화도가 높은 편이었다.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항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 시설이나 차별없는 교육, 교사와 아동의 관계, 교육 내용,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가운데서 부정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항은 ‘학교에서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해 배운 적이 있다’[5-21], ‘지역사회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에게 대안적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를 제공한다’[5-26]이었다. 현재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은 학교교육에서 의무화 되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 부모의 경우에 ‘전혀 아니다’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아동권리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식이 자리잡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인 권리교육을 지양하고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인식과 홍보를 강화할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생조례나 학생권리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아동권리교육과 분리된 교육이 아니라 함께 연계하는 교육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권리교육이나 홍보 방안도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1-Ⅲ-5> 교육환경 문항별 비교

구분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5-1	25	1.3	33	1.7	1918	97.1
5-2	19	1.0	201	10.3	1728	88.7
5-3	101	5.6	607	33.6	1100	60.8
5-4	61	3.4	504	28.0	1235	68.6
5-5	123	7.2	442	26.0	1134	66.7
5-6	53	3.0	475	26.9	1240	70.1
5-7	31	1.7	479	26.5	1299	71.8
5-8	49	2.7	551	30.2	1223	67.1
5-9	35	1.9	358	19.2	1468	78.9
5-10	27	1.4	295	15.6	1570	83.0
5-11	149	8.2	609	33.5	1058	58.3
5-12	48	2.9	336	20.3	1275	76.9
5-13	59	3.8	354	22.6	1153	73.6
5-14	111	6.9	395	24.5	1108	68.6
5-15	72	4.4	240	14.8	1311	80.8
5-16	126	8.0	327	20.8	1122	71.2
5-17	113	7.1	533	33.4	952	59.6
5-18	94	6.0	495	31.3	990	62.7
5-19	37	2.0	441	23.4	1403	74.6
5-20	28	1.5	195	10.1	1700	88.4
5-21	231	19.0	361	29.8	621	51.2
5-22	41	3.2	224	17.7	1004	79.1
5-23	9	0.7	94	7.0	1236	92.3
5-24	16	3.1	145	28.0	356	68.9
5-25	13	2.5	118	22.7	389	74.8
5-26	16	11.9	48	35.6	71	52.6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의 옹호자만을 대상으로 한 문항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질

문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이나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교육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6. 가정생활환경

‘가정생활환경’ 영역의 조사 결과의 전체 비교값은 다음 <표 1-Ⅲ-6>과 같다. 가정생활환경 영역은 아동의 주거 공간, 식수, 공기 등 전반적인 생활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영역이다.

<표 1-Ⅲ-6> 가정생활환경 문항별 비교

구분	전혀아니다		가끔그렇다		매우그렇다	
	명	%	명	%	명	%
6-1	6	0.3	100	5.1	1840	94.6
6-2	52	2.8	267	14.2	1564	83.1
6-3	9	0.5	93	4.8	1844	94.8
6-4	82	4.6	381	21.3	1323	74.1
6-5	11	0.6	105	5.5	1788	93.9
6-6	14	0.7	145	7.5	1775	91.8
6-7	23	1.3	198	10.8	1605	87.9
6-8	19	1.0	196	10.2	1707	88.8
6-9	7	0.4	144	7.5	1770	92.1

가정생활환경 영역에 대한 아동친화도 점수는 평균 2.88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다른 5개 영역과 비교했을 때에도 친화도 순위가 1순위로 가장 아동친화도가 높은 영역이었다.

식수나 전기, 안전한 공간 등에 관한 문항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80%가 넘게 나타나 가정생활 여건은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가장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은 문항은 ‘아동의 집 공기는 유해하지 않으며 매연과 공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6-4]라는 문항이었는데, 학교밖 아동,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미취학아동 부모 등이 ‘전혀 아니다’라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1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공기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 내의 환경오염과 공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소수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주거환경이나 공중화장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도 있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체계나 취약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이미화, 이윤진, 박상신(2018). 한국 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 구축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icef.co.kr/>



## 2부 시민참여조사





## 2부 시민 참여 조사

### ‘아동이 행복한 익산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 보고 자료

#### I. 시민참여조사의 개요

##### ○ 시민참여조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익산시의 아동친화도시 이행을 위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중점사업을 식별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체계 가이드라인(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16)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사업을 분석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사업을 식별함
- 이에, 아동친화도 조사의 분석결과에 기초로 하여 의제를 선정,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행하였음. 아동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방향성 설정 및 구체적인 정책 과업 마련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관점이 지방정부의 행정에 부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시민참여조사의 범위

-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업범위를 설정함. 시민참여조사는 원탁토론 방식을 통하여 보다 질적인 조사 방법으로 직접적인 의사개진을 청취함으로써 익산시 아동행복 실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1) 지역사회 아동, 보호자, 아동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설계
- 2) 청취된 의견 및 아동의 요구수준에 대한 질적 분석

##### ○ 시민참여조사인 ‘아동이 행복한 익산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의 절차



[그림 2-I-1] 아동이 행복한 익산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의 절차

-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업범위를 설정함. 시민참여조사는 원탁토론 방식을 통하여 보다 질적인 조사 방법으로 직접적인 의사개진을 청취함으로써 익산시 아동행복 실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1) 지역사회 아동, 보호자, 아동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설계
- 2) 청취된 의견 및 아동의 요구수준에 대한 질적 분석

- 시민참여조사인 '아동이 행복한 익산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의 의제 개발 단계는 10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행됨. 아동친화도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연구진이 1차로 구성하였으며, 자문회의 및 전담부서 논의를 통하여 최종확정이 됨
- '아동이 행복한 익산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의 시민 구성은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소요되었으며, 주요 지역신문사 등 언론 및 시청 홈페이지,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및 접수를 통하여 이루어짐. 참여 대상은 아동, 보호자, 아동관계자 등이었음
- 원탁토론을 통한 의견수렴은 11월 26일 실행되었으며, 아동, 보호자, 아동관계자 등 100인이 참석하였음
- 원탁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분석 결과물을 통하여 시민참여조사에 있어 의제의 구조화 및 분석, 제언이 이루어짐

## II. 시민참여조사의 실행

### 1. 아동의견 수렴을 위한 원탁토론 준비

#### ○ 운영설계

- 시민참여조사의 원탁토론은 대부분의 참가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주의집중 및 체력적 특징을 고려하여 토론의제 선정 및 모집, 전체 일정, 원탁토론 운영진 구성 및 교육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설계를 수행함

#### ○ 참여자 모집

- 참여자 정의 및 모집: 원탁토론의 참가자는 아동친화도 조사의 표본단위와 동일하게,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호자 및 아동관계자(아동 관련 기관과 시설의 종사자)로 구성하고 참가자 모집 일련의 과정은 전담부서에서 실시함. 참여자 모집은 전담부서에서 구청의 홈페이지, 관내 기관 및 시설, 시청에서 활동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위원회의 구성원 등을 통하여 모집함

## 2. 아동의견 수렴을 위한 원탁토론의 운영

### ○ 참여자 현황

- 참가의사를 밝힌 대상은 103명이었으며, 현장접수까지 포함한 실 참여인원은 100명이었음

<표 2-II-1> '아동이 행복한 익산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참석자 현황

연번	구분	신청인원(명)	참여인원(명)
1	아동	초등	28
		중등	39
		고등	4
2	보호자	21	3
3	아동관계자	11	30
계		103	100

※ 정현울 익산시장, 박철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의원장, 유기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장 참석

### ○ '아동이 행복한 익산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의 일정

- **(운영진 구성과 교육)** 시민참여조사의 원탁토론은 연구진 및 원탁토론 진행 전문가, 관련 전공자들에 의하여 진행됨. 우선 관련 전공자로 원탁별 촉진자로 섭외한 후 연구진 및 원탁토론 진행 전문가가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운영진에 대해서는 원탁토론이 수행될 내부 장소 및 접수에 대한 사전교육과 역할 분담을 실시함. 아울러, 원탁토론의 장소 구성과 대피동선에 대해서도 사전 파악하도록 함
- **(자유토론)** 시민참여조사의 원탁토론에서는 개인별로 관심있는 의제에 대해서 전문투표기를 활용하여 의제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우선적으 알아봄. 총 10개 원탁에서 원탁별로 6개 의제를 가지고 자유토론을 진행하되, 원탁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시급도가 높은 의제에 대한 논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자유토론을 진행함

## Ⅲ. 시민참여조사의 내용과 구성

- **(의제개발)** 익산시의 시민참여조사인 원탁토론 토론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의제개발 절차를 진행함. 의제개발의 원자료는 아동친화도 조사의 결과에 기반하여 취약한 내용을 연구진이 1차적으로 선별하여 의제개발을 위한 사전검토자료

및 분석된 의제개발 검토자료에 기초하여 구성된 의제 초안을 마련함. 이후 자문위원과 전담부서의 검토를 통해서 최종 의제로 선정함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16:00 ~ 18:30

장소: 원광보건대학교 WM를 4층 컨퍼런스 홀

		시간	내용
1부	참가자 등록	15:30-16:00	· 접수 및 원탁 안내
	개회식	16:00-16:05	· 개회 · 인사말(정현을 익산시장)
	사업소개	16:05-16:10	· 아동친화도시 사업소개 및 경과보고
	사진촬영	16:10-16:20	· 사진촬영
2부	소개하기	16:20-16:30	· 서로 소개하기 · 토론의제 소개하기
	제 1 토론	16:30-17:10	·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의제 토론
	제 2 토론	17:10-17:50	·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생활 환경 의제 토론
	종합토론	17:50-18:20	· 종합 토론
폐회식		18:20-18:30	· 폐회

<표 2-Ⅲ-1> 의제개발을 위한 논의 과정

6대 영역	의제 논의를 위한 문제 인식	의제 초안
놀이와 여가	·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 및 여가활동(다양한 행사 등) 부족	· 누구나 놀이공간을 이용하고 여가활동(다양한 행사 등)을 더 잘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참여와 시민권	· 지역사회내 아동청소년의 의사표현 기회 및 참여 부족	·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기회가 있나요? · 의견 표현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실제 반영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전과 보호	· 지역사회 내 보호(도보나 대중교통 이용, 흡연, 따돌림 등) 취약	· 동네에서 이동할 때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 보다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에 초점 고려)

6대 영역	의제 논의를 위한 문제 인식	의제 초안
보건과 사회서비스	· 지역사회 내 건강 및 돌봄(아동정신건강서비스, 돌봄 등) 정보 부족 및 지역사회 환경오염 심각성 인식	· 우리 동네에서 아동 당사자 또는 아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내가 찾아가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다양한 시설이나 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육환경	·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 부족 인식	·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배운 적이 있나요? ·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해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가정 (생활)환경	· 매연과 공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	· 우리 지역사회에서 깨끗한 공기와 자연환경(나무, 산 등)을 접할 수 있나요? · 보다 깨끗한 공기와 자연환경을 쉽게 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 ○ (선정의제) 시민참여조사를 위한 선정의제

&lt;표 2-Ⅲ-2&gt; 시민참여조사를 위한 선정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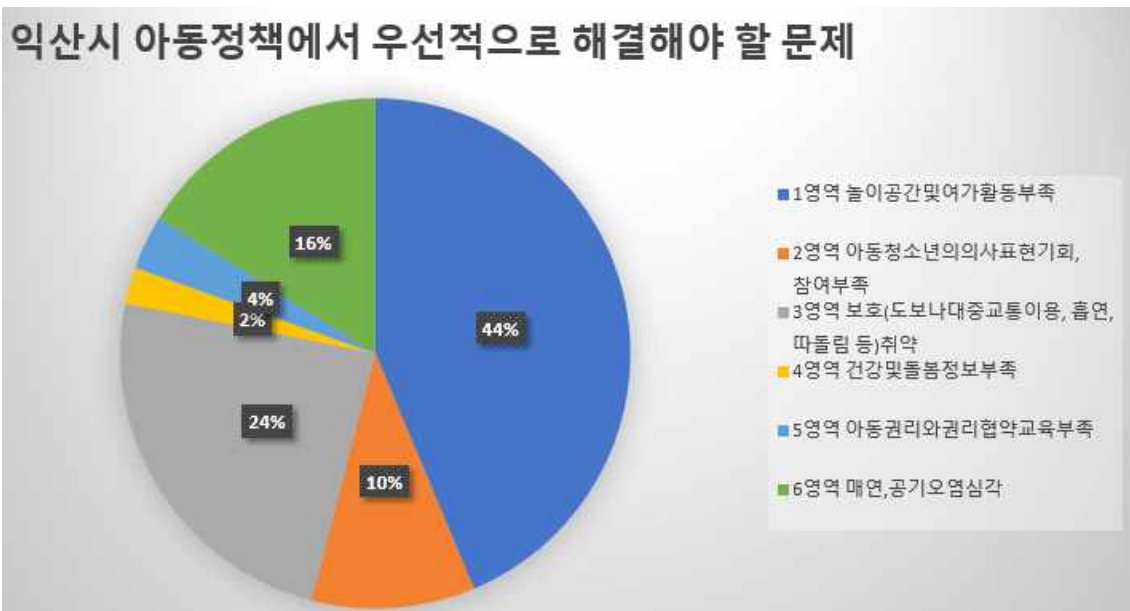
6대 영역	의제 초안	선정의제
놀이와 여가	· 누구나 놀이공간을 이용하고 여가활동(다양한 행사 등)을 더 잘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익산에는 어떤 놀이공간과 행사가 필요할까요?
참여와 시민권	·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기회가 있나요? · 의견 표현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실제 반영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익산시에 내 생각을 어떻게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을까요?
안전과 보호	· 동네에서 이동할 때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 보다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에 초점 고려)	아이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건과 사회서비스	· 우리 동네에서 아동 당사자 또는 아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내가 찾아가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다양한 시설이나 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죠?

6대 영역	의제 초안	선정의제
교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배운 적이 있나요?</li> <li>·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해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li> </ul>	아동권리를 알고 이뤄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정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지역사회에서 깨끗한 공기와 자연환경(나무, 산 등)을 접할 수 있나요?</li> <li>· 보다 깨끗한 공기와 자연환경을 쉽게 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li> </ul>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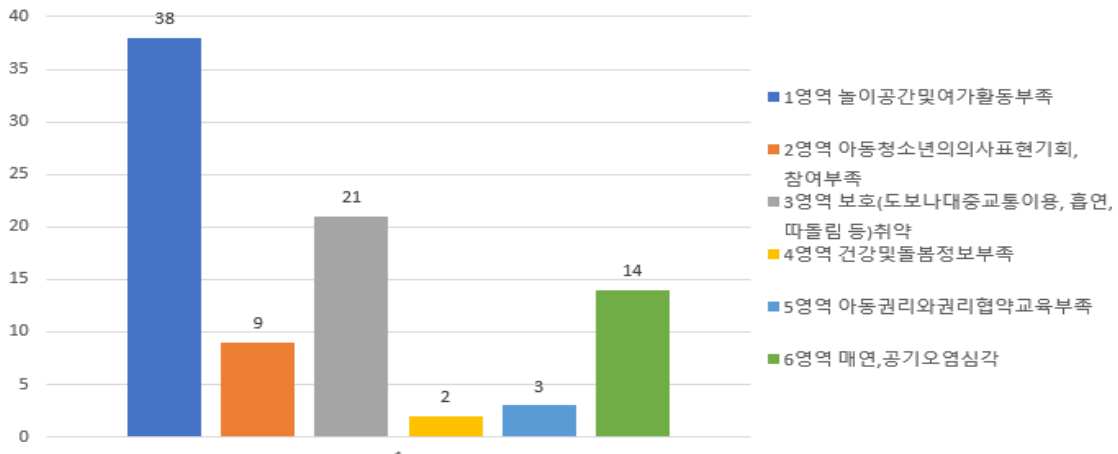
#### IV. 의제별 의견수렴 현황 및 아동의견의 구조화

##### 1. 6대 영역에 대한 문제 인식 우선순위 투표결과

○ 6대 영역 의제에 대한 문제인식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1영역 놀이와 여가에 대한 문제인식이 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1순위로 나타났으며, 3영역 안전과 보호에 대한 문제인식이 24%, 6영역 가정생활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이 16%로 나타남. 그 외, 2영역 참여와 시민권, 5영역 교육환경, 4영역 보건과 사회 서비스 순으로 문제 인식에 대한 우선순위가 나타남



익산시 아동정책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단위: 명)



[그림 2-IV-1] 익산시 아동정책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 2. 의제별 의견수렴 현황(중복 의견 포함)

&lt;표 2-IV-1&gt; 의제별 의견수렴 현황(중복 의견 포함)

연번	의제	해결방안				
		만들자	바꾸자	알리자	합산	비율
1	놀이와 여가	51	10	0	61건	20%
2	참여와 시민권	22	12	15	49건	16%
3	안전과 보호	37	17	5	59건	20%
4	보건과 사회서비스	43	20	17	80건	27%
5	교육환경	15	4	10	29건	10%
6	가정생활환경	14	4	2	20건	7%
총계		182건	67건	49건	298건	100%



[그림 2-IV-2] 의제별 해결방안 의견수렴

### 3. 아동 의견의 구조화

- (내용 구조화) 원탁토론에서 수렴된 아동의 의견은 구조화 절차를 통해 요약됨.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다양한 아동의 의견 중 유사한 것들은 범주화 및 유형화를 통해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정책과 사업에 적용할 수 있음. 특히, 사후에 아동 의견을 반영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54가지로 정리함

<표 2-IV-2> 아동 의견의 구조화

연 번	범주		의견
	영역	유형	
1	놀이와 여가	만들자	아동의 놀이공간, 휴식공간, 복합문화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만들고, 장애 여부에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2	놀이와 여가	만들자	아동의 놀이 및 여가활동을 장애 여부나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3	놀이와 여가	만들자	아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및 공연, 운동친선경기를 기획하고, 청소년 극단 등을 만들어주세요.
4	놀이와 여가	바꾸자	아동의 놀이공간과 청소년 거리를 안전하게 점검, 교체하고 청결하게 바꿔주세요.
5	참여와 시민권	만들자	아동청소년의 자치위원회,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활성화하고, 정책제안으로 반영해주세요.
6	참여와 시민권	만들자	아동청소년의 자치활동에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의 참여 및 활동 보고 논의를 정례화해주세요.
7	참여와 시민권	만들자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세요. (온오프라인 아동청소년 의견함, 아파트 어린이의견 게시판, 아동 권리활동 설계 공모전, 어린이 서명운동)
8	참여와 시민권	바꾸자	아동권리 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세요. (아동권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부모와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교육)
9	참여와 시민권	알리자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세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북학생인권조례, 청소년참여위원회 홍보/현수막, SNS, 애니메이션이나 유튜브, 계단이나 시설 곳곳에 홍보문구 활용)
10	참여와 시민권	알리자	아이들의 욕구와 정책 의견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주세요.
11	참여와 시민권	알리자	익산시에서 실천 중인 활동 및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세요
12	안전과 보호	만들자	학교 앞 교통 안전을 위하여 만들어주세요.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CCTV, 육교, 골목 안전거울, 횡단보도, 방지턱, 색이 짙은 신호등,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자전거 타는 아동청소년 헬멧 지원, 안전 통학도우미, 녹색부모회 하교길 활동, 부모안심 알리미 등)



연 번	범주		의견
	영역	유형	
13	안전과 보호	만들자	청소년 택시 만들기
14	안전과 보호	만들자	어두운 골목이나 장소에 LED 가로등을 설치해주세요, (비상벨 경보음 및 경찰 출동)
15	안전과 보호	바꾸자	주요 건축물 승인 및 준공검사에서 유아 및 장애인 관련 안전전 문가 점검
16	안전과 보호	바꾸자	학교에 황사 마스크 무료 배치, 미세먼지가 심하니 운동장 모래 를 풀이나 인조잔디로 바꾸기
17	안전과 보호	알리자	아동청소년에게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의 중요성 알리기
18	보건과 사회서비스	만들자	야간 어린이돌봄시설, 돌봄교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하기
19	보건과 사회서비스	바꾸자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및 아동복지시설 안전성 확보, 돌봄시스 템 무료 개편
20	보건과 사회서비스	바꾸자	청소년 금연교육, 길거리 금연공간 만들기, 3인 이상 자녀 가족의 무료예방접종 지원 등 보건 지원 강화
21	보건과 사회서비스	바꾸자	상담 관련 온오프라인 서비스 활성화, 학교폭력 피해자 심리지원 확대(무료상담앱 운영, 전문상담사나 복지사의 가정방문 등)
22	보건과 사회서비스	알리자	아이 돌봄 서비스, 영양플러스, 미혼모지원 서비스 등 신청 방법 을 더욱 알리자
23	보건과 사회서비스	알리자	아동 어플이나 유튜브 플랫폼을 개설하자
24	교육환경	만들자	직업체험관, 청소년센터, 문화센터, 체험과 학습에 필요한 교육 공 간과 시설 갖추기
25	교육환경	만들자	아동 청소년들의 멘토 만들기
26	교육환경	만들자	학교폭력 및 왕따 문화에 대한 안전한 보호 체계(익명성 보장)
27	교육환경	바꾸자	교칙이 아동권리를 위반할 때 개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자
28	교육환경	바꾸자	분리수거 쓰레기통 학급마다 배치, 학교에서 보유한 인라인스케 이트나 장비 기구 등을 아동에게 개방
29	가정생활 환경	만들자	익산시 왕도정원 가꾸기 사업 활성화하기
30	가정생활 환경	만들자	학교나 새 건물, 버스정류장이나 가로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31	가정생활 환경	만들자	버스 도착 확인 스크린 전체 설치, 하교시 버스 확충
32	가정생활 환경	만들자	분리수거함 보급,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로 환경 보호하기
33	가정생활 환경	바꾸자	폐가 철거, 공사장, 약취시설에 대한 관리 및 처벌 강화하기
34	가정생활 환경	알리자	아동 및 부모에게 아동방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및 대처에 대한 교육 의무화하기

- 놀이와 여가 영역에서는 주로 만들자 유형을 중심으로 의견이 나타남. 아동의 놀이공간, 휴식공간, 복합문화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만들고, 아동의 놀이 및 여가활동을 장애 여부나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이용, 아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및 공연, 운동친선경기를 기획하고, 청소년 극단 등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타남. 바꾸자 유형으로는 아동의 놀이공간과 청소년 거리를 안전하게 점검, 교체하고 청결하게 바꿔달라는 의견이 나타남
- 참여와 시민권 영역에서는 만들자 유형으로 아동청소년의 자치위원회,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활성화하고, 정책제안으로 반영, 아동청소년의 자치활동에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의 참여 및 활동 보고 논의 정례화,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 마련 등의 의견이 나타남. 구체적으로는 온오프라인 아동청소년 의견함, 아파트 어린이의견 게시판, 아동권리활동 설계 공모전, 어린이 서명운동 등이 제안됨. 바꾸자 유형으로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아동권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부모와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교육 등이 제시됨. 알리자 유형으로는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으며, 구체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북학생인권조례, 청소년 참여위원회 홍보/현수막, SNS, 애니메이션이나 유튜브, 계단이나 시설 곳곳에 홍보 문구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됨. 아이들의 욕구와 정책 의견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줄 것, 익산시에서 실천 중인 활동 및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것 등이 제안됨
- 안전과 보호 영역에서는 만들자 유형으로 학교 앞 교통 안전을 위하여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CCTV, 육교, 골목 안전거울, 횡단보도, 방지턱, 색이 짙은 신호등,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자전거 타는 아동청소년 헬멧 지원, 안전 통학도우미, 녹색부모회 하교길 활동, 부모안심 알리미 등의 지원이 제안됨. 그 외에, 청소년 택시 만들기, 어두운 골목이나 장소에 LED 가로등 설치(비상벨 경보음 및 경찰 출동) 등이 제시됨. 바꾸자 유형으로는 주요 건축물 승인 및 준공검사에서 유아 및 장애인 관련 안전전문가 점검 참여, 학교에 황사 마스크 무료 배치, 미세먼지가 심하니 운동장 모래를 풀이나 인조잔디로 바꾸기 등이 있었음. 알리자 유형은 아동청소년에게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의 중요성 알리기 등으로 나타남
-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만들자 유형으로 야간 어린이돌봄시설, 돌봄교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확충하기가 제안됨. 바꾸자 유형으로는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및 아동복지시설 안전성 확보, 돌봄시스템 무료 개편, 청

- 소년 금연교육, 길거리 금연공간 만들기, 3인 이상 자녀 가족의 무료예방접종 지원 등 보건 지원 강화, 상담 관련 온오프라인 서비스 활성화, 학교폭력 피해자 심리지원 확대(무료상담앱 운영, 전문상담사나 복지사의 가정방문 등) 등이 제시됨. 알리자 유형으로는 아이 돌봄 서비스, 영양플러스, 미혼모지원 서비스 등 신청 방법을 더욱 알리자, 아동 어플이나 유튜브 플랫폼을 개설하자 등의 의견이 나타남.
- 교육환경 영역에서 만들자 유형은 직업체험관, 청소년센터, 문화센터, 체험과 학습에 필요한 교육 공간과 시설 갖추기, 아동 청소년들의 멘토 만들기, 학교폭력 및 왕따 문화에 대한 안전한 보호 체계(익명성 보장) 마련 등으로 나타남. 바꾸자 유형은 아동권리에 맞는 교칙 개정, 분리수거 쓰레기통의 학급 배치, 학교에서 보유한 인라인스케이트나 장비 기구 등을 아동에게 개방하는 등의 의견이 제시됨.
  - 가정생활환경 영역에서 만들자 유형은 익산시 왕도정원 가꾸기 사업 활성화하기, 학교나 새 건물, 버스정류장이나 가로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버스 도착 확인 스크린 전체 설치, 하교시 버스 확충, 분리수거함 보급,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로 환경 보호하기 등이 주로 제시됨. 바꾸자 유형은 폐가 철거, 공사장, 악취시설에 대한 관리 및 처벌 강화하기, 알리자 유형은 아동 및 부모에게 아동방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및 대처에 대한 교육 의무화 등으로 제시됨.

○ (영역별 워드클라우드 키워드) 6개 영역에 대하여 영역별 의견에 대하여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주요 키워드가 나타남



[그림 2-IV-3] 의제별 해결방안에 대한 영역별 워드클라우드 키워드

#### 4. 아동들이 인식하는 주요 해결방안(순위 구분)

- **(중요하게 인식하는 주요 해결방안)** 총 10개 원탁토론 조에서 6개 영역 전체 중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해결방안을 3개씩 투표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음

&lt;표 2-IV-3&gt; 아동 의견의 구조화 아동들이 인식하는 주요 해결방안(순위 구분)

연번	의제	해결방안	
		1순위	2, 3순위
1	놀이와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 사랑의 날 만들기</li> <li>▶학교 간 친선운동경기</li> <li>▶넓은 놀이터 시설을 바꾸자</li> <li>▶복합문화센터를 만들자 (체육, 문화, 예술, 교육, 놀이, 돌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학교에 매점 설립</li> <li>▶동네마다 트램폴린 설치해주세요(디스코 팡팡 놀이동산)</li> <li>▶아동들의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 예산 늘려주세요(교재, 연구비 등)</li> <li>▶아동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기, 놀이공간과 시설 확충, 부모님의 재능기부 및 선생님의 처우개선</li> <li>▶학교에 실내운동장 만들기(풋살장)</li> </ul>
2	참여와 시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앞 육교 만들기, 시에서 우리 의견을 듣는 의견함 만들기</li> <li>▶SNS, 웹사이트 활용한 토론장 운영</li> <li>▶아동생각표현 익산시 유튜브 개설</li> </ul>
3	안전과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택시</li> <li>▶하교길도 등갓길처럼 교통안전지도 확대 실시</li> <li>▶아동의 심리정서분야 프로그램을 양육자와 함께 거리감 없이 참여할 기회</li> <li>▶고장난 것들을 시청에 쉽게 알릴 수 있게 한다</li> <li>▶아동관련 종사자의 역량과 직무적합성을 검증하는 기관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관련 종사자로 바꾸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학로 30Km 구간에 카메라 설치</li> <li>▶길거리 비상벨</li> <li>▶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교육하여 안전의 중요성 알리기</li> </ul>
4	보건과 사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간까지 어린이를 돌봐주는 시간(서비스)를 만들자</li> </ul>
5	교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주세요라고 알린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론을 통해 아동권리를 알리자</li> <li>▶아동권리 홍보에 광고, 홍보포스터 등으로 알리자</li> </ul>
6	가정생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장 청결관리나 악취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처벌수위 강화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쓰레기봉투보다 쓰레기통을 바꾸자</li> <li>▶미세먼지 일정량 증가시 학교휴일 정하자</li> <li>▶안전, 환경과 관련된 시설 및 도구를 아동청소년 근접 학교와 환경에 확대 배치하자</li> <li>▶미세먼지가 심하니 운동장 모래를 풀로 바꾸자</li> </ul>

- 놀이와 여가 영역에서는 가족 사랑의 날 만들기, 학교 간 친선운동경기, 넓은 놀이터 시설을 바꾸자,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자에 대한 의견이 1순위로 가장 선호가 높았으며, 모든 학교에 매점 설립, 동네마다 트램폴린 설치, 아동들의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 예산 증액, 아동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기, 놀이공간과 시설 확충, 부모님의 재능기부 및 선생님의 처우개선, 실내운동장 만들기 등이 다음 순위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참여와 시민권 영역에서는 학교 앞 육교 만들기, 시에서 우리 의견을 듣는 의견함 만들기, SNS, 웹사이트 활용한 토론장 운영, 아동생각표현 익산시 유튜브 개설에 관한 의견이 해결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제시되었음
- 안전과 보호 영역에서는 청소년 택시, 하교길도 등갯길처럼 교통안전지도 확대 실시, 아동의 심리정서분야 프로그램을 양육자와 함께 거리감 없이 참여할 기회, 고장난 것들을 시청에 쉽게 알릴 수 있게 함, 아동관련 종사자의 역량과 직무적합성을 검증하는 기관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관련 종사자로 전환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해결방안으로 제시됨. 그 다음으로는 통학로 30Km 구간에 카메라 설치, 길거리 비상벨, 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교육하여 안전의 중요성 알리기 등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야간까지 어린이를 돌봐주는 시간(서비스)를 만들자는 의견이 해결방안으로 상대적으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환경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주세요라고 알린다라는 의견에 대한 선호가 1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토론을 통해 아동권리를 알리자, 아동권리 홍보에 광고, 홍보포스터 등으로 알리자 등이 다음으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정생활환경 영역에서는 공사장 청결관리나 악취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처벌수위 강화하기에 대한 선호가 1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쓰레기봉투보다 쓰레기통을 바꾸자, 미세먼지 일정량 증가시 학교휴일 정하자, 안전, 환경과 관련된 시설 및 도구를 아동청소년 근접 학교와 환경에 확대 배치하자, 미세먼지가 심하니 운동장 모래를 풀로 바꾸자 등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관련 사진

시청 홈페이지 접수	언론홍보(전북일보 11월 14일자)
 <p>(아동신청) (성인신청)</p>	
원탁토론 기념사진	
	
원탁토론 진행 모습	원탁토론 참여자 제안 판넬
	





## **3부 아동 정책 방안 제안**



## 3부 아동 정책 방안 제안

### 비전 목표 전략

아동의 꿈과 함께 비상하는  
아동 행복 도시 익산



### 정책과제

놀이와여가 · 참여와시민권 · 안전과보호 · 보건과사회서비스 · 교육환경 · 가정생활환경

### 인프라 구축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 아동친화도시 홍보

[그림 3-1] 아동정책 개요

#### □ 아동정책 개요

- '아동의 꿈과 함께 비상하는 아동행복도시 익산'을 비전으로 아동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호 및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이를 위하여 아동권리 부분 6개 주요 영역에서 정책 과제를 선정함
- 아동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전략적으로 정책과제를 실행하면서 동시에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확립하고 아동권리 및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는 아동친화도조사, 시민참여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요구도가 높은 부분을 중점과제로 선정함
- 중점과제에 따른 전략 사업은 아동 및 시민의견을 수렴한 이후 실현가능한 사업을 제안하였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나 내용을 제시함
- 6개 영역별 중점과제 및 전략사업 제안 선정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아동 및 시민 의견		중점과제	전략사업
놀이와여가	가족 사랑의 날 만들기	아동 놀이 환경 개선 아동 놀이 프로그램 확대	놀이시설 설치 및 개보수
	학교간 친선 운동 경기		아동 체험 놀이 공간 조성
	넓은 놀이터 시설 바꾸기	아동 자치기구 활성화 아동 참여 환경 조성	이동식 놀이 공간 제공
	복합문화센터 만들기		익산 아동가족 사랑 축제 개최
	동네 트램폴린 설치		청소년 복합문화놀이공간 '어울누리'확대
	놀이공간과 시설 확충		영유아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학교 실내운동장 만들기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터		
아동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참여와시민권	아동청소년의 자치위원회 활성화	아동 자치기구 활성화 아동 참여 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시민과 함께 하는 회의 정례화		아동옹호 독립 대변기구(음부즈만) 구성
	시장 및 시의원이 함께 참여 논의	아동 안전 환경 조성 아동 보행 안전 환경 강화	아동권리주간 축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들을 창구 다각화 (온오프라인 청소년 의견함, 아동권리활동 설계 공모전)		전방위적 아동권리 교육
	아동권리 교육 전폭 지원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적극 홍보		
	정기적으로 아동육구 조사하여 결과 알리기		
	익산시 활동 정보 실시간 공유		
안전과보호	청소년 택시 운영	아동 안전 환경 조성 아동 보행 안전 환경 강화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하교길 교통안전지도 확대 실시		아동 안심벨: 길거리 비상벨 설치
	아동의 심리정서분야 프로그램 기회 확대	아동 돌봄 서비스 다각화 아동상담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아동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인력 배치 확대
	공공시설 개선 및 보수: 노후 시설, 고장 등 시정 고지 방안 마련		스쿨존 내 신호 및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아동관련 종사자 자질 검증 및 배치		
	통학로 구간 자동차 속도 제한 카메라 설치		
	안전한 환경 조성: 길거리 비상벨 설치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		
보건과사회서비스	야간까지 아동 돌봄 지원	아동 돌봄 서비스 다각화 아동상담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아동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긴급 돌봄 및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의 확충과 환경 개선		학교, 아동청소년, 가족 대상 상담복지시스템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상담 활성화 및 학교폭력 피해자 심리지원 확대	아동권리교육 내실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강화 학교환경 개선	아동청소년 보건복지서비스 핫라인 개설
	청소년 금연교육 및 길거리 금연공간 만들기		청소년 금연 교육 및 시민 금연 환경 조성
	아이돌봄, 영양플러스, 미혼모지원 서비스 등 신청방법 적극 홍보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안내 어플 및 유튜 브 플랫폼 개설		
	시민 대상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진로교육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강화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환경	아동권리교육	아동주거환경 개선 아동보호체계 강화	학교시설 개선 사업
	학교밖 아동 지원		
	깨끗한 학교 화장실	아동주거환경 개선 아동보호체계 강화	공사장 및 공장지역 청결관리 및 오염방 지감독 강화
	학교 내 아동 인권 감수성 키우기		환경오염 예방 시민참여 및 의식 개선 사업
	공사장 청결관리 및 악취원인 제거 처벌수위 강화		방임 아동 보호 마을공동체 구성
	미세먼지 일정량 증가시 휴교일로 정하기		
	환경과 관련된 시설 및 안전 도구 학교 인근에 배치		
	운동장 모래를 풀로 교체		
가정생활환경	폐가를 놀이터나 공공시설로 바꾸기		
	방임된 아동에 대한 관심 갖기		

## I. 놀이와 여가

아동 및 시민 의견	중점과제	전략사업
가족 사랑의 날 만들기	아동 놀이 환경 개선 아동 놀이 프로그램 확대	놀이시설 설치 및 개보수
학교간 친선 운동 경기		아동 체험 놀이 공간 조성
낡은 놀이터 시설 바꾸기		이동식 놀이 공간 제공
복합문화센터 만들기		익산 아동가족 사랑 축제 개최
동네 트램폴린 설치		청소년 복합문화놀이공간 '어울누리' 확대
놀이공간과 시설 확충		영유아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학교 실내운동장 만들기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터		
아동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놀이와 여가 영역 중점과제>

### □ 현황

#### ○ 현재 놀이시설 현황

<표 3-I-1> 익산시 공원 수

(단위: 개소, 천㎡)

구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수변공원		기타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현황	39	90,079	52	5,232,412	2	14,029	14	485,229

#### ○ 기존 익산 축제

- 익산 서동축제, 보석축제,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이 참여하고 즐길만한 놀이 프로그램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 동네 놀이터 장애아동 접근성 : 청소년 부모 및 미취학아동 부모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음
- 아동이 참여 가능한 다양한 문화, 종교행사, 이벤트, 축제 : 학교밖 청소년, 중·고 등학생, 청소년 부모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음

※ 동네 놀이터 장애 아동 접근성	※ 다양한 문화, 종교행사, 이벤트, 축제 유무
<p><b>전체</b></p> <p>매우그렇다 28.3</p> <p>전혀아니다 35.3</p> <p>가끔그렇다 36.4</p>	<p><b>전체</b></p> <p>매우그렇다 30.2</p> <p>전혀아니다 11.3</p> <p>가끔그렇다 58.5</p>

○ 시민참여 조사 결과

- 아동의 요구가 반영된 이벤트, 축제 등의 요구
- 놀이터 시설 개선 요구
- 놀이공간 및 시설 확충 요구

□ 중점 추진 사항

- 기존 놀이시설 및 공원 환경 개선 및 장애 아동 이용 편의성 제고
- 아동 요구에 부응하는 놀이 공간 조성
- 창의적, 복합적 놀이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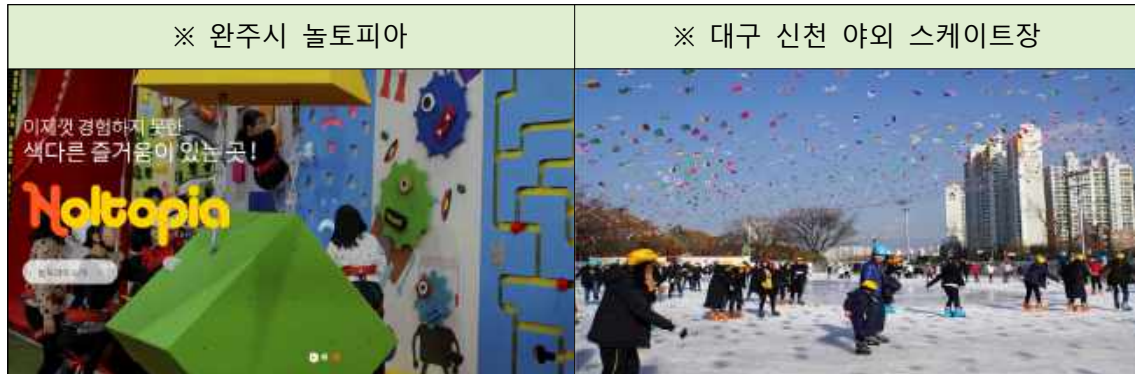
□ 중점과제

1. 아동 놀이 환경 개선

- 익산시 놀이 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익산시 놀이터의 안전 진단 및 장애 아동 접근성 평가
  - 낡은 시설 개보수 및 장애아동 이용 가능 시설 설치
  - 자연친화적 놀이터 조성

○ 아동 체험 놀이 공간 조성

- 실내 클라이밍, 수직낙하 등 실내 익스트림 스포츠, 풋살장 운영
- 테마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이동식 놀이 공간 제공

- '찾아가는 놀이터' 운영
-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공원 내 여름철 바닥분수나 수영장은 계절에 따른 한계가 있음



2. 아동 놀이 프로그램 확대

○ 익산 아동(가족) 사랑 축제

- 주기적 아동사랑 이벤트 개최
- 예시: 가족 걷기 대회, 가족 스포츠 경연 대회(줄넘기)
- 기존 축제 내의 아동권리 홍보 이벤트 또는 아동가족 대상 프로그램 신설

○ 청소년 복합문화놀이공간 '어울누리' 확대 운영

- 익산시 교육지원청 운영 청소년 문화자치공간 어울누리



- 폐교나 폐가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일부로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됨
-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이며 청소년 축제 개최 등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놀이와 축제, 프로그램이 실시됨
- 익산시의 초·중·고등학생 다수의 접근성을 높일 방안이 요구됨

○ 미취학아동(영유아) 대상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육아종합지원센터 앞 놀이공간 조성



- 주민센터 내부나 공공기관 주변 유휴 공간을 활용한 놀이 공간 조성



- (가칭) 꿈틀이/새싹이 놀이방



## II. 참여와 시민권 영역

아동 및 시민 의견	중점과제	전략사업
아동청소년의 자치위원회 활성화	아동 자치기구 활성화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시민과 함께 하는 회의 정례화		아동옹호 독립 대변기구(옴부즈만) 구성
시장 및 시의원이 함께 참여 논의	아동 참여 환경 조성	아동권리주간 축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들을 창구 다각화 (온오프라인 청소년 의견함, 아동권리활동 설계 공모전)		전방위적 아동권리 교육
아동권리 교육 전폭 지원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적극 홍보		
정기적으로 아동육구 조사하여 결과 알리기		
익산시 활동 정보 실시간 공유		

<참여와 시민권 영역 중점과제>

### □ 현황

<표 3-Ⅱ-1> 익산시 아동친화 6대 영역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

6대 영역	2019년		2018년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놀이와 여가	5,915,715	3.91%	3,495,701	2.51%
참여와 시민권	1,881,868	1.24%	706,502	0.51%
안전과 보호	69,105,839	45.69%	71,909,821	51.67%
보건과 사회서비스	24,171,355	15.98%	23,787,004	17.09%
교육환경	42,491,643	28.09%	33,876,726	24.34%
가정환경	7,680,300	5.08%	5,392,168	3.87%
계	151,246,720	100.00%	139,167,922	100.00%

※ 참여와 시민권 관련 예산 비율이 0.51%로 가장 낮음.

### ○ 기존 사업

-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운영: 사업목적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의미와 자치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장차 미래사회를 이끌 주역으로 양성하기 위함
-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참여위원회) :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익산청소년신문 "버리" 운영지원: 지역 청소년관련 문화행사와의 청소년과의 연결을 주도하고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참여확대
- 청소년참여활성화사업(청소년참여예산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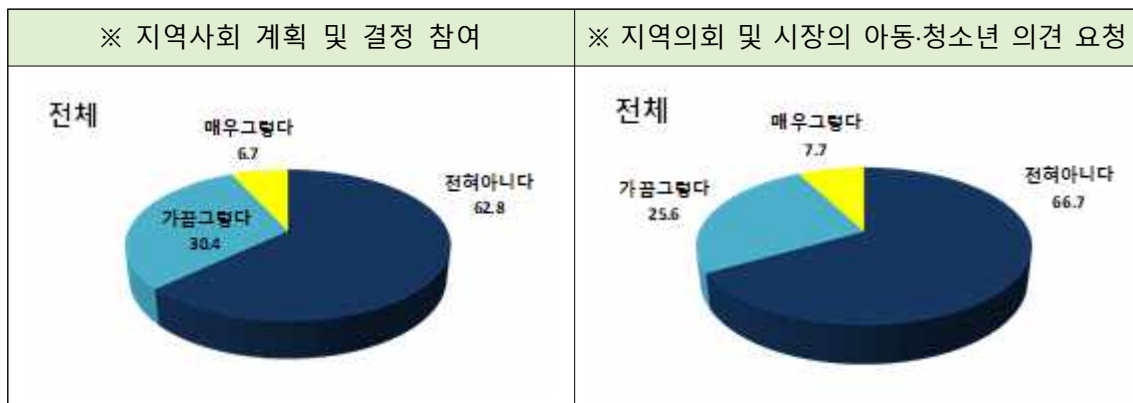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대상	참가인원	내용
청소년참여 예산학교	19. 5월~10월	중고등학생	30명	청소년참여예산에 대한 교육 관련 조례 제정위한 활동 등

- 교육관련 원탁회의 운영:

- ▶ 학생·학부모 등 각 교육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익산의 교육에 대해 논의
- ▶ 발전적 방안을 제안하여 시 교육정책에 반영

○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 우리 지역사회의 계획이나 중요한 결정 등에 참여 :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부모 전체에서 '전혀 아니다'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남
- 지역의회나 시장의 아동·청소년 의견 요청 :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부모 전체에서 '전혀 아니다'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남



- 아동 대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관한 나의 의견 반영: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부모 전체에서 '전혀 아니다'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남
- 중고등학생, 청소년부모의 '전혀 아니다'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시민참여 조사 결과

- 아동청소년의 자치위원회,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활성화하고, 정책 제안 반영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자치활동에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의 참여 정례화 제안함.
-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창구 마련을 요구함
- 아동권리 교육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함
-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유엔아동권리협약, 전북학생인권조례, 청소년참여위원회 홍보/현수막, SNS, 애니메이션이나 유튜브, 계단이나 시설 곳곳에 홍보 문구 활용)
- 아이들의 욕구와 정책 의견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아동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익산시 유튜브 채널 운영

□ 중점 추진 사항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및 적극적인 정책 반영
- 아동권리주간 축제
- 아동옹호 독립 대변기구(옴부즈만) 구성
- 전방위적 아동권리 교육
- 아동권리 홍보

□ 중점 과제

1. 아동 자치기구 활성화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 익산시 어린이 의회 활동내용은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등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자체장 및 시의원 등의 참여를 정례화해 보다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
  - ※ 전북 완주군 어린이 청소년의회 개원식: 군수, 군의회 의장, 교육청장 참여
- 아동옹호 독립 대변기구 구성
  - 옴부즈만 구성: 아동권리 옹호관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독립적 인권기구로 아동의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 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아동친화도시 아동청소년 활동가 양성

※ 전북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활동가 발대식



○ 아동권리주간 축제 운영

- 아동청소년과 부모,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가 아동권리에 대한 지식과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아동권리주간축제 운영

※ 지자체별 아동권리 축제 사례: 부산 금정구, 전북 완주군

[illegible]



## 2. 아동 참여 환경 조성

### ○ 전방위적 아동권리 교육

- 서울 노원구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 서울 노원구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 전주, 대전, 고양 인권도서 전시회 및 인권 사람 책 도서관(사람이 책 한 권이 되어 자신의 인권 경험을 이야기하는 자리) 행사

※ 전주 도서관 인권도서 전시



※ 대전 도서관 인권 행사



※ 고양 인권문화제



○ 아동권리 홍보

- 아동권리 홍보 및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하여 아동 인권을 보장하는 분위기를 통하여 아동친화도시 익산 조성
- 아동권리 UCC 공모전, 아동청소년권리 토크콘서트
- 아동친화도시 블로그 운영
- 정책 제안 게시판 운영: 도시 계획이나 학교 공간 설계, 시청 신청사 설계 등에 아동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도시 행정 전반에 아동의 권리 존중
- 익산시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아동의견 반영

※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 홍보: 공공기관 게시판 활용



※ 스위스 아동친화학교: 교실이나 놀이터 등 시설물을 만들 때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구성하는 과정에 참여. 공간이나 시설물을 만드는 데 사용할 소재나 색깔과 관련된 아동 의견 제안 기회 마련



### Ⅲ. 안전과 보호

아동 및 시민 의견	중점과제	전략사업
청소년 택시 운영		청소년 귀가택시 운영
하교길 교통안전지도 확대 실시		안전한 환경조성: 길거리 비상벨 설치
아동의 심리정서분야 프로그램 기회 확대	아동 안전 환경 조성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인력 배치 확대
공공시설 개선 및 보수: 노후 시설, 고장 등 시청 고지 방안 마련	아동 보행 안전 환경 강화	스쿨존 내 신호 및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아동관련 종사자 자질 검증 및 배치		
통학로 구간 자동차 속도 제한 카메라 설치		
안전한 환경 조성: 길거리 비상벨 설치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		

#### < 안전과 보호 영역 중점과제 >

#### □ 현황

-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폭력이나 약물 등의 위험 요소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 보행 및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높았음

#### ○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 지역사회 안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에 안전함 : 아동과 성인 모두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음

※ 자전거 이용 안전		※ 유괴 및 납치로부터의 안전	
<b>전체</b>	전혀아니다 13.3	<b>전체</b>	전혀아니다 16.1
매우그렇다 41.2	가끔그렇다 45.4	매우그렇다 47.4	가끔그렇다 36.5

-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이 유괴나 납치로부터 안전함: 아동에 비해 성인 모두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음

○ 시민참여 조사 결과

- 청소년들의 방과 후 또는 학원 수강 후 늦은 귀가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택시)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등갓길뿐만 아니라 하갓길 교통안전지도도 이루어지길 바람
- 최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이 큼. 스쿨존 내 신호나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요구
- 아동이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길거리 비상벨 설치 요구

□ 중점 추진 사항

○ 아동의 안전한 보행 보장 및 아동친화적 도로 정비

○ 아동 보호 체계 강화

□ 중점 과제

**1. 아동 안전 환경 조성**

○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운영

-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활동 후 늦게 하교하는 청소년 대상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운영
- 택시회사와 협약 체결 후 희망 택시에 한 해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마크 부여
- 전남 청소년 택시의 경우 1회 이용 시 1,000원의 비용을 학생이 부담 후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

※ 전남 해남에서 운영중인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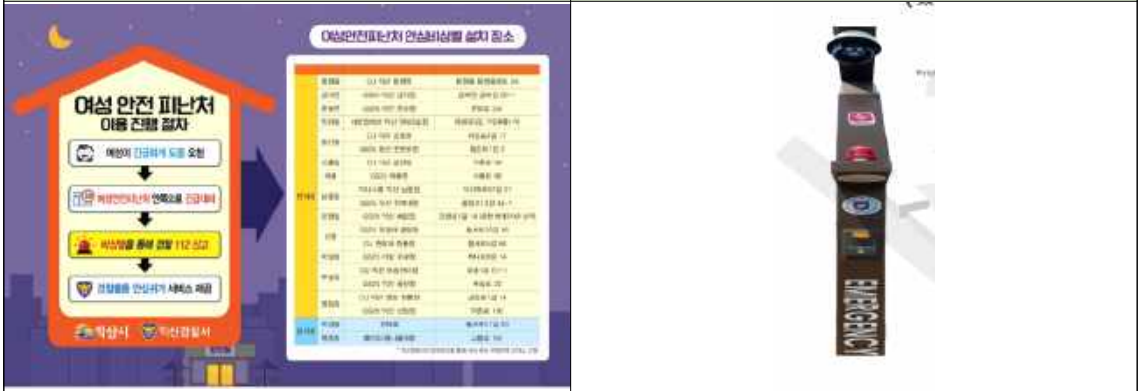


○ 아동 안심벨: 길거리 비상벨 설치

-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용가능한 원스톱 경찰 신고 시스템 구축
- 아동 통학로, 골목, 놀이터 주변, 공중 화장실 안심벨 설치
- 익산시 여성안전피난처에 아동도 포함 요구



※ 원광대학교 캠퍼스 안전지킴이 비상벨



## 2. 아동 보행 안전 환경 강화

-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인력 배치 확대
- 범죄 및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거지역이 가까운 초등학생을 모아 교통 안전지도 성인이 함께 등하교 지원
- 대상연령을 넓히고 좀 더 다양한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방학 중 방과 후 수업 수강 아동도 지원 유지 요구

※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 스쿨존 내 신호 및 속도 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 스쿨존 내 규정 속도를 지킴으로 아동이 안전 통학 보장
  - 스쿨존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의무화

#### IV. 보건과 사회 서비스

아동 및 시민 의견	중점과제	전략사업
야간까지 아동 돌봄 지원	아동 돌봄 서비스 다각화 아동상담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아동 보건복지서비스 체계 강화	긴급 돌봄 및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의 확충과 환경 개선		학교, 아동청소년, 가족 대상 상담복지시스템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상담 활성화 및 학교폭력 피해자 심리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보건복지서비스 핫라인 개설
청소년 금연교육 및 길거리 금연공간 만들기		청소년 금연 교육 및 시민 금연 환경 조성
아이돌봄, 영양플러스, 미혼모지원 서비스 등 신청방법 적극 홍보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안내 어플 및 유튜브 플랫폼 개설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 중점과제>

#### □ 현황

<표 3-IV-1> 보육지원 시설 및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

계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 집	가정어린이 집	직장어린이 집	육아종합지 원센터	기타
202	46	60	90	5	1	0

<표 3-IV-2> 아동지원시설 현황

(단위: 개)

계	지역아동 센터	초등돌봄 교실	방과후 어린이집	드림스타 트센터	공동생활 가정	아동양육 시설	아동발달 지원센터
171	48	108	7	1	4	3	0

<표 3-IV-3> 청소년시설 현황

(단위: 개)

계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쉼터	지역아동센터	성문화센터
5	1	1	1	1	아동시설	1

-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보건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아동정신건강서비스,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화장실, 돌봄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 아동정신건강서비스(예: 상담 등) : 전체 응답자 중 17.1%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고, 중고등학생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21.7%로 응답자 중 가장 높음
- 안전하게 이용가능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평가: 전체 부정적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중·고등학생과 청소년의 부정적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남. 지역적으로는 신도심에 비하여 구도심, 읍면의 부정적 인식 비율이 높음
- 지역사회 내 자녀를 돌봐 줄 기관이나 사람에 대한 평가: 부정적 응답 비율은 전체적으로는 높은 편이 아니나, 초등학교 부모의 경우 18.6%로 다소 높게 나타남. 신도심이 구도심 및 읍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돌봄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정신건강서비스 평가	※ 지역 공중화장실	※ 자녀 돌봄 기관 및 사람
<p>전체</p> <p>매우그렇다 37.3</p> <p>전혀아니다 17.1</p> <p>가끔그렇다 45.6</p>	<p>전체</p> <p>매우그렇다 36.9</p> <p>전혀아니다 22.2</p> <p>가끔그렇다 40.9</p>	<p>전체</p> <p>매우그렇다 37.9</p> <p>전혀아니다 10.6</p> <p>가끔그렇다 51.5</p>

## ○ 시민참여 조사 결과

- 야간 아동돌봄시설, 돌봄교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확충 및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음. 특히, 야간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에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담 관련 온오프라인 서비스의 활성화, 학교폭력 피해자 심리지원 확대의 필요성 나타남
- 아이 돌봄 서비스, 영양플러스, 미혼모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신청 지원, SNS 등을 통한 안내가 필요함
- 청소년 금연교육, 길거리 금연부스 등 보건 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도 나타남

## □ 중점 추진 사항

- 야간 긴급 돌봄, 공동체 육아 활성화로 빈 틈 없는 돌봄 지원
-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의 수요공급 조사에 기반한 지원 및 환경 개선
- 학교, 아동청소년, 가족 대상 상담복지시스템의 협력체계 구축
- 청소년 금연 교육 및 시민 금연 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 보건복지서비스 핫라인 개설

## □ 중점 과제

### 1. 아동 돌봄 서비스 다각화

#### ○ 긴급 돌봄 및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 긴급아이돌봄센터 운영: 당일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바로 이용이 가능한 아이돌봄 사업이 기존 돌봄 사업을 보완할 수 있음. 긴급상황은 갑작스럽게 가족상을 당하거나, 부모가 아픈 경우 등으로 즉시 이용가능한 서비스 운영이 핵심임

※ 광주광역시의 긴급아이돌봄센터: 6개월~5세 영유아 자녀 가정 대상으로 소득수준 상관없이 시간당 3,000원 자부담으로 서비스 운영. 보건복지부 주관 시간제 보육사업으로 이용가능

-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만 12세 이하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양성된 병원아동보호사를 지원함으로써 맞벌이부부의 간병 부담을 덜고자 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시범운영: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이후 현재는 광주광역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 이용요금은 1시간에 1,300원~6,500원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운영 중임

※ 광주 광역시 긴급아이돌봄 센터	※ 광주광역시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 2. 아동 상담 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

#### ○ 학교, 아동청소년, 가족 대상 상담복지시스템의 협력 체계 구축

- 교육부 WEE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의 전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상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 다양한 상담복지시스템의 협력 체계 구축

- 익산시 자살률을 고려하여 자살예방사업으로 청소년 대상 생명사랑 양성교육('보고듣고말하기')의 활성화

### 3. 아동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 ○ 아동청소년 보건복지서비스 핫라인 개설

- 아이돌봄콜센터 및 SNS(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익산시 아동청소년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홍보 체계 구축
- 아이돌봄콜센터 운영: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부터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까지 관련 보육 정책을 한 번에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운영
  - ▶ 임신, 출산시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 ▶ 양육 수당, 돌봄시설 이용안내 및 연계
  - ▶ 산모돌보미, 아이돌보미 신청
  -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안내

※ 서울 서초구 아이돌봄 콜센터



#### ○ 청소년 금연 교육 및 시민 금연 환경 조성

- 청소년 대상 금연 캠페인이나 프로그램 확대 강화
- 지역내 시민 금연 환경 조성

※ 부산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 길거리 흡연부스



## V. 교육환경

아동 및 시민 의견	중점과제	전략사업
시민 대상 아동권리 홍보		
진로교육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강화	아동권리교육 내실화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아동권리교육	진로교육 프로그램 강화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 아동 지원	학교환경 개선	학교시설 개선 사업
깨끗한 학교 화장실		
학교 내 아동 인권 감수성 키우기		

<교육환경 영역 중점과제>

### □ 현황

#### ○ 교육 기관

<표 3-V-1> 교육 기관 현황

(단위: 개)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186	80	60	26	18	2

#### ○ 도서관 및 문화시설


<표 3-V-2> 도서관 및 문화시설 현황

(단위: 개)

구분	도서관		문화시설				
	도서관	좌석(개)	공공공연장	민간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현황	41	984	6	3	2	3	11

#### ○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 학교내 아동권리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습 경험: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학부모 등이 상대적으로 경험 유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함
- 학교화장실 안전도와 청결 평가: 학교밖 청소년, 중고등학생, 구도심 학교 화장실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음
- 학교밖 아동을 위한 대안적 교육 지원: 아동관계자만을 대상으로 질문한 문항으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성인이 더 엄격하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됨

※ 학교내 아동권리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습경험	※ 학교 화장실 안전도 및 청결 평가	※ 학교밖 아동 대안교육 지원
<p>전체</p> <p>매우그렇다 51.2</p> <p>전혀아니다 19.0</p> <p>가끔그렇다 29.8</p>	<p>전체</p> <p>매우그렇다 58.3</p> <p>전혀아니다 8.2</p> <p>가끔그렇다 33.5</p>	<p>전체</p>  <p>매우그렇다 52.6</p> <p>전혀아니다 11.9</p> <p>가끔그렇다 35.6</p>

○ 시민참여 조사 결과

- 아동권리교육 강화 및 시민 홍보
-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강화
- 자유학기제 등 청소년 체험 학습을 위한 시설 운영

□ 중점 추진 사항

- 아동권리 대중 홍보 강화
- 실효성 있는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확대 강화
- 진로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강화
- 노후화된 학교시설 보수 및 개선

□ 중점 과제

**1. 아동권리교육 내실화**

-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실효성 있는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등 아동관련 유관기관 연계 체험식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대상 학생조례 및 학생인권과 아동권리 통합 교육
  - 교사 대상 아동권리교육 강화

**2. 진로교육 프로그램 강화**

-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 지역사회 교육기관(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문화시설 등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체계 마련

예시: 원광대학교 고등학생 대상 진로캠프 운영

### 3. 학교환경 개선

○ 학교시설 개선 사업

-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보수 지원

## VI. 가정생활환경

아동 및 시민 의견	중점과제	전략사업
공사장 청결관리 및 악취원인 제거 처벌수위 강화	아동주거환경 개선 아동보호 강화	공사장 청결관리 및 오염방지감독 강화
미세먼지 일정량 증가시 휴교일로 정하기		환경오염 예방 시민참여 및 의식 개선사업
환경과 관련된 시설 및 안전 도구 학교 인근에 배치		방임 아동 보호 마을공동체 구성
운동장 모래를 풀로 교체		
폐가를 놀이터나 공공시설로 바꾸기		
방임된 아동에 대한 관심 갖기		

<가정생활환경 영역 중점 과제>

### □ 현황

○ '익산악취24' 프로그램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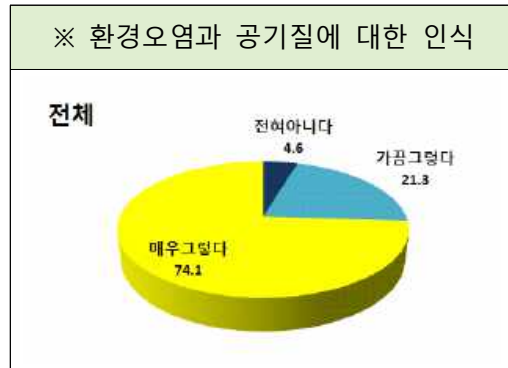
- 24시간 악취 모니터링 실시





○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 식수나 전기, 안전한 공간 등에 관한 문항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환경 오염과 공기질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임
- 환경오염과 공기질에 대한 인식 : 아동에 비해 성인들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음



○ 시민참여 조사 결과

-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 청결관리 강화
- 미세먼지와 매연으로 인한 대기질 농도가 높아질 때 휴업, 휴무 권장
- 아동 학대 예방 및 학대받은 아동 관리 강화

□ 중점 추진 사항

- 지역적 특성에 따른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
- 사각지대의 방임아동 보호 방안 마련

□ 중점 과제

1. 아동주거환경 개선

- 공사장 및 공장 지역 청결 관리 및 오염 방지 감독 강화
  - 기존의 악취 모니터링 체계 강화
  -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등 오염원에 따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환경오염 예방 시민 참여 및 의식 개선 사업
  - 쓰레기 재활용 및 미세먼지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및 수상 제도 마련

-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쓰레기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시민 의견 공모
- ※ 쓰레기 재활용(upcycle) 사례 공모전 및 실제 공공기관 운영이나 시설에 반영 및 홍보. 쓰레기 재활용은 쓰지 않거나 버려지는 물건에 디자인이나 쓰임새를 더해 더 높은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자원순환의 새로운 방법임



## 2. 아동보호체계 강화

### ○ 방임 아동 보호 마을 공동체 구성

-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돌봄 확대
-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이나, 아파트 운영회의실 등 돌봄 가능 공간 활용

<p>※ 광주 남구 “숲속작은도서관” (2019 여성가족부 장관상_대상)</p>	<p>※ 서울 구로구 돌봄 마을공동체 사례</p>
	<p>서울 구로구</p> <p><b>다 함께 행복한 온(溫) 돌봄 공동체 만들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내 도서관이 많다는 지역 특성 활용</li> <li>2. 주거 지역에 가까운 작은 도서관과 마을 활력소에서 학부모와 주민이 직접 방과 후 아동을 돌봄</li> <li>3. 운영 시간 : 방과 후 오후 1시부터 7시까지</li> <li>4. 운영 활동 : 독서지도, 신체활동, 모둠 놀이, 학원 챙겨 보내기, 숙제 도와 주기 등</li> <li>5. 운영 계획 : 22년까지 총 50곳으로 참여기관 확대</li> </ol>

※ 경기도 시흥 돌봄 체계	※ 전남 광양 돌봄 업
<p><b>경기 시흥시</b></p> <p><b>시흥형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b></p> <p>1. 시흥시만의 <b>돌봄 브랜드 '아이누리'</b> 개발 2.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과 함께 하는 <b>세대 공감</b> 마을학교형</li> <li>- 다양한 <b>독서 프로그램</b>이 이루어지는 공공 도서관형, 작은 도서관형</li> <li>- 방과 후 <b>특기 적성</b>이 이루어지는 마을학교형</li> <li>- 체육회 및 관련 공동체가 운동,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b>스포츠 마을학교</b>형</li> <li>-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b>청소년 전용 공간</b>형</li> </ul> 	<p><b>전남 광양시</b></p> <p><b>다 함께 · 온종일 돌봄 사업</b></p>  <p>1. 마로니에 돌봄 센터 : <b>광양 재철소</b>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오후 7시까지 보살핌 제공</p> <p>2. 가온누리 돌봄 센터 : <b>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b>와의 연계를 통해 놓여준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청소년문화의 집 공간 재배치)</p> <p>3. 초등 이웃 돌봄 HERO (실시 예정) : <b>경력 단절 여성</b>들이 이웃집 아이들에게 방과 후 돌봄과 간단한 학습을 제공</p>

○ 아동학대 예방 홍보: 옥외 광고 설치

-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강화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 의식 고취
- 아동학대 신고 방법 홍보

※ 아이의 눈높이에서만 보이는 신고전화 광고





---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최종결과보고서**

---

인쇄일 : 2019년 12월 19일

발행일 : 2019년 12월 19일

발행처 : 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

---